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 국립극단
사례집

일러두기

1.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사회적 기억을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책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극단이 진행한 후속조치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 이 책의 개인 정보 표기는 기초 자료로 삼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의 원칙을 토대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장·차관, 기관장의 경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례집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와 실명 공개에 동의한 피해자의 경우 성명을 밝혔습니다.

3. 블랙리스트 실행에 연루된 공무원과 실명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 피해자가 언급한 제삼자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관계자의 경우 사무관(5급) 이상과 산하기관 본부장, 부장, 팀장 등 관리자급은 직급과 성만 표기하고 이름은 익명 처리했으며, 주무관(6급) 이하와 그에 견주는 실무자는 성명을 밝히지 않되 직급만 표기했습니다.

4. 이 책의 내용에 포함된 문화부(1989~1993년), 문화체육부(1993~1998년), 문화관광부(1998~2008년), 문화체육관광부(2008년 이후) 등 정부 부처의 명칭 변화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정리했습니다.

5. 이 책의 사건 관련 서술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급과 소속은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6. 책·단행본 등 서적은 겹낫표(『』), 보고서와 법령은 홑낫표(「」), 작품과 공연명은 홑화살괄호(<>)로 표기했습니다.

7. 녹취록과 기고문은 가능한 당사자의 말투와 문장을 살리고자 했으며, 내용 중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주석을 덧붙인 경우 대괄호(〔 〕)로 표기했습니다.

8. 이 책의 토대로 삼은 자료는 부록 [E-2] 기초 자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국립극단 사례집을 펴내며

[P-1]	발간사	003
[P-2]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 기록의 의미	004
[P-3]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가 걸어온 길	00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A-0]	시작하며	022
[A-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023
[A-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형	025
[A-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현황	027
[A-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030
[A-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	040
[A-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	042
[A-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주요 타임라인	048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목소리

[B-0]	시작하며	051
[B-1]	공연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052
[B-2]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	055
[B-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대본 수정 조치가 있었던 경위	058
[B-4]	국립극단 공동 제작공연 <알리바이 연대기>의 경우	063
[B-5]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에서 대본 수정 조치 경위	078
[B-6]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에서 <빛의 제국> 등에 대한 양해 조치가 있었던 경위	108
[B-7]	<3월의 눈>이 배제된 경위	113
[B-8]	국립극단 공동 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홍보물에 대한 수정 경위	115
[B-9]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된 경위	124
[B-10]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날아가 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	126
[B-11]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양해 조치 경위	134
[B-12]	국립극단 공동 주최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이 취소된 경위	136
[B-13]	2016 '작가의 방'의 경우	137

부록

[E-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국립극단 사례집 발간에 부쳐	157
[E-2]	기초 자료 목록	16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립극단 사례집을 펴내며

[P-1]

발간사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의 길고 긴 터널은 지나온 듯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공연장마다 관객들이 조심스레 발걸음을 해 주시고, 지역별 다양한 축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올해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의 도화선이 된 <개구리> 공연으로부터 꼭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당시 국립극단은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다양한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작품에 걸쳐 정부의 부당한 지시, 외압, 검열을 그대로 실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의 소중한 창작물은 훼손 당했고, 참여한 예술인들은 상처를 입었고, 어떤 작품은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잃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 국립극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시의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사과하는 과정과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 사례집을 발행하여 역사를 기록하고, 반성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극단 의견에 모두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극단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다는 반성과 함께 정부의 공식 조사만으로는 미처 알 수 없었던 상세 과정을 심도 있게 기록하여, 블랙리스트 실행의 경위와 양상을 보다 생생하게 감각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려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면담에 응하고 원고를 작성해 주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립극단 사례집은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기억을 남기는 작업의 시작입니다. 또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국립극단의 의지의 표명이고, 다짐이고, 반성입니다.

국립예술단체로서 국민과 예술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이 사례집을 거울 삼아 국민과 예술인을 위한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P-2]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사건 기록의 의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1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6개 공공기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과제 이행 점검을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권고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며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2013년 청와대에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가 박정희·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했다며 향후 국립예술단체에서 ‘정치적 소재’를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시발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대상 기관에서는 빠져 있다가 <날아가 버린 새> 사건 피해자 간담회를 계기로 이행협치추진단의 점검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다.

<날아가 버린 새>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2016년 공연하기로 했던 작품으로,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인 것이 원인이 돼 작품이 배제되면서 결과적으로 작가까지 배제된 사례다. 작품이 배제되면서 작가뿐만 아니라 스태프와 배우들을 비롯한 제작진, 관객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됐고, 작품이 보여주고자 했던 세계 자체가 국립극단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날아가 버린 새>의 작가와 연출가는 2020년 10월 8일 국립극단·문체부와 만난 간담회에서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날아가 버린 새> 사건에 대한 배·보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국립극단은 이 약속에 따른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의 일환으로 사안별 피해자 간담회를 거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국립극단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이 사례집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다. 우선 국립극단이 스스로 주체가 돼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그 목소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립극단은 이 사례집에 기록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기관이지만, 스스로 그 과오를 반성하고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예술감독을 비롯해 국립극단 담당 직원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사례집 제작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기록한 사례 역시 타 기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립극단이 정부보다 현장 예술인과 관객에게 책임지는 극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 예술인의 기록 참여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극단과 피해 당사자들이 만나 사례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거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피해자 간의 만남이 이뤄지기도 하고, 서로의 오해가 풀리거나 단절된 관계에서 사과나 화해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집은 국립극단이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극단 스스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대개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은 기관의 직원들은 자기 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이 조

[P-2]

직 내에서 대개는 상급자로 함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보고서도 비실명 처리가 돼 있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기관 스스로 이러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생각보다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극단과 작업하는 창작자들에게도 이러한 사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창작자들이 국립극단 내부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전달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국립극단 내부에서 불합리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거나 그러한 의사 결정이 창작자들에게 전달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국립극단에서 수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속될 수 있던 배경에는 창작자들의 국립극단 조직 내부에 대한 무지도 한몫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관객이 국립극단에서 있었던 이 배제 사례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때 볼 수 있었던 좋은 작품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관객이 많아질 때, 우리가 좋아하는 공연장이 매우 불합리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관객이 많아질 때 국립극단은 점점 블랙리스트를 다시 실행하는 기관이 되기 어려워질 것이고, 정부도 점차 국립극단에 부당한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기관의 직원들이 가끔 도대체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고, 언제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곤 한다. 국립극단의 이번 사례집은 사과가 끝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신뢰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사례집은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사례집 덕분에 이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도 국립극단에서 있었던 일을 알게 됐고, 피해를 본 사람들의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사례집 발간에 함께해준 분들의 덕이 클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어느 날 불이익의 근거가 될지도 모를 기록에 자기 이름과 경험을 수록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례집이 갖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국립극단에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 혹은 의심되는 블랙리스트 사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 사례집이 국립극단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부를 수록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록했다고 하지만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를 수록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립극단 피해 사례 기록 과정은 피해 당사자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등재됐거나 피해가 확인된 사람을 기준으로 목소리가 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집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좀 더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함께 실행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한편으로 하고 예술인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감각은 대체로 타당하지만,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은 아니다.

현장 예술인 중에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긴밀하게 협조한 사람들도 많았고, 공공기관 직원 중에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거부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더 이상 블랙리스트를 실행

[P-2]

하지 않기 위해 퇴사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자 했던 사람과 블랙리스트를 거부하고자 했던 사람 사이의 구분은 반드시 날카롭게 분리 가능한 것만도 아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가담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옹호하는 논리로 오용될 수도 있지만, 기관에서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 드러내고 학습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당한 배제 지시를 받았을 때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순응하는 대신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사례집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국립극단 예술감독과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과 피해 예술인들이 협력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례로 주목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갈 때, 비로소 국립극단은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예술인과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로 운영되는 극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술감독 선임 절차의 개선이다. 현재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단 운영 예산을 매년 약 100억 원 넘게 지원하고 있다. 국립극단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극단 예술감독 선임을 공모 형태로 전환하거나 선임 권한을 국립극단 이사회로 옮겨오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날아가 버린 새> 사건 피해자들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도 이러한 예술감독 선임 절차 개선이 포함된 것이었다. 예술감독 선임 절차 개선이야말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척도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언급해둔다. 이 사례집 발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서 만남의 자리마다 동석할 기회를 얻게 됐고, 여운이 오래가는 만남들이 있었다. 이 만남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P-3]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가 걸어온 길

[P-3-1] 배경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2017년 7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는 1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2018년 5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정부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책임 규명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국립극단의 후속조치는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했다.

국립극단은 조사위의 결과 발표 직후인 5월 14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극단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문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구리>(2013)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대한 부당한 지시, 외압, 검열이 국립극단 내에서 지속됐고, 극단이 이를 실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과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된 예술가뿐만 아니라 같은 공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6년 공연 사업 후보에서 배제된 <날아가 버린 새>(P-3.1)의 장지혜 작가에 대한 사과를 누락하게 됐다. 더욱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날아가 버린 새>가 블랙리스트 피해 작품으로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술감독은 장지혜 작가와의 소통 과정에서 “백서가 백 퍼센트 맞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장지혜 작가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점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했다.[B-10-5]

이에 국립극단은 당시 새롭게 구성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이행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장지혜 작가 역시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임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이를 포함한 내용으로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또한 백서에 언급된 내용(P-3.2)을 포함해 해당 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한 사건의 내용을 사과문 초안에 포함했다.

국립극단은 당시 두 가지 잘못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다. 첫째는 2015년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날아가 버린 새> 공연이 배제됨으로써 장지혜 작가에게 전인철 연출가와 동일한 피해를 입힌 것, 둘째는 백서를 통해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에 배제됐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장지혜 작가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

(P-3.1) 2015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는 예술가청소년작가벨트 '창작희곡 낭독 쇼케이스'를 진행했으며, <날아가 버린 새>는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로 같은 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국립극단 소극장관에서 낭독공연했다. 조사위에서는 해당 공연이 2016년 공연 사업 후보로 논의됐으나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였다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장지혜 작가는 그와 같은 공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함께 배제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B-10] 참조

[B-10-5] <날아가 버린 새> 관련 국립극단 사과문 참조

(P-3.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2-3권, 274~275쪽; [B-10]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날아가 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 참조

[P-3]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장지혜 작가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과문을 2019년 10월 21일 국립극단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발표했고, 사과문 발표 당일 <날아가 버린 새>의 전인철 연출과 장지혜 작가를 국립극단에서 직접 만나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공동으로 지속하기로 했다.

공식 사과문 발표 이후 11월 5일부터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막한 연극 <날아가 버린 새> 관람을 위해 당시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이 방문해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11월 22일에 다시 만남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예술감독은 장지혜 작가에게 새로운 작품 제작을 제안했다. 이에 장지혜 작가는 본인의 작업보다는 <날아가 버린 새>를 비롯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작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해가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관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장지혜 작가와 동석한 전인철 연출은 <날아가 버린 새> 사건의 당사자인 연출가와 작가를 포함해 연극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한 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에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P-3-2]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과정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작가 및 연출가, 그리고 문체부 및 이행추진단과의 의견 조정을 거쳐 참석자 선정부터 긴밀히 협의했다. 이를 통해 성사된 첫 번째 간담회가 2019년 12월 24일 국립극단 서계동 스튜디오에서 전인철 연출가·장지혜 작가를 비롯해 문체부, 외부 자문위원, 국립극단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P-3.3) 이 자리에서는 우선 국립극단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날아가 버린 새> 사례와 관련한 시간의 경과를 발표했고, 국립극단이 추진할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장지혜 작가는 <날아가 버린 새> 사례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와 더불어 국립극단의 회복도 함께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사실 저는 제가 배제되었다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고보다, 그것도 좀 충격이긴 했는데, 그 이후에서 해결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좀 힘들었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그런 관심을 받는 것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게 좀 지루한 것 아니냐 국립극단이 회복되었으면... 어쨌든 회복이 돼야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원동력이 되고, 국립극단이 누군가한테도 공연하기 좋은 공연장이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일도 없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신한테도 어쩌면 그게 하나의 치유 방법이니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

(P-3.3) 1차 간담회 참석자(총11명)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송윤석
- 외부: 연출가 전인철, 작가 장지혜,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이양구, 평론가 김미도, 작가 고연옥, 연출가 심재찬, 배우 남명렬
- 국립극단: 사무국장 오현실, 홍보마케팅팀장 정용성, 경영관리팀 김시내

[P-3]

을까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장지혜(2019-12-24, 후속조치 1차 간담회)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 자문위원들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국립극단의 적극적인 성찰과 변화가 요구되며, 후속조치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후속조치라는 것이 작가님을 만나서 어떤 걸 원하고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립극단이 그전까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방식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연옥(2019-12-24, 후속조치 1차 간담회)

“작가가 원하는 생각, 작가가 원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도(2019-12-24, 후속조치 1차 간담회)

장시간 논의 끝에 전인철 연출은 작가와 정리한 입장을 통해 후속조치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후속조치로써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 일은 문체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 두 사람(전인철 연출, 장지혜 작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철(2019-12-24, 후속조치 1차 간담회)

더불어 이양구 이행추진단 위원의 제안으로 국립극단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2차 간담회 안건으로 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문체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 국립극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추진단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1차 간담회 종료 후 극단 내부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첫 번째 내부 회의를 통해 간담회 내용을 공유했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1차 간담회 직후인 2020년 1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됐고, 국립극단은 다수의 공연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큰 사건을 겪었다. 또한 문체부 담당 과장이 인사 이동으로 교체되는 등 후속조치 계획을 관련 부처와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까지 강화되는 등 간담회 일정을 계획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간담회는 2020년 10월 8일 국립극단 서계동 스튜디오에서 전인철 연출가·장지혜 작가를 비롯해 문체부, 외부 자문위원, 국립극단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P-3.4)

(P-3.4) 2차 간담회 참석자(총11명)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송윤석
- 외부: 연출가 전인철, 작가 장지혜,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이양구, 평론가 김미도, 작가 고연옥, 연출가 심재찬, 배우 남명렬
- 국립극단: 사무국장 오현실, 홍보마케팅팀장 정용성, 경영관리팀 김시내

[P-3]

이 자리에서는 국립극단이 마련한 후속조치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 및 <날아가 버린 새> 사건 내용 기록·보존’이다. <개구리>를 비롯한 국립극단 관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발췌와 함께 <날아가 버린 새> 관련 내부 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된 세부 경위 내용을 보완·정리해 내부 보존 및 임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활동’이다. 우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또한 극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대처 교육을 국립극단 공통 교육으로 지정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극단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강력히 거부한다는 내용의 가칭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국립극단의 약속’을 제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재단법인 국립극단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법상 재단법인이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국립극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주무관청으로부터의 부당한 업무 지시 거부와 함께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계획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업에 대해 세심하고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날아가 버린 새)의] 공개 사과문이 나오는 과정에서 문구 하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임 예술감독 시기에 있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현 예술감독이 했던 일들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과가 어렵게 마무리되었던 것이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 책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양구(2020-10-08, 후속조치 2차 간담회)

특히 <날아가 버린 새>의 전인철 연출은 보다 세부적인 후속조치의 방안을 요청했다.

“후속조치로 저희 피해자들이 문체부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김미도 선생님께서 이행추진단에서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첫째,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 두 번째는 현실성 있는 이사회 구성.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우선 이행추진단과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철(2020-10-08, 후속조치 2차 간담회)

2차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이행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12월 2일부터 5일간 전인철 연출가와 장지혜 작가, 그리고 외부 자문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후속조치 계획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후속조치 계획을 마무리한 시점에 마련된 세 번째 간담회는 2020년 12월 16일 국립극단 서계동 스튜디오에서 전인철 연출가·장지혜 작가를 비롯해 문체부, 외부 자문위원, 국립극

[P-3]

단 단장 겸 예술감독 등 관계자까지 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P-3.5)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체부 참석자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특히 3차 간담회에는 같은 해 11월 10일자로 임명된 김광보 선임 예술감독이 참석해 후속조치에 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사업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술감독 책임 하에 제 임기 전반에 걸쳐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 요청하신 예술감독의 선임과 이사회의 독립성 관련은 문체부와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극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추후 진행될 후속조치는 단계별로 이행추진단과 함께 긴밀한 협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날아가 버린 새>와 관련하여 많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임기 동안에 이행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예술감독을 믿고 맡겨주시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보(2020-12-16, 후속조치 3차 간담회)

또한 3차 간담회를 거치면서 마련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기존 2차 간담회에 제출된 계획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국립극단 사례집』(이하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의 경우 단순히 극단이 독자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에 집중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립극단의 약속(가칭, 이하 국립극단의 약속)’ 제정 시에도 국립극단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P-3-3}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이행 과정

본격적으로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시작하는 동시에 김광보 예술감독은 2021년 1월 18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김광보 예술감독 본인 또한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한 2015년에 국립극단과 공동 주최 예정이던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취소로 인한 블랙리스트 피해자이기도 했다.[B-12]

(P-3.5) 3차 간담회 참석자(총14명)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최성희, 공연전통예술과장 윤태욱,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오종석
· 외부: 연출가 전인철, 작가 장지혜,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이양구, 평론가 김미도, 작가 고연옥, 연출가 심재찬
·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용성, 홍보마케팅팀 변정원, 경영관리팀 김시내

[B-12] 국립극단 공동 주최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이 취소된 경위 참조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계획
(사전 협의 자료)**

□ **목 적**

- 향후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날아가 버린 새> 사건 관련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

□ **개 요**

- 사 업 명: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 사업내용: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사업기간: 사업종료 시까지

□ **추진 과제**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립극단 사례집(가칭, 이하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립극단의 약속(가칭, 이하 국립극단의 약속) 제정

-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예술감독의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
 - 이사회와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 **추진 방향**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단기적 결과물 도출을 지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에 집중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
 - * [별첨]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및 국립극단의 약속(가칭) 제정 계획
-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예술감독 선임 및 이사회 관련 사항은 예술현장 및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향 모색

[별첨1]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및 국립극단의 약속 제정 계획

□ **목 적**

- 국립극단에서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기록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함
- 국립극단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함
- 국립극단에 현재 제직 중인 모든 임직원 및 추후 입사에정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추진방향**

- 국립극단 사례집
 - 대면 및 서면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한 피해자 목소리 반영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배서'의 내용 중 블랙리스트 사건 이해를 위한 내용 발췌
 - <날아가 버린 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반영
 - 국립예술단체 임직원의 올바른 직무 윤리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기고 추가
- 국립극단의 약속 제정
 - ① 블랙리스트 피해자 개별 의견청취 → ② 초안 준비 → ③ 블랙리스트 피해자 초안 확인 및 추가 의견청취 → ④ 대국민 발표

*** 참고(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 국립극단 사례집 목차(안)**

1.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인터뷰(또는 기고)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유형
 - 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 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형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규모 및 범위
 - 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현황
 - 나.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4. 공연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실태 양상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 및 원인
 - 가.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
 - 나.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
6.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
 - 가.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태 사진
 - 나.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결렬 사건
 - 다. <날아가 버린 새> 장지해 작가 배제 사건
7. 국립예술단체 임직원의 올바른 직무 윤리(외부기고)

“국립극단은 지난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연극인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국립극단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예술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국립극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김광보(2021-01-18, 국립극단 선임 예술감독 온라인 기자회견담화)

특히 김광보 예술감독은 취임 이후 국립극단 운영 기조에 ‘공공성 강화’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국립극단의 중점 사업으로 지정했다. 또한 세부 사업으로는 첫째,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날아가 버린 새> 후속조치 간담회를 통해 확정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근거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그리고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둘째, 연극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소통자문위원회, 작품추천자문위원회, 공연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해 외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균형감 있는 국립극단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셋째, 3차 간담회 진행 시 언급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위상 강화 및 독립 추진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독립 방안과 확장된 역할을 제시하고,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부지 내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구상 및 운영 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기본구상 및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독립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문체부 및 이행추진단과 함께 법인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으로서의 국립극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며 연극계 출신의 비상임 이사 교체에 따른 후보자 마련 시 연극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예술감독 선임 권한 등의 문제는 향후 문체부, 국립극단, 연극계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P-3.6)

그리고 <날아가 버린 새> 후속조치에서 시작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이행 과정을 대외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조사위 후속조치 간담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매월 진행된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취합해 발송했다.

그리고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첫째는 기존에 출판된 조사위 백서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국립극단 사례를 충실히 요약하는 것이고, 둘째는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고 또는 면담 내용에 대한 녹취 형태로 기록해 사례집에 수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백서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은 내부에서 초안을 준비해 전문 편집자와의 협업을 추진했고,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이행추진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양구 작가를 국립극단 사례집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개별 면담을 준비했다.

면담 대상자는 다음 목록으로 알 수 있듯이 백서를 통해 파악한 9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 블랙리스트로 확인된 작가 또는 연출가 등 개인인 경우도 있고, 사업 참여자 및 공연 참여자가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극단 측에서 면담 대상자를 사전에 특

[P-3]

정하지 않았다. 우선 유선 면담을 통해 면담 방식과 장소, 그리고 참여자를 사전 협의했다. 면담 기간은 2021년 4월 <날아가 버린 새>의 작가와 연출가를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진행됐으며, <개구리>를 포함한 총 9개 사례와 관련된 피해자 26명을 면담했다. 기본적으로는 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했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유선·서면 면담을 병행하기도 했다. 또한 면담 시 피해자 동의하에 당시의 상황과 소회를 청취 및 녹취했다. 면담 이후 양식을 송부해 사례집에 게재할 원고를 요청했고, 녹취록 게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녹취록 검토 후 사례집 원고로 반영했다. 그중 <구름>의 경우 피해자인 남인우 연출의 요청으로 프로덕션 전체가 참여하는 모임을 2021년 8월 19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김광보 예술감독이 공연 참여자 전원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사건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최○○ 연출이 참석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과했다.

이외 사례의 경우 피해자에 따라 면담 시작 시점에 사례집 기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고민 끝에 비공개 처리를 요청한 피해자도 있었다. 또한 안타깝게도 불편한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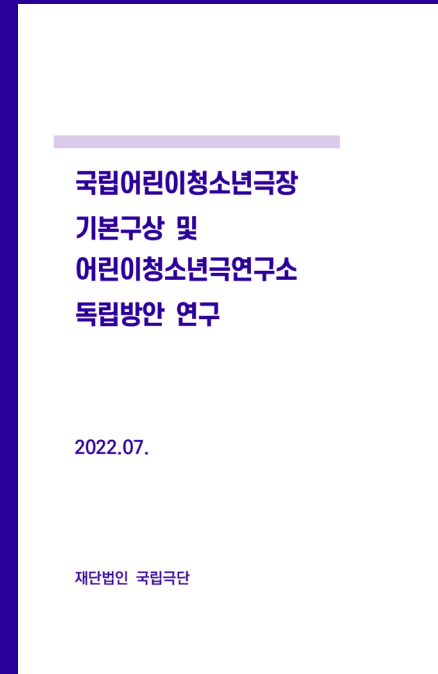
사례집 제작을 위한 면담 대상

사업명	구분	성명	피해 내용
<개구리>	작·연출가	○○○	연습 중 대본 검열(정치적 내용, 직설적인 욕설 배제, 결말 수정 등)
<알리바이 연대기>	작·연출가	김재엽	재공연 방해
<구름>	작·연출가	남인우 외 공연팀 전원	연습 중 대본 검열(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 전달)
<조치원 해문이>	연출가	박상현	홍보물 수정 요구(홍보물 내 그린피그, 윤한솔 삭제 요구)
	제작자	윤한솔	
<망루의 햄릿>	연출가	○○○	홍보물 이미지 수정 요구
젊은연출가전	연출가	전인철	공연 참여 배제
<날아가 버린 새>	작가	장지혜	제작공연 배제
	연출가	전인철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회장	김광보	명동예술극장 대관 취소
작가의 방	멘토	고연욱	소개 등에 대한 제약, 자제 검열
	작가	이오진, 구자혜 외 4명	

많은 이들의 노력과 협조로 2023년 2월까지 수십 건의 기고와 녹취록이 모아졌으며, 이후 사례 별로 관련한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사례집에 정리했다. 또한 사례집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와

[P-3.6]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206쪽

[P-3]



III.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의 운영방향 81

1.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운영 기본 방향성 83

1.1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미션과 비전의 구성 83

1.2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의 운영 방향 84

2.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운영 전략과제 85

2.1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의 전략과제(안) 85

IV. 어린이청소년극장 공간의 구성 91

1. 공간조성의 원칙과 방향 93

1.1 어린이청소년극장 공간 조성의 방향성 93

1.2 어린이청소년극장 공간 조성의 원칙 94

2. 공간 구성 개념 및 대안 95

2.1 공간 구성 개념(안) 95

2.2 세부 공간 구성 및 컨셉 디자인 스케치 96

2.3 비교 대안 98

3. 세부 공간 리스트 및 요건 99

V.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발전적 확장 방안 및 로드맵 107

1.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발전적 확장 방안 109

1.1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발전적 확장 방향성과 역할 109

1.2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의 운영체계(안) 112

2. 단계별 검토사항 및 로드맵 117

2.1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운영 독립방안 실행 프로세스 117

2.2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조성사업 추진 로드맵 118

* 별첨 119

국립어린이청소년극장 기본구상 및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독립 방안 연구보고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1-2월) 과제이행점검표

작성일 2021.02.22

구분	담당 추진 실적	이행 추진 계획
공통	- (01.18) 신임 극단 예술감독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격곡적 해명 의지 공식 표명 (기자간담회 발인 원일 광고) - (02.08)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이행계획 수립 관련 협치단 실무 협의	-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이행 관련 협치단 실무 협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시회적 기억	-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이행 통합계획 수립	- 사례집 제작 및 국립극단의 약속 제정 세부계획 수립 - 피해자 규모 파악 및 협치단 실무 협의 - 피해자 개별 인터뷰/기고 제안 - 내외부 자료 조사(계속)
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01.08) 운영 제도개선 관련 협의 - 극단 운영 제도개선에 대한 종합적 논의 필요 동의 *참의자: (공연과) 오홍익 사무관, (내부) 사무국장, 경영관리팀 *2월 미수진	- (3월) 극단 운영 제도개선 세부 이행계획 수립(계속)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3월) 과제이행점검표

작성일 2021.04.01

구분	담당 추진 실적	이행 추진 계획
공통	- (3.31) 김광보 예술감독 <날아가 버린 새> 관람 및 전인철 연출, 정지혜 작가 간담회 진행	
피해자 명예회복과 시회적 기억	- (3.30) 피해자 규모 파악 및 내외부 자료 조사 관련 협치단 실무 협의	- 사례집 제작 및 국립극단의 약속 제정 세부계획 수립 - 피해자 개별 인터뷰/기고 제안
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 극단 운영 제도개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협의	- 극단 운영 제도개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협의 (계속)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과제이행점검표(발췌)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에 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따른 예술가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하였으며 여러 작품에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진상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립극단은 공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날아가 버린 새> 배제 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 이후에는 피해 예술인들을 비롯한 문제부 이행합치추진단 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사태 국립극단 사례집(가제)' 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립극단의 약속(가제)* 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례집 제작 및 국립극단의 약속 제정 과정에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립극단이 지난 시간의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연극인들과 관객을 위한 국립극단이 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경과>

날 짜	내 용
18.05.1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극단 사과문 발표
19.10.21	· <날아가 버린 새> 블랙리스트 사건 국립극단 사과문 발표
19.12.24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1차 간담회 진행
20.10.08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2차 간담회 진행
20.12.16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3차 간담회 진행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발표 1)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2)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요청

요청사항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관련 기고 예시)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또는 이후의 기억과 느낌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것 등
요청사항 2	국립극단이 앞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짐 또는 약속 예시) - "예술가께 대한 존중" 이 필요하다 - "평가" 하는 기록자가 아니라 "발전" 하는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 국립극단 임직원들이 항상 연극인들과 자주 소통해야 한다.
참여 방법	* 원고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tara@nc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립극단 사례집(가제)]의 출판 원고 및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국립극단의 약속(가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국립극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립극단 홍보마케팅팀 변경희 02-2379-2264 tara@nck.or.kr

* 국립극단이 진행하고 있는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편집을 거쳤다. 단지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과정이지만, 특히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또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조사위와 이행추진단 위원이자 국립극단 사례집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양구 작가께 도움을 청했고, 그때마다 큰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 마음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사례집 제작은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모든 후속조치가 온전히 마무리돼 앞으로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다.

{P-3-4}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진행 경과(요약)

2018-05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극단 사과문 발표

2019-10

- <날아가 버린 새> 사과문 발표

2019-12~2021-01

- <날아가 버린 새> 후속조치 간담회
- 김광보 신임 예술감독 취임 기자간담회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02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계획 준비,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국립극단 약속 제정), 운영 관련 제도 개선 확정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03

- 극단 운영 제도 개선 관련 문체부 세부 협의
- 피해자 규모 파악 및 내외부 자료 조사 관련 이행추진단 협의
- 김광보 예술감독, <날아가 버린 새>(2021-03-23~2021-04-04,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공연 관람 및 전인철 연출·장지혜 작가 간담 진행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04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면담 및 원고 요청 세부 계획 수립
- <날아가 버린 새> 전인철 연출가·장지혜 작가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05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원고 정리, <날아가 버린 새> 관련 진행 경과 추가
- <구름> 연출가 개별 면담 진행, 면담 결과 프로덕션 참여자 전원 대상 모임 및 사과 요청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P-3]

2021-06

- <구름> 참여자 전원 모임 준비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07

- '작가의 방' 멘토 1인 개별 면담, 참여 작가 2인 원고 요청서 전달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08

- <구름> 참여자 전원 모임 진행, 참여자 전원 대상 전 사무국장 사과, 국립극단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09

- <구름> 참여자 전원 모임 후속조치, 당일 참석자에게 녹취록 공유 및 공개 동의 요청
- <개구리> 연출가 유선 면담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10

- <알리바이 연대기> 연출가 개별 면담
- <조치원 해문이> 연출가 유선 면담
- '작가의 방' 참여 작가 2인 유선 면담
- <망루의 햄릿> 연출가 유선 면담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11

- '작가의 방' 참여 작가 1인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1-12

- <구름> 당일 참석자 녹취록 공개 동의 요청(계속)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01

- <조치원 해문이> 제작자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02~2022-04

- 사례집 제작 및 약속 제정 세부 계획안 수립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05

- '작가의 방' 멘토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06

- 면담 완료자 대상 원고 취합
- '작가의 방' 후속조치 협의

[P-3]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07

- 면담 완료자 대상 원고 취합
- 사례집 제작 출판사 선정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08

- 편집회의
- 출판사 미팅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09

- 원고 1차 편집 및 목차 정리
- 사례집 원고 사례비 지급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10

- 사례집 구성안 확정 및 편집 회의
- 인쇄·제작 견적 산출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11

- 편집회의
- 구성안 및 원고 재정리
- 의견서 요청 명단 정리 및 검토
- 편집자, 출판사 섭외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2-12

- 의견서 요청 명단 확정
- 원고 회람 및 의견서 요청 진행
- 추가 원고 작성 의뢰(자문위원의 글, 추진 경과)
- 편집자 계약 및 선금 지급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1

- 편집회의
- 원고 회람 및 의견서 요청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2

- 의견서 수집 완료
- 추가 원고 수집 완료(자문위원의 글, 추진 경과)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P-3]

2023-03

- 편집 초안 완료 및 편집회의
- 부록 원고 의뢰 준비
- 발간사 작성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4

- 발간사 작성 완료 및 추가 편집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5

- 2차 편집 완료
- 부록 원고 작성
- 디자인 및 제작 방향 검토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6

- 부록 원고 작성 완료
- 디자인 시안 확인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7

- 편집회의
- 실명 공개 동의서 준비
- 법률검토 시행
- 내지 디자인 작업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8

- 회람본 제작
- 사례집 제작 계획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2023-09

- 실명 공개 동의서 확인 완료
- 최종 편집본 검토 및 표지 디자인
- 월간 과제이행 점검 시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

[A-0]

시작하며

이 책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의 내용 중 공연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국립극단의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는 총 10권으로 구성된다. 본책 1권 ‘위원회 활동 보고서’, 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3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4권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나뉘며, 이 중 2권의 부록으로 기관·분야별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전문이 여섯 권 분량으로 구성된다. 부록 2-1권 기관별, 2-2권 공연(1), 2-3권 공연(2), 2-4권 문학·출판, 2-5권 영화, 2-6권 시각예술 및 기타 순이다.

국립극단의 사례를 정리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해 밝혀진 사실과 정보를 명확하게 짚고가기 위해 해당 백서의 본책 1권부터 3권까지의 내용 중 핵심을 발췌해 소개한다.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부 내용은 주석을 보강했다.

[A-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의 명단이다. 흔히 수사 기관 등에서 위험 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고 설명한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집권 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 권력을 오·남용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범죄이자 위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각종 사건에 대한 성명서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선언 등에 이름을 올리거나 창작 활동에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기관이 작성한 명단이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공공기관은 블랙리스트를 기초로 삼아 각종 문화예술 사업이나 공연 등 창작 행위에 있어서 해당 문화예술인에게 다양한 인권 침해적 불이익을 가했다. 해당 문화예술인의 표현 행위는 어떤 위험을 초래한 것도 아니었으며, 감시당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에 근거한 예술·정치·사회적 표현 행위였다.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문화예술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했다. 그 목적은 문화예술계를 권력에게 순응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판 의식을 억압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문화예술인을 다양하게 차별한 사건들이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행위를 침해하고 관련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로 전복하려는 범죄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배 세력이 공권력을 오·남용해 문화예술계 영역에서 위험적 범죄를 저지른 다양한 사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A-1-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가범죄의 구성 요소

행위 주체

- 이명박·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준정부기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

행위 수단

- 공식적 수단: 법·제도·정책·행정·프로그램의 편법·불법적 운용
- 비공식적 수단: 강요·회유 등 비공식적 수단 활용

행위 내용

-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성향 및 정치적 표현 행위 사찰·감시·관리
-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 검열 및 각종 지원 등에서 배제·차별

[A-1]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정책·사업 개악

불법 내용

-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1조 평등권과 평등 원칙,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2조 예술의 자유 침해
- 「문화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행위 범주

-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이 다양한 층위에서 부당·탈법·위법·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뤄진 총체적 국가범죄

[A-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김기춘 외 6인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화예술계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거나, 특정 이념·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명단을 문체부를 거쳐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에 하달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헌·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A-2.1) 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단’을 하달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특정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가 ‘지원 배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에 대한 검열,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제 및 불이익과 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뤄짐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블랙리스트에 따라 직접적으로 배제당한 피해를 입은 개인·문화예술 단체는 물론,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사찰의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배제를 예견해 지원사업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한 문화예술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 배·보상 또는 치유 조치, 관련자 처벌을 비롯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대책 등 일련의 적폐 청산 또는 과거 청산은 관련자에 대한 각 위헌·위법·부당 행위에 상응해 법원의 재판을 통한 처벌, 각 기관에서의 징계,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 추궁과 개선책 마련, 관련 기관 구성원에 대한 일정한 인권 또는 헌법 교육 등 다각적으로 적절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A-2-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유형

사찰

정의 정부의 행정기관·정보기관 등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상·표현의 동태를 살피 조사하는 행위

사례 시국 선언 명단 수집, 정치적 성향 파악 등

감시

정의 정부 또는 기업이 시민을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동을 지켜보는 행위(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정보 수집 포함)

사례 전화 도청, 스마트폰 사용 내역·문자메시지·컴퓨터 해킹 등 정보 수집부터 도청기·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감시 포함

(A-2.1) 김기춘 외 6인(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2018-01-23, 선고2017노2425, 2017노2424 병합

[A-2]

검열

정의 정부가 책·영화·연극 등의 내용이 사회적 또는 윤리적 규범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검사해 예술 매체에서 제시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공권력에 의해 예술 작품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위축하는 행위)

- 사례**
- 사전 검열: 작품 불허·취소·교체, 작품 내용 개입, 상영 거부, 작품 손상, 작품 철거, 작품 운송 거부 등
 - 사후 검열: 상영 중단,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발,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 등
 - 위축 효과 '자기 검열': 작품 내용 수정, 지원사업 신청 철회 등

배제

정의 정부가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고용·참여·예산 지원 등)으로부터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조직적으로 제외시키는 행위

- 사례**
- 지원(금) 배제 또는 삭감·중단 등
 - 심사위원 선임 배제, 인사 선임 시 특정 인물 배제 등
 - 공연자·연출가·작가 배제, 행사 초청 배제, 수상 배제 등
 - 대관 배제(공연장 폐쇄), 전시 취소, 강연 취소 등

통제

정의

-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
-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권력의 행사로서 결과를 평가하고 시정하며 조정하는 활동

- 사례**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정책, 제도, 사업 개편 등(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변경·사업 폐지 등)
 - 사업 예산 축소·전용·폐지 등
 - 심사 과정에서 심사 반복 요구 등 부당한 압력 행사
 - 불공정한 사후 평가를 통한 제재 조치 등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등
 - 민간의 활동에 부당 개입(선거 개입, 인사 개입, 포기 각서 요구, 표적 감사, 공연 방해 등)

차별

정의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 사례**
- 특혜(특정 단체 및 개인 특혜 지원 등)
 - 사업 위상 격하(작품 및 행사 위상 격하, 시상 결과 격하 등)
 - 고용, 모집,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 또는 배제 등

[A-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현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작성된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입수해 각 문건에 기재된 인물, 단체의 명단을 토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A-3.1) 이 DB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단체의 규모 및 피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 및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특히 DB 분석을 통해 한시적 위원회로서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블랙리스트 피해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밝힘으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양적 자료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배제가 반헌법·위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대상이었던 많은 문화예술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정리된 DB가 후속 진상 규명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화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는 위원회가 조사 활동 기간 동안 입수한 공식 문건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 입안 또는 실행을 위해 작성된 주요 문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정부기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특정 문화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의 정치·사회적 성향이나 활동을 조사·분류해 관리한 리스트 형태의 자료가 DB에 포함됐다.

주요 문건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략 문건(2건)(A-3.2)과 국정원에서 작성한 ‘좌성향’, ‘정부 비판 세력’ 현황 자료(2건)(A-3.3) 박근혜 정부 시기 문체부에서 배제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4건)(A-3.4) 박근혜 정부 시기 시국 선언 명단(1건)(A-3.5) 등 총 9개 문건이다. 각 문건의 작성 주체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A-3-1} 주요 문건 목록

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작성 시기 2008-08-27 이명박 정부

작성 주체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A-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권 41쪽에서 데이터베이스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A-3.2)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은 총 7쪽 분량으로, I. 문화권력은 이념지향적 정치 세력 II.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III. 균형화 추진 전략 IV. 주요 대책(안) V. 추진 체계 및 재원계획 VI. 향후 일정으로 구성된다. 이 문건에서 “문화권력이란 순수 예술활동보다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지향적 세력을 의미”하며, “문화를 국민 의식개조 및 정권유지를 위한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좌파에서 조직적으로 활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 문건의 서두에는 “문화예술계 내 左派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한다고 적었다.

(A-3.3)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 연예계 내 정부비판세력 퇴출 건」 현황 자료(2009),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현황 및 고려사항」(2013) 청와대(BH) 보고서 (A-3.4)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문체부의 검증 요청을 받아 선별 통보한 181명의 명단(2014~2016),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문건(2014~2016),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체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2014), 아르크문화창작기금 배제 대상 명단이 포함된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2015) (A-3.5)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작성해 보고한 ‘9,473명 시국 선언 명단」(2015)

[A-3]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후인 2008년 8월 만들어진 문건. '문화권력'을 '이념 지향적 정치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좌파 세력의 문화권력화 실태 분석,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건전 문화 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과 좌파 자금줄 차단을 대책으로 보고.

② 문화·연예계 정부비판세력

작성 시기 2009-02~2009-07 이명박 정부

작성 주체 국정원

2009년 2월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 시기에 만들어진 리스트.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동원해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예술계 내 특정 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 활동을 하도록 지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당시 김○○ 기조실장 주도로 문화·연예계 대응을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배제, 퇴출, 소속사 대상 세무 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함.(A-3.6)

③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작성 시기 2013-03-10 박근혜 정부

작성 주체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문건으로, 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사본 형태로 입수.(A-3.7) 2013년 8월 김기춘 비서실장 부임 이후 "좌성향 문예계 인물들이 2014년 지방선거를 조직 재건의 호기로 보고 세 확대 시도, 면밀한 대처 필요"라고 청와대에 보고. 문체부는 국정원과 별도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특정 성향 예술 지원 실태 및 대책 마련 지시'에 대한 관련 대책을 2013년 9월 작성해 보고하고, 이어 2013년 9월 9일 문화예술정책점검 TF 구성.

④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작성 시기 2014-03-19 박근혜 정부

작성 주체 국정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생산한 블랙리스트. 정치적 편향, 사회 풍자 등을 이유로 들며,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 단체 현황,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 리스트를 첨부.(A-3.8)

⑤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작성 시기 2014-02~2016-09 박근혜 정부

작성 주체 국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 명단. 이름과 소속 등을 기재했으며, 동일인을 제외하면 총 163명으로 파악.(A-3.8)

(A-3.6) '국정원 개혁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조사결과 발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7-09-11)

(A-3.7) 기록번호.A000068710024 589,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P0A0012139, 대통령기록관(pa.go.kr)

(A-3.8)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보고서(2017-10-30)
(A-3.8) 참조

[A-3]

⑥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작성 시기 2014-02~2016-09 박근혜 정부

작성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작성·보고·관리한 문건. 담당 공무원은 청와대에 「이념 편향 논란의 사업 선정 관련 대책 방안」(2014-0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 계획」(2014-10),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 현황」(2014-11~2016-01, 약 7건),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2015-03), 「BL(블랙리스트) 관련 경위」 등을 보고.

⑦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작성 시기 2014-05 박근혜 정부

작성 주체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기춘 등 3인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A-2.1) 김기춘은 부처별 보조금 지원 실태·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구성되고 박준우 정무수석과 신동철 소통비서관이 소통비서관실 박○○ 행정관에게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함.

⑧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작성 시기 2015-07-06 박근혜 정부

작성 주체 청와대 정무수석실

특검이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압수한 문건. "2015.7.6. 받음"이라고 기재된 문건으로, 113명의 명단 기록. 동일인을 제외하면 총 98명의 명단.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작성 시기 2015-05-06 박근혜 정부

작성 주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2015년 5월 김○○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제인 후보 지지 선언',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등 카테고리 지정해 문체부 예술정책과에 통보, 인터넷에서 명단을 확인해 장관 및 교문수석실에 보고할 것을 지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 사무관이 9,473명의 명단을 표로 작성해 보고.

9건 외에도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동향 보고 및 대외비 문서 등이 다수 존재하고, 문체부 예술국에서 관리를 목적으로 작성한 리스트 외에도 타 실국에서 배제 대상으로 관리해온 유무형의 리스트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아닌 점, 다수의 배제 지시가 문서 형태가 아닌 구두·이메일 등으로 통보된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규모는 위의 문건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방대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가 확인하지 못한 대통령기록관 문건, 국정원 문건, 이명박 정부 시기 블랙리스트 문건 등이 확보된다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규모와 그 대상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A-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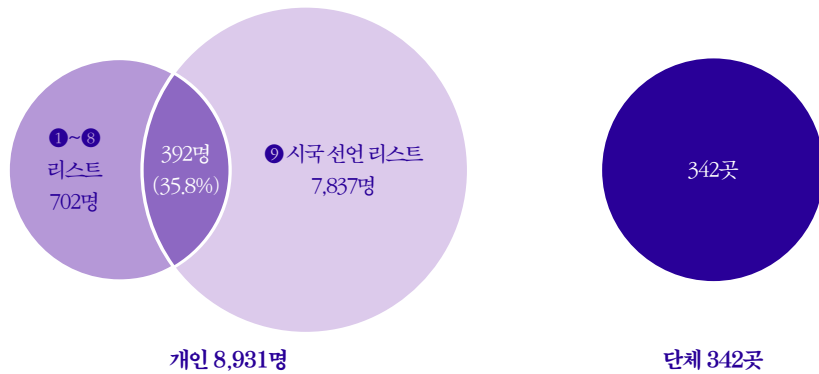
[A-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A-4-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9건의 문건{A-3-1}을 바탕으로 사찰·검열·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 규모를 파악했다. 문건에 등재된 개인 및 단체의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이름+유사 분야'인 경우 중복으로 간주했고, 동일 인물·단체의 중복 등재 횟수를 파악·반영해 피해 건수를 종합했다. 위 과정을 거쳐 블랙리스트 DB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전체 규모는 중복을 제외하고 단체 342곳, 개인 8,931명 등 총 9,273건의 명단(전체 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블랙리스트 DB 전체 규모 9,273건



{A-4-2} 문건별 규모

문건	전체 규모(중복 제외, 건)	개인(명)	단체(팀)
①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5	3	2
② 문화·연예계 정부비판세력	82	82	-
③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29	17	12
④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309	294	15
⑤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181	181	-
⑥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903	622	281
⑦ 문체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200	122	78
⑧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108	104	4
합계(중복 제외)	1,436	1,094	342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8,229	8,229	-
총계(중복 제외)	9,273	8,931	342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된 ①「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좌파 문화 세력 배제를 기점으로 블랙리스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보고서로, 이 문건에 직접적으

{A-3-1} 참조

[A-4]

로 이름이 거론된 문화예술 단체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문화연대 2곳이며, ○○ ○·○○○·○○○ 등 문화예술인 3명이 적시됐다. 이 문건은 구체적인 명단 형태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나, 문건에서 제시한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 전략에 따라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직권 면직 또는 해임된 경우가 최소 20건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다.{A-4.1}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작성한 ②「문화·연예계 정부비판세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인원은 총 82명으로, 단체는 적시되지 않고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로 구분해 강성 성향 69명, 온건 성향 13명의 문화예술인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정책 기조 입안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③「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에는 붙임 자료 형식으로 '좌파 문화예술계 주요 현황'이 정리돼 있다. 이명박 정부 문건에도 포함된 문화연대·민예총을 비롯해 한국작가회의·한국독립영화협회·다음기획 등 단체 12곳, 문화예술인 17명 등 총 32건이 기재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④「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보고서에는 '주요 좌성향 문화예술 단체 현황'에 15개 단체,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 현황'에 문학·미술·연극·음악·영화·방송·기타 7개 분야로 구분한 294명 인물의 특이 사항 및 등급(A·B·C)이 적시됐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개입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인 ⑤「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국정원이 문체부로부터 검증 요청받은 8,500명에서 배제 대상으로 통보한 348명 중 자료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명단(181명)이다. ⑥「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문체부가 청와대·국정원 등을 통해 배제 지시를 받은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 622명, 단체 281곳이 포함됐다. 그 규모가 국정원 검증 명단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배제 지시 등을 포함한 결과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하달한 배제 지시 명단이 있다. ⑦「문체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문건의 '[첨부1]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과 '[첨부2] 주요 부처 공모 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 '[첨부3]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에는 리스트 형태의 배제 인물(122명) 및 단체(78곳)가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문화예술계 외에도 노동·복지·교육 분야 단체와 인사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⑧ 박근혜 정부「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검토해 문체부에 하달한 배제 명단으로,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신청자 등 개인 104명, 단체 4곳이 포함됐다. 이는 등재된 113명 중 중복을 제외한 규모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세월호 시국 선언을 포함한 '9,473명 시국 선언 명단'이 실제 블랙리스트로 활용됨을 확인하고 이를 블랙리스트 DB에 포함했다.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의 실제 규모로 중복 제외 8,229명을 확인했으며, 이는 전체 선언 명단의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두 개 이상의 명단에 중복 등재돼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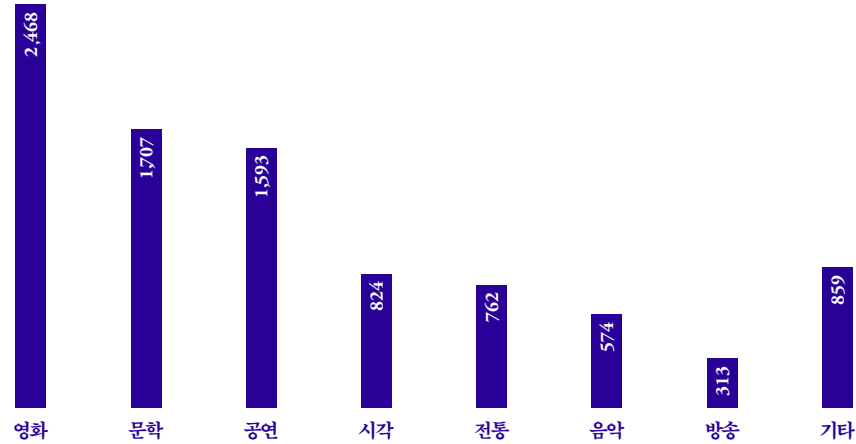
'시국 선언 명단'을 블랙리스트 DB에 포함시켜 블랙리스트 규모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블랙리스트 DB 전체 규모 9,273건 중 ①부터 ⑧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개인은 1,094명이며, 이 중 ⑨ 리스트와 중복되는 인원은 전체의 35.8%인 392명이다. 7,837명은 ⑨에만 기재된 인물이며, 시국 선언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찰·검열·배제 대상으로 적시된 인물은 702명이다.

{A-4.1}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청와대 문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집행 결과 분석, 참조

[A-4]

{A-4-3} 분야별 규모

블랙리스트 문건에 등재된 총 9,273건 중 분야가 명시된 경우는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9,100건으로 확인됐다. 분야는 영화·문학·공연(A-4.2)·시각(A-4.3)·전통·음악·방송·기타(A-4.4)로 분류했고, 분야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영화 분야 블랙리스트는 2,468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하며, 그 뒤로 문학 분야 1,707건, 공연 분야 1,593건으로 확인된다. 시각예술 분야 824건, 전통예술 분야 762건, 음악 분야 574건이며, 방송 분야는 31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분야는 패션, 게임, 문화일반 등을 포함해 859건이다.

영화 분야의 경우 ②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 82명 중 영화감독·배우를 포함해 60명(73%)이 포함됐으며, ④ 박근혜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인물 249명 중 영화인은 104명으로 약 42%를 차지한다. 국정원에서 관리한 블랙리스트 가운데 영화 분야 인물의 비중이 높은 것처럼, 블랙리스트 규모에서도 영화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⑨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중 영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그 숫자는 2,665명(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블랙리스트 규모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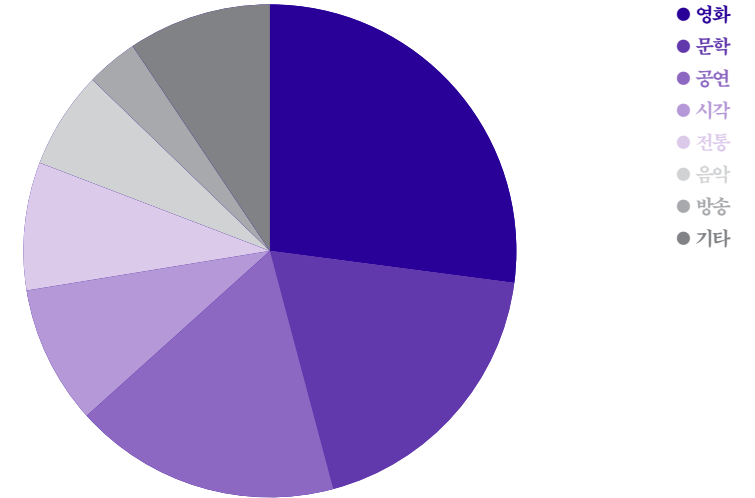
분야	영화	문학	공연	시각	전통	음악	방송	기타	합계
규모(건)	2,468	1,707	1,593	824	762	574	313	859	9,100
비율(%)	27.1	18.8	17.5	9.1	8.4	6.4	3.4	9.4	100

{A-4.2} 공연 분야에는 연극·무용·뮤지컬 등이 포함된다.

{A-4.3} 시각 분야에는 미술·건축·사진·만화 등이 포함된다.

{A-4.4} 패션, 게임 등 독립된 분야나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기타에 포함했다. 문화일반, 장애인 등 장르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표기된 경우 또한 기타에 포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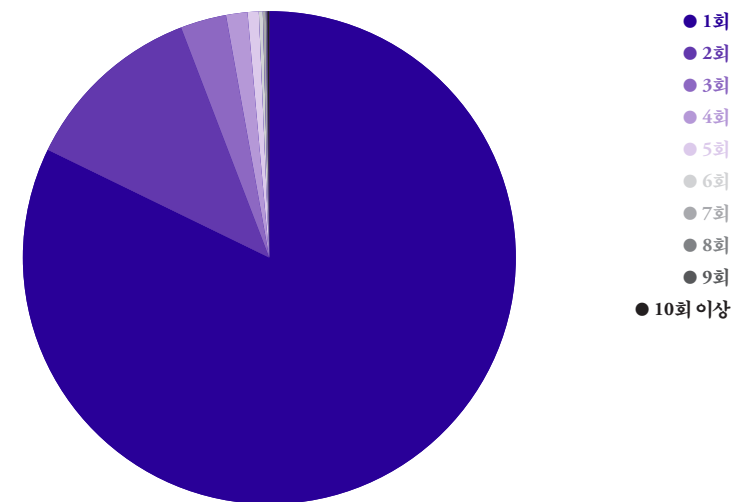
[A-4]



{A-4-4} 중복 등재 범위 및 규모

위원회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또는 단체가 문건에 중복으로 등재된 횟수를 분석했다.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전체 9,273개의 개인 또는 단체가 총 12,026회에 걸쳐 기재돼 있다. 이는 하나의 문건에 중복 기재된 경우도 포함한 수치다. 블랙리스트에 한 번만 기재된 개인·단체는 7,619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2회 기재된 개인·단체 1,109개(11.97%, 2,218건), 3번 이상 중복 기재된 경우는 개인·단체 540개(5.7%, 2,189건)를 차지한다.

중복 기재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상
대상 개인·단체(개)	7,619	1,109	279	130	68	24	18	6	4	11



블랙리스트 문건에 5회 이상 중복 기재된 개인 및 단체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아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10회 이상 기재된 경우도 11건이 확인되며, 최대 19번 기재된 경우도 있다. 특히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다른 분야에 비해 중복 피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중복 기재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A-4]

블랙리스트 문건 내 5회 이상 중복 기재된 단체

- 극단 하땅세 19회
- 연희단거리패 15회
- 그린피그 12회
- 극단 새벽 12회
- 조은컴퍼니 11회
- 극단 산 11회
- 극단 떼아뜨르 고도 10회
- 극단 골목길 9회
- 예술공장 두레 9회
-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9회
- 극단 연우무대 7회
- 극단 집현 7회
- 극단 허리 7회
- 다빈나오 7회
-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7회
- 극단 완자무늬 6회
- 극단 이루 6회
- 극단 현장 6회
- 문화아이콘 6회
- 서울변방연극제 6회
- ACC프로젝트 5회
- 극단 그림연극 5회
- 극단 미연 5회
- 극단 사니너머 5회

{A-4-5}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 키워드 분석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사찰 및 배제 대상 명단(이름·단체명)과 함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가 적시돼 있다. DB 분석 결과, 특정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가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사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노무현·문재인 등 특정 정치인 지지 및 정당 활동과의 관련성. 둘째, 4대강 사업 반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및 비판 활동. 셋째, 쌍용자동차 또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사회 연대 활동 등이다.

{A-4-5-1} 특정 정치인 지지 및 정당 활동 관련

야권 정치인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인사와 야권 정치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노무현 지지 선언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공연에 참여한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 참여 및 지지 선언이 블랙

[A-4]

리스트 사유로 적시됐다. 또한 도종환·김두관·박원순·노회찬 등 당시 야권 인사와 민주통합당 등 야당 지지자 및 민주노동당 등 진보 정당 지지 선언 참여자도 블랙리스트에 기재됐다. 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문건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무현 관련

- 노무현 스토리 제작비 모금
- 노무현을 사랑하는 문화인 모임(노문모) 가입
- 노무현 지지 선언
- '노무현 티셔츠' 제작
-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전야 추모 문화제 추모시 낭송
-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 공연
- 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
- 노무현 시민학교 강좌

② 문재인 관련

- 문재인 창조연설 참여
-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000명
- 문재인 후보 대선 광고 촬영
-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 문재인 씽크탱크 담쟁이 포럼
- 문재인 미래캠프 일자리혁명위원회 등

③ 기타 정치인 관련

- 전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 도종환과 정치 활동 적극 참여(오장환 문학제 추진위원회)
- 단체 대표 남편이 (민)도종환 의원 비서관
-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장에 임명
- 상임대표가 박원순 보궐선거 캠프 정책자문위원 역임(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등

④ 야당 관련 활동

-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및 시민사회 멘토단 활동(군포문화재단)
- 서울시장 선거, 대선 시 야권 후보 선대위 활동 활발
- 2012 야권연대 공동선대위, 시민사회 멘토단, 6.2지방선거 범야권단일후보, 인천 지역 중심 진보적 활동가
- 총선·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연대활동 강화 등

⑤ 진보 정당 지지

-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

[A-4]

- 18대 총선 시 진보신당 지지 선언 및 노회찬 후보 지원 활동,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 선언(강릉씨네마페크) 등

{A-4-5-2} 정부 정책 반대 및 비판 활동

블랙리스트 문건에 적시된 배제 사유 중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 선언 및 비판적 문화예술 활동이 다수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미국산 소고기 협상, 4대강 사업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반대 운동 및 용산참사 시국 선언 등을 반정부 투쟁으로 규정해 관련 단체 및 인물을 블랙리스트로 적시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및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도 블랙리스트 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4.3 사건, 4.19 항쟁, 광주 5.18 항쟁 등 시국 사건 관련한 공연·영화 제작 등도 배제 사유에 포함됐다. 또한 정부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언론사, 문화예술 단체, 개인이 다수 등재됐다. 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문건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 정책 반대·비판

- 소고기 협정 폐기 촉구 및 대운하 반대
- 범민련·실천연대 등과 연대해 평택기지 이전, 4대강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반대 활동, 반미 반정부 투쟁을 통한 문화선동대 역할
- <江, 원래> 프로젝트(4대강), <야만의 언론>(보수언론), <두 개의 문>(용산사고) 등 시대 고발성 독립영화 제작, 상영을 지원하며 반정부 활동 전개
- 용산참사 해결 시국 선언
- 광우병대책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 <MB의 추억>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회화화한 다큐멘터리
-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집회
- 국정원 국기문란 비판 성명, 미국 규탄 성명
-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 공연(국가보안법 비판)
- 역사교과서 단골 반대
- 세월호 관련 추모시 발표 등

② 시국 사건 관련

- 제주 4.3 사건을 소재
- 4.19 범국민 10만 촛불대회
- 5.18 연극 제작 경험
- 연극 <짬뽕> 5.18을 소재로 함
- <남영동 1985> 배급사
- 영화 <26년>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
- 동백림 사건에 연루된 이응노 작가를 위한 재단 운영
- 문익환 방북 헌정 등

[A-4]

③ 좌파 성향

- 좌파 성향 언론사(A-4.5)
- 좌파 활동
- 맑시즘 교육을 하는 영상교육기관 역할
- 진보연대 활동
- 적기가 논란
- 6.15 공동선언 등 좌파 활동
- 민변변호사, 좌파

{A-4-5-3}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사회 연대 활동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관련 문화예술 활동이 블랙리스트 배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폭력버스'(A-4.6)로 기재해 관련 활동이나 지지 선언을 한 영화인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했으며, 밀양 송전탑 저지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활동 문화예술인, 전교조 범의노조 통보 철회 및 해직교사 복직 촉구 활동 문화예술인, 전태일 평전을 다룬 공연을 만든 극단 등도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사회 연대 활동이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블랙리스트 문건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 문제 등 사회 연대 활동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한 토론 연극
-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법과 자본의 모순을 파헤치는 프로젝트
- 콜트 등 노동자 2000일 투쟁 지지
- 밀양 희망버스
- 폭력버스 지지 영화인 선언 참여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 전태일 평전을 기초로 삶을 추적
- 전교조 해직교사 철회 촉구

{A-4-5-4} 등재 사유 키워드별 빈도 분석

블랙리스트 DB에서 개인 및 단체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를 분석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별 빈도를 분석했다. 주요 키워드에 대한 기재 횟수 3만여 건 중에서 '문재인' 관련 키워

(A-4.5) 좌파 성향 언론사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한국일보·미디어오늘·오마이뉴스·프레시안·시사인·한겨레21을 명시하고 있다.

(A-4.6) '희망버스'는 2010년 시작된 한진중공업 파업 당시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정리해고 철화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조합원을 응원하기 위해 파업이 끝날 때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운행된 버스를 부르는 말이다. 문건에서는 이를 '폭력버스'로 기재하고 있다.

[A-4]

드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박원순’, ‘세월호’ 관련 키워드가 각각 16%, 13%를 차지했다. 이는 ‘9,473명 시국 선언 명단’이 포함된 결과이나, 해당 명단을 제외해도 ‘문재인’은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좌성향/좌파’ 키워드가 3%를 차지했으며, 사회적 이슈였던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용산참사, 한미 FTA 등 관련 키워드는 약 1%를 차지했다. 주요 키워드별 등재 사유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키워드	등장 빈도(회)	비중(%)
문재인	16,713	55.0
박원순	4,827	15.9
세월호	4,026	13.3
시국 선언	3,192	10.5
좌성향/좌파/반정부	968	3.2
야권연대/진보정당	228	0.8
제주해군기지/광우병/용산참사/희망버스/한미FTA	229	0.8
기타	195	0.6
총계	30,378	100.0

[A-4-6] 시국 선언과 블랙리스트

한국일보의 보도(A-4.7)로 알려진 박근혜 시국 선언 명단은 여러 블랙리스트 중 일부로, 2015년 청와대 지시를 받아 문체부 예술정책과 담당자에 의해 작성·관리됨이 확인된 바 있다. 그동안 9,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 기초 자료라고 보았으나, 위원회는 이외에도 각종 블랙리스트 문건의 검열 및 지원 배제의 사유로 ‘MB 정부 비판 6.9 작가 선언’(A-4.8) 등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존재한 시국 선언 명단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선언 명단의 출처는 대부분 국정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한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이 오랜 시기 지속됨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 사유’로 적시된 시국 선언 명단을 모두 취합,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2만여 명(중복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 선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선언’,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용산참사 해결 시국 선언’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명단이 다수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시국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및 지식인의 명단이 지속적으로 관리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블랙리스트 문건에 배제 사유로 기재된 각종 시국 선언 명단과 규모는 다음과 같이 25건 21,362명으로 확인된다.

(A-4.7) ‘세월호 선언 등 9473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확인’, 한국일보(2016-10-12)

(A-4.8) (사)한국작가회의의 시국 선언 서명자 일동의 ‘이명박 정부의 독재 회귀를 우려하는 문학인 시국 선언’(2009-06-09)

[A-4]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된 각종 시국 선언 명단과 규모

-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명단(2000~2001) 1,600명
- 문화예술계 531인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2006) 531명
- 젊은 문인 183명 MB정부 비판 6.9 작가 선언(2009) 183명
- 부산경남지역 문인 121명 야권 단일후보 지지 성명(2012) 121명
- 문재인 멘토단(문화예술)(2012) 37명
- 문화예술종교인 102명 야권 단일화 촉구 시민운동(2012) 102명
- 연극인 1000명 문재인 지지 선언(2012) 1,000명
- 정권교체를 바라는 시인 소설가 137명 시국 선언 137명
- 출판인 516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516명
- 어린이책을 쓰고 만드는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 선언(2012) 362명
- 경남지역 문화예술인 869명 문재인 지지 선언(2012) 869명
- 문화예술인 269인 진보신당 지지 선언 269명
- 안철수 팬클럽(작가) 74명
- 연극인 513명 문재인 지지 513명
- 부산지역 지식인 문재인 지지 580명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선언 436명
- 밀양 희망버스 참가자 1,884명
- 용산참사 해결 시국 선언 664명
- 건국대 교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 선언 62명
- 동아대 교수 이명박 정부 규탄 시국 선언 56명
-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시국 선언 128명
- 문재인과 안철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지하는 전국 교수 1,000명
- 연세대교수 131명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 선언 131명
- 강원대 교수 107명 세월호 참사 대통령 책임 시국 선언 107명
- 문재인 지지 1만명 예술인 10,000명

[A-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

①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할 법제도 장치 미비

블랙리스트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기춘 등을 피고인으로 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죄책은 ‘직권 남용’이다. 헌법은 문화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고 구현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그간 ‘표현의 자유’가 이를 제한하는 법률·제도적 장치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22조에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A-5.1)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명시적인 법적 원칙이나 조항, 법정 계획의 위반뿐 아니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법률적 통제 장치가 미비해 행정적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틈새에서 작동했다. 즉, 헌법이 명시한 문화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② 국가 주도 문화정책 수립의 한계와 폐해

헌법은 국가의 의무로 문화의 창의성·다양성·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한다. 문화국가원리가 국가 문화정책을 통해 구현된다고 할 때, 문화정책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문화의 창의성·다양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정치 권력은 문화정책을 (정치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위헌, 위법, 불법적으로 전용했다. 그 과정은 ‘균형화’, ‘건전화’, ‘문화융성’ 등을 국정기조로 삼아 범죄 행위를 정책으로 가장하는 것이었다. 문화정책을 수단으로 한 국가범죄가 가능했던 것은, 문화정책 수립 과정이 창조성·다양성·자율성이라는 문화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국가 주도 문화정책은 그것이 표방하는 비전이나 목표와 무관하게 이데올로기의 강제와 사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문화정책 전달 체계의 위계화

문화의 가치는 정책의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이 구현되는 행정에서도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 문화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 공공기관보다는 청와대·국정원·기획재정부 등이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형적인 문화행정 구조가 반복돼왔다. 이러한 기형적인 문화행정 구조는 ‘청와대-문체부-산하기관-현장 문화예술계’로 위계화된 전달 체계로 확대된다.

문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행정으로 인해 공공기관, 지역 지원 기

(A-5.1)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1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A-5]

관, 현장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 정책(사업)이 반복되는 것은,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전달 체계가 중앙 권력 중심으로 위계화됐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러한 위계화된 전달 체계가 행정과 공공기관이 손쉽게 범죄에 동원돼 국가범죄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권력에 의해 문화행정의 자율성, 문화적 가치 훼손 등이 반복되고 일상화돼 발생한 국가조직범죄의 결과물이다.

④ 문화정책을 둘러싼 불안정하고 퇴행한 협치 구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예술 지원기관의 민간위원회 출범은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가 주도를 극복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간 자율 운영 원칙을 침해하는 법제도적 제약과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민간위원회의 위상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민간기관의 예산권·인사권을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 기관 평가 등에서도 예술행정 공공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무관한 성과주의 지표로 기관의 운영을 강제한다.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참여, 평가 등 사회적 통제 구조를 마련할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참여와 협치를 위해 설립된 기관조차 ‘청와대-문체부-산하기관’이라는 위계적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한 위계적 구조는 블랙리스트라는 위헌, 위법, 불법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러한 불안정한 협치 구조를 토대로 작동되고 위계화를 강화함으로써 협치 구조의 불안정성을 심화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대다수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속성 또한 심화됐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은 지시 없이도 자체적인 검열을 수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⑤ 문화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론장, 사회적 통제 장치 미비

문화행정이 문화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부터 행정 과정에 창의성·다양성·자율성이라는 문화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주도, 중앙권력 주도,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 중심 정책, 위계적인 행정은 표방하는 비전이나 목표와 달리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위계적인 문화예술정책과 행정이 반복되고 구조화된 것은 이를 견제할 공론장과 사회적 통제 장치가 협소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행정의 자율성, 전문성 구현, 현장의 참여와 협치는 법제도적 장치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 현장의 공론장은 물론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국가 주도 공급 중심의 정책과 행정이 구조화되면서 문화예술계의 공론장과 사회적 통제가 협소화돼 있다.

[A-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입헌 민주주의의 침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 침해, 법치국가 원리의 침해, 평등 원칙의 침해, 문화국가의 원리 침해, 문화정책의 공공성 및 투명성 훼손, 행정 절차 및 행정법 관련 불법·부당 행위 등의 본질적이고 다양한 문제점을 낳았다.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입헌 민주주의 침해

먼저 블랙리스트 사태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입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입헌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A-6.1)

블랙리스트 사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형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자의 권력으로 문화예술인의 사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원리까지도 훼손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② 민주적 기본 질서의 부정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A-6.2)를 의미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시민사회에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문화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율적 이성과 다원적 세계관의 형성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러한 획일성으로 인해 민주적 의사 결정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한다. 이는 일정한 문화 영역을 시민사회로부터 의도적이고 작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정치 원리조차도 부정하는 행위이다.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만이 통용되고 정권의 의지나 지향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는 인위적으로 도태시킴으로써 우리 헌법의 핵심으로 규정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범죄 행위다.

③ 법치국가의 원리 침해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운영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침해한다.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의 원리는 합헌적이고 정당한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이 통제되는 원리를 말한다. 법치국가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

(A-6.1) 헌법재판소 2014-01-19, 2013헌다1

(A-6.2) 헌법재판소 2014-12-15, 2013헌다1

[A-6]

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토대에는 국민 또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가 자리한다. 이런 맥락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가폭력 내지는 국가범죄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A-6.3)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A-6.4)에서는 표현에 대한 검열 제도와 허가제를 원천적으로 부정
-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한 정치이념 혹은 일정한 정치적 행위를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그 창작·실연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그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
- 이러한 침해 행위는 표현 행위 그 자체를 사전에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이뤄질 수 없도록 문화예술 활동의 환경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됨. 즉,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검열 행위가 아니라 지원 중단과 같은 간접적인 검열의 방식을 사용. 따라서 이는 검열로 규정하기보다는 1909년 일제의 출판법이나 18세기 초의 영국 앤 여왕 당시의 인쇄법 등에 비견할 수 있는 사실상의 허가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이러한 검열 내지는 허가제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폭력이 야기하는 냉각 효과는 모든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게 됨

불법적인 민간 사찰: 개인정보권·사생활 침해

- 나이가 블랙리스트의 작성 과정 및 그 운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편법적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행위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민주 사회에서 금기로 돼 있는 국가의 민간인 사찰의 폐악이 나타남
- 민간인 사찰은 국가가 개인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까지 국가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더 나아가 개인의 일상적 행동까지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한편, 그의 행동과 일상 또는 그 결과로서의 사유 방식이나 가치관까지도 변형하게끔 강요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정치 과정에서나 사용되는 가장 극단적인 국가폭력의 한 형태
-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보호관찰과 같은 교정적 행위조차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통제하고 있을 정도
- 그럼에도 블랙리스트 사태는 비밀리에 혹은 공공연하게 문화예술인의 사적 생활 영역에 침투해 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행위와 사고를 통제하고자 함.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국가범죄

(A-6.3)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A-6.4)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A-6]

④ 평등 원칙의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확대

블랙리스트 사태는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화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일정한 문화예술인 그룹을 국가적 배제 내지는 통제의 대상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

문화예술의 물질적 토대가 현저하게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블랙리스트의 방식으로 문화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단순한 차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블랙리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일종의 비국민화 작업(A-6.5)에 다름 아니다. 일제에 의해 사용됐던 비국민화 전략은 체제 비판적인 시민들을 정치뿐 아니라 사회생활 일반에서 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호모 사케르(Homo Sacer)(A-6.6)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 된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것인 동시에 국민의 일부에 대해 주권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 주권의 원리 그 자체에 흠결을 만들어내는 범죄 행위다.

⑤ 문화국가 및 사회국가의 원리 침해

문화국가의 원리는 국가로부터 문화 활동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가에 의해 문화 활동이 보호·지원·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의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A-6.7) 한다고 선언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문화향유권을 가짐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사회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안전, 그리고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야 할 국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와 사회국가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향유권의 평등한 보장

국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예술에 대한 물질적 토대의 형성

문화향유권은 문화 생산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양한 문화예술이 창작되고 또 실현될 수 있는

(A-6.5) 1930년대 후반 국가총동원법이 발동한 이후 ‘비국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국민이 아닌 자’ 혹은 ‘국민의 자격이 없는 자’라는 의미로, 신민으로서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부른 멸칭이다.

(A-6.6) 이탈리아의 철학자 아감베니 주장한 사상. 호모 사케르(Homo Sacer)란 적역하면 ‘신성한 인간’으로 정의되며, 주권자(추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에 의해 추방명을 당한 상태의 사람을 일컫는다.

(A-6.7) 헌법재판소 2004-05-27, 2003헌가1

[A-6]

기본적 토대(특히 재정·물질적 토대)가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

문화복지와 문화적 격차 해소

주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려가 중심적인 정책 사항이 될 것

이런 맥락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의 자율성을 그 핵심에서부터 부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구성되어야 할 영역을 국가의 한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왜곡 현상을 발생시킨다.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창조하는 ‘문화’가 획일화된 국가 이념만을 재생산하는 ‘통치’로 전환하면서 문화는 그 본질적 실체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에 의해 보편적 서비스의 체제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적 평등을 침해한다. 그것은 문화를 정치에 종속시키면서 문화민주주의를 본질에서부터 부정하는 우를 범할 뿐 아니라, 문화의 주체를 시민·대중으로부터 통치 권력으로 이전시켜버림으로써 문화 그 자체를 말살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문화예술인의 생활 터전을 제거해버리거나 현저히 축소시킴으로서 그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⑥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훼손

블랙리스트 사태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문화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이다.

문화는 무한한 전·후방 효과를 발생시킨다. 문화의 공공성은 이러한 내재적 특성에서 발현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오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가치만으로 결정되기 쉽다. 문화의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기능(공공성)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러한 문화정책의 틀을 왜곡하면서 문화적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국가의 시혜적 급부로 전환하고, 그것을 하나의 권력으로 치환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과정에서 문화를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만 간주해버리는 반문화적인 행태로까지 이어졌으며, 급기야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구조화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의견과 입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떠한 국가 작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그 적용 사례들은 일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공적 급부 혹은 지원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특정한 정치적 견해가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했다. 공무원의 공직상의 권한을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편향적으로 투여해 전체의 이익보다는 부분·분과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편향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의 정반대 방향에서 그를 역행하는 행정 과정을 야기한 것이다.

[A-6]

⑦ 행정 절차 및 행정법 관련 불법·부당 행위의 일상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 및 행정법 관련 불법·부당 행위에 해당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행정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라는 성격을 가진다. 블랙리스트 작성부터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공정성 및 절차 합법성의 요청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랙리스트의 작성 행위 자체가 그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만큼, 자의적 재량 행사로서 재량의 범위를 유월한 위법 행위다.

⑧ 이념과 이권에 기반한 통치 계획 수립 및 추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냉전적 통치 기획 및 실행,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 등에서는 공공연하게 좌파 척결을 독려하고 국가기관은 이러한 이념 갈등과 이념 대결을 조장하는 정권의 지시를 국정기조로 이해하고 수행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정권이 가장 집요하게 억압·배제·차별한 경우는 대통령 모독이었다. 대통령 모독은 곧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이해되고, 그에 대한 집요한 억압·배제·차별이 실행됐다.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전근대적이고 제왕적인 통치를 실행했다.

문화정책은 이러한 이념 갈등, 이념 대결의 도구가 돼 사회적 통제 장치이자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됐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함께 작동한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작성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A-3.2)라는 문건에서 확인되듯이 '건전화'와 '문화융성'에는 블랙리스트의 기획과 실행이 포함되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가 문화 사업을 둘러싼 이권과 부패의 기반이었다.

⑨ 정책을 가장한 국가범죄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검열 없는 시대 검열'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정책의 외양을 띠고 전개된다. 이는 두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 사태의 공통점이며, 유신 및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 검열과의 차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통제하고 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검열에 해당하지만, 그 통제의 수단은 사법적 제재가 아닌 지원사업 등에서의 배제다. 즉, 국가의 문화정책을 배제와 차별의 수단으로 삼았다. 블랙리스트 범죄가 '정책'을 가장하는 이유다.

블랙리스트 범죄를 '정책'으로 가장하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균형화', '건전세력', '건전생태계' 등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블랙리스트 범죄를 치우쳐 있는 것을 바로잡기(균형화) 위해 특정 세력(건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통치 행위인 양 호도한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은 김기춘 등의 직권 남용은 인정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수적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무죄 판결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이며,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다.)

[A-3.2] 참조

[A-6]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자율성·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때 국가의 의무는 국가가 자율성·다양성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아닌, 문화와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호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문화정책은 그러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다.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문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 위헌·위법·불법·부당 행위를 '정책'으로 가장하는 혹은 가장되는 이유는 국가 조직과 자원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원·경찰 등 정보기관, 문체부 등 행정부, 그리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실행됐다.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는 그대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체계와 겹치지며 그 수단 역시 그대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주요 타임라인

2008-08	이명박 정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A-3-1}
2009-02	이명박 정부 '문화·연예계 내 정부비판세력 퇴출 건'	{A-3-1}
2009-07	좌파 연예인 대응 TF 구성	{B-1}
2013-03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A-3-1}
2013-08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A-2}
	국정원 작성 '문화예술계 좌성향 세력 활동 실태 보고'	{A-3-1}
2013-09	국정원 작성 '문체부, BH 지시로 문화예술 분야 좌편향 대응책 보고'	
	국립극단 <개구리> 개막	{B-3}
	국립극단 <알리바이 연대기> 개막	{B-4}
	문화예술정책점검 TF 구성	{B-1}
	중앙일보 보도 '박정희·박근혜 풍자나비하냐, 국립극단 연극 논란'(2013-09-12)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B-3-1}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 개막	{B-5}
2014-01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문체부 등 산하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 성격, 단체 대표 성향, 단체 수행 사업 등 전수조사 지시	{B-1-2}
	문체부 장관, 민간보조사업에서 좌성향 단체를 지원 배제하도록 대책 마련 지시	{B-1-2}
2014-02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통보한 181명'	{A-3-1}
	박근혜 정부, '문체부 예술정책과 관리 리스트'	{A-3-1}
	문체부,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선정 관련 대책방안」 작성	{B-1-2}
2014-03	박근혜 정부, '문예계 내 좌성향 세력 현황 및 고려 사항'	{A-3-1}
2014-04	국립극단 공동 제작공연 <알리바이 연대기> 재공연	{B-4}
2014-05	박근혜 정부, '문체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A-3-1}
2015 상반기(추정)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연출가 전인철 배제	{B-9} {B-10}
	<망루의 햄릿> 홍보물 수정 요청	{B-8}
	<3월의 눈> 재공연 배제	{B-7}
	<빛의 제국> 등에 대한 양해 조치	{B-6}
2015-05	박근혜 정부, '9,473명 시국 선언 명단'	{A-3-1}
2015-07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리스트 113명'	{A-3-1}
2015-08(추정)	<조치원 해문이> 홍보물 수정 요청	{B-8}
2015-10	국립극단 공동 주최 제7회 현대일본회극 낭독공연 취소	{B-12}
2015-11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양해 조치	{B-11}
2015-12	2015년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날아가 버린 새> 낭독 쇼케이스	{B-12}
2016-01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6년 문예기금 개편(안) 보고	{B-2-3}
2016-05	2016 '작가의 방'	{B-13}
2016-09	문체부 예술국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B-2-3}

2016-11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문화예술인 시국 선언 (문화예술인 7,449명, 문화예술 단체 289개)	
2017-0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2017-09	조사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공정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토론회: 제3차 연극 분야 개최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및 단체 조사 접수	
2018-04	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 개최 및 제도개선 권고안 순차 의결	
2018-05	조사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2018-06	조사위, 115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합 권고안 제출	
	조사위, 보도자료 배포 '진상조사위,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책임규명 권고- 총 130명, 수사의뢰 26명 및 징계 104명 권고'	
2018-08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출범	
2018-09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 징계 0명을 규탄하는 문화예술인 1인 시위	
2018-12	문체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후 최종 발표	
2019-01	김용삼 문체부 차관, 블랙리스트 피해 연극인들과 간담회 개최	
2019-0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	{A-0} {E-2}
2021-0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022-10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발간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와 피해자의 목소리

[B-0]

시작하며

본 장에서는 공연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을 살펴보고 국립극단의 사례와 이에 따라 국립극단에서 이행한 후속조치의 결과를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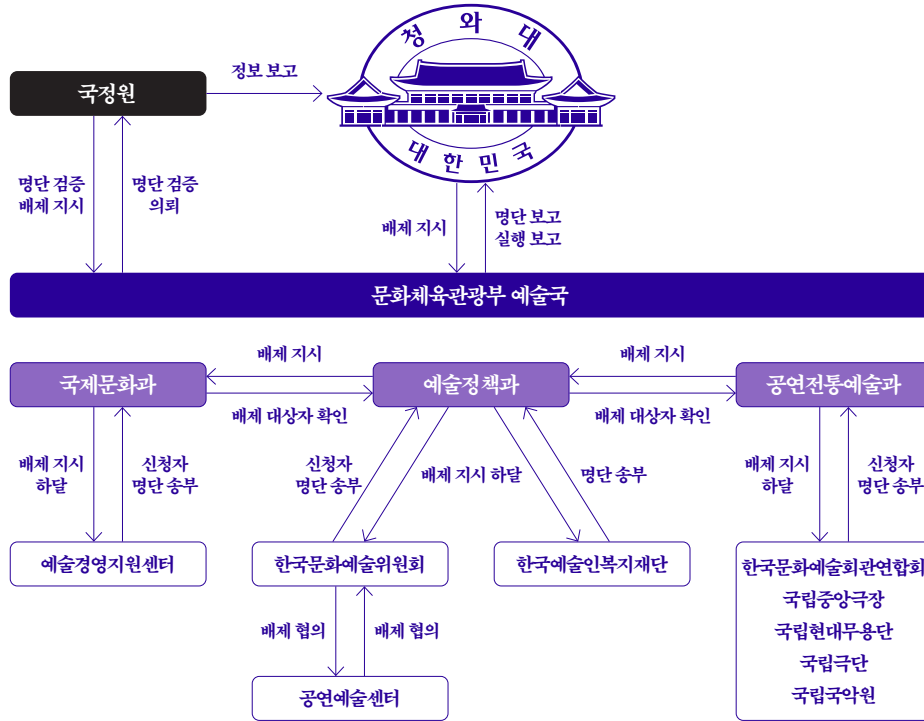
[B-1] 공연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과 [B-2]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과 조사 결과를 정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편집해 정리했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는 사례별로 해당 백서에 수록된 진상조사 결과와 2019년 이후 국립극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후속조치의 결과를 교차로 편집해 구성했다.

더불어 국립극단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을 위해 피해자의 참여 및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와의 직·간접 면담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본 사례집 제작 취지를 설명하고 녹취록을 수록하거나 기고하는 것에 대해 의향을 확인한 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록했다. 또한 면담 이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기록을 수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B-1]

공연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B-1-1}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도



{B-1-2} 공연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실행의 배경

1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계기 국립예술단체에서 정치적 소재 내용 배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가 개막한(2013-09-03) 며칠 뒤인 2013년 9월 6~7일경,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에게 전화해 공연이 정치편향적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은 예술국장 김○○ 등에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2013년 9월 9일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중에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개구리>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고, 같은 날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A-7] {A-3-1} 문체부 예술국은 “향후 국립극단을 비롯한 국립예술단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재는 배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립극단 사무국장 최○○은 <개구리>의 후속 작품인 <구름>(2013-09-24~2013-10-05)의 대본 중에서 특정 정치인을 풍자한 대사 등에 자를 대고 빨간 줄을 친 것을 연출가 ○○○에게 보여주며 수정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B-1.1)

[A-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타임라인과[A-3-1] 참조

(B-1.1) 문체부 관계자 및 국립극단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은 모두 빨간 줄이 친 대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연출가, 배우 등 복수의 진술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B-5] 참조

[B-1]

2 혜화동 1번지 봄 페스티벌 ‘국가보안법’

비슷한 시기 국정원의 2013년 9월 정보 보고 문서에서 2013년 혜화동 1번지 봄 페스티벌 ‘국가보안법’(B-1.2) 중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의 연출가 윤한솔이 2013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예로 들어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 예술단체 지원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와 예술위가 공동으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지역문제 특성화·공연장 육성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청와대에서 지적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향후 예술위 소관 사항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청와대 교문수석실에 보고하는 일도 있었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서 ‘혜화동 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 선정에 따른 청와대의 조치

2014년 1월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등 산하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 성격, 단체 대표의 성향, 단체 수행 사업 등을 조용히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2014년 1월 24일 문체부 장관 유진룡이 민간보조사업에서 좌성향 단체를 지원 배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에서 ‘혜화동 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이 다시 지원에 선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2014년 2월 21일 문체부에 팩스를 보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4년 3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받은 당일인 2014년 2월 21일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선정 관련 대책방안」 문서를 작성했고, 문체부 장관 유진룡이 김기춘과 대면해 2014년 3월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하고 공모 심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혜화동 1번지와 서울프린지네트워크는 각종 공모 사업에서 배제됐다. 혜화동 1번지의 경우 소속 연출가 동인은 물론, 혜화동 1번지 극장(B-1.3)에서 공연한 연출가도 배제 대상으로 올랐고,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운영위원의 경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서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다.

{B-1-3} 공연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체계

2014년 5월 문체부 제1차관 조현재가 청와대 문체비서관 김소영에게 블랙리스트 문서를 받아와 실장급에게 공유했다가 해당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회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 선임사무관 박○○이 해당 리스트를 촬영해 사진으로 남겨 두었다. 리스트에 포함된 인원은 80명가량으로, 대부분 문학·연극 분야였다. 예술정책과 사무

(B-1.2) 혜화동 1번지 5기 동인은 2013년 봄 페스티벌 주제로 ‘국가보안법’을 내걸고 5월부터 8월까지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모의 법정>, <무림파월전>, <괴물이 산다>, <빨갱이, 갱생을 위한 연구>, <레드 채플린> 등 다섯 작품을 공연했다.

(B-1.3)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중로구 창경궁로35길7)

[B-1]

관 오○○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에게 리스트를 전달했는데, 2014년 10월 중순 공연 전통예술과장으로 임명된 임○○에 따르면 그해 10월 중순 당시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들은 각자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별로 배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은 “2014년 9월경 예술정책관 김○○이 예술국 사무관급 이상 직원들을 불러놓고 앞으로는 리스트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기 전까지는 해당 리스트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연전통예술과에서는 국립극단·예술 위 공연예술센터·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체부 산하 공연예술기관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담당 사무관이 해당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대상자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오○○ 사무관으로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해당 사무관에게 배제 대상자 확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전통예술과에서 소속기관에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서울연극협회 배제 및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개입

② 국립극단

- 2015년 1월 명동예술극장·국립극단에 특정 연출가(B-1.4) 배제 지시
- 2015년 여름 국립극단에서 홍보물(B-1.5) 검열
- 2016년 젊은 연출가전에서 연출가 전인철 배제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현장예술인교육 지원사업에서 서울연극협회 등 배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예술인 맞춤형교육지원사업에서 배제 지시

④ 예술경영지원센터

-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 프로젝트 개발지원 공모에서 극단 마실 배제
- 2015년 서울아트마켓 팸스초이스 지원 배제 지시

⑤ 국립현대미술관: (이미아직) 작가 배제

⑥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공모 선정 배제

⑦ 예술의전당

⑧ 국립국악원: 특정 연출가 배제

(B-1.4) ○○○-손진책·김광보 등 좌성향 연출가

(B-1.5) 기획대관공연 (망루의 햄릿)(광화문광장의 시위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 (조치원 해문이)(블랙리스트인 극단 그린피그와 윤희술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

[B-2]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

{B-2-1}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① 의결주문

사건번호 2017직공5 [(재)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에 대한 별지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한다.

②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지

-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기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했다.
-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구름> 공연에서 대본 검열이 있었고, 2015년 1월경 5개 작품 <빛의 제국>, <문체적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세인트 조엔>,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해 <해경궁 흥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해 청와대의 배제 지시가 있었으나 취소 시 파장을 고려해 양해 조치됐고, 국립극단 공동 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홍보물에 대한 검열 조치가 있었고,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날아가 버린 새> 공연에서 연출가 전인철에 대한 배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2-2} 조사 개요

① 직권조사의 취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② 조사개시의 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B-2.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세칙」 제21조 제2항(B-2.2)에 따라 2017년 12월 8일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위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③ 조사의 목적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기 동안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

{B-2-3} 조사 경과

① 문건 등 자료 조사

아래와 같이 주요 문서, 모두 10건에 대해 입수 및 검토함.

(B-2.1) 제3조(기능) 제1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B-2.2) 제21조(조사개시결정 등) 제2항 “진상조사소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또는 사전조사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진상조사소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1. 각하 2. 조사개시 3. 직권조사”

[B-2]

연번	문서명	진술자·작성자 등	입수일
1	(재)국립극단 정관	국립극단	
2	국립극단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김○○(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2017-08-17
3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2017. 10. 30.)	국정원	
4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2016. 9. 9.)	문체부	2017-08-17
5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2017. 10. 30.)	국정원	
6	리스트-'16. 2. 1. 현재	오○○(문체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7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2017. 3.)	고연옥(작가)	
8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 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기자)	
9	2016년 문예기금 개편[안] 보고(2016. 1. 8.)	문체부 예술정책과	2017-08-17
1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2018. 3. 30.)	국립극단	2018-03-30

㉔ 참고인 등 대인 조사

아래와 같이 모두 27명에 대해 27회에 걸쳐 조사함.

연번	대상자	관계, 소속	조사일	대상 문건
1	정○○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2017-10-23	1회 진술조서
2	김재엽	참고인	2017-10-22	
3	고연옥	참고인	2017-10-26	
4	김광보	참고인	2017-11-16	
5	전인철	참고인	2017-11-17	
6	남인우	참고인	2017-11-20	
7	박상현	참고인	2017-11-21	
8	○○○	참고인	2017-11-24	
9	장○○	참고인	2017-11-28	
10	박○○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2017-12-12	
11	윤○○	국립극단 사무국장	2017-12-19	
12	모철민	청와대 교무수석	2017-12-27	
13	정○○	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	2017-01-05	
14	정○○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	2018-01-07	
15	구자홍	명동예술극장장	2018-01-10	
16	김○○	문체부 예술국장	2018-01-11	
17	김○○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2018-01-12	

[B-2]

18	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2018-01-12	
19	○○○	국립극단 피디	2017-01-15	
20	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2018-01-23	
21	최○○	한불 130주년 기념 수교 예술감독	2018-01-25	
22	박○○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2018-01-26	(사실 확인)질문지
23	○○○	국립극단 피디	2018-03-09	1회 진술조서
24	최○○	국립극단 사무국장	2018-03-09	
25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	2018-04-10	
26	○○○	문체부 예술국장	2018-03-23	
27	유진룡	문체부 장관	2017-11-29	면담 녹취록

[B-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대본 수정 조치가 있었던 경위

{B-3-1} 문건 등 자료 조사

①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 과장이 2013년 9월 12일경 최종 완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는 연극 <개구리>에 대해 ① ‘내용상 문제점’으로,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 상징)과 “카멜레온”(박정희 전 대통령 상징)의 대화를 통해 “그분”을 미화하고 “카멜레온”을 비하적으로 묘사한 점 ②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기말고사 컨닝”으로 풍자한 점, 윤창중 전 대변인 스캔들을 풍자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③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으로,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고 과도한 정치적 풍자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④ 한편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향후 국립극단 작품에서 ‘편향된 정치적 소재’는 배제토록 강력 조치’,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교체 추진’ 등을 보고하면서 ⑤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한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B-3.1)

②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체부 예술국이 2016년 9월 9일경 조운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한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문서를 살펴보면, 소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방안’이 추진된 배경은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적·이념 편향적 작품(단체)이 이슈화되면서 이념 편향적인 작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문제점에 관해 청와대(B)·국정원(K)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를 거론하면서 이 작품이 고(故) 박정희 대통령을 다소 희화화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은유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고 지적하고 있다.(B-3.2)

{B-3-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김재엽의 진술

참고인 김재엽(연출가)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공연을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앞둔 어느 날 새벽 ○○○ 연출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손진책 예술감독이 <개구리> 연습실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개구리>의 ‘그분(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한 관여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3.3)

②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B-3-1}」라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할 때 주도적으로

[B-3] 국립극단 아리스토텔레스 희극 3부작 I <개구리>, 2013-09-03~2013-09-15, 백성희장민호극장

(B-3.1) 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2013-09-12)
(B-3.2) 문체부 예술정책과,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2016-09-09)

(B-3.2) 1쪽 참조
(B-3.3) 김재엽 1회 진술조서, 5쪽 (2017-10-22)
(B-3-1) ①의 문건

[B-3]

관여를 하지는 못했고 당시 김○○ 과장님과 상의해서 위 문서 내용들을 작성해 문서에 담았습니다.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과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참고 자료는 국립극단 조○○ 팀장 혹은 최○○ 사무국장에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서에서 ‘공연개요’ 부분과 ‘참고사항’ 부분은 제가 조○○ 팀장 혹은 최○○ 사무국장에게 협조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에서 ‘주요 내용 검토’ 부분은 김○○ 당시 공연전통예술과장님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과장님에게 검토 내용에 대해 상의를 드릴 여지는 없었고, 김○○ 과장님께서 초안을 잡아오신 내용을 제가 다시 타이핑해서 가져다 드리고 다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위 문서에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부분은 손진책 예술감독님의 판단으로 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그러한 얘기를 김○○ 과장님이나 손진책 감독님에게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B-3.4)

당시 김○○ 예술정책관이 위 <개구리>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2013-09-09 청와대에서 <개구리>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김○○ 과장님께서 김○○ 정책관님께 이와 관련해 보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라고 진술했다.(B-3.4)

③ 참고인 ○○○의 진술

참고인 ○○○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대본에서 당초 ‘그분(노무현)’을 지상으로 모시고 오는 결말을 어머니가 지상으로 오는 결말로 수정한 사실과 관련해, “공연 며칠 전 손진책 감독님께서 리허설을 보신 후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3.5)

④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동자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 손진책 예술감독과 ○○○ 연출가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후 수정한 것으로 손진책 감독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연극의 결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손 감독에 따르면, ○○○ 연출가에게 ‘네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선동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를 ○○○ 연출이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3.6)

⑤ 참고인 모철민의 진술

참고인 모철민(교문수석)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 논란과 관련해, 당시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상당히 폄하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대수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지만 손

(B-3.4) 정○○ 1회 진술조서, 4~6쪽 (2017-10-23)

(B-3.5) ○○○ 1회 진술조서 (2017-11-24)

(B-3.6) 박○○ 1회 진술조서, 3쪽 (2017-12-12)

[B-3]

진책 예술감독의 사임에 대해 지시하거나 김○○ 예술국장을 질책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 확인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B-3.7)

⑥ 참고인 김○○의 진술

참고인 김○○(문체부 예술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3년 9월경 연극 <개구리> 공연이 개막한 후 김○○ 공연전통예술과장이 “큰일났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리기리 합니다”라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했는데, 공연 중인 작품을 중단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손진책 예술감독을 해임하기보다는 연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써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3.8)

⑦ 참고인 조○○의 진술(B-3.9)

참고인 조○○(문체부 유진룡 장관 정책보좌관)은 연극 <개구리>를 보고 ‘저거 분명히 문제 삼을 텐데,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유진룡 장관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3.10)

⑧ 참고인 김○○의 진술

참고인 김○○(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B-3-1)를 자신과 정○○ 사무관이 협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문서를 김○○ 예술국장과 청와대 교문수석실 ○○○ 국장에게도 보냈고 유진룡 장관·조현재 차관에게도 보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개구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9월 3일 공연 개막 주 금요일쯤이었고(2013년 9월 6~7일경으로 기억)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김○○ 예술국장과 공연 내용에 대해 통화했는데, 청와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해 보고했던 것이며, 유진룡 장관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모칠민 수석이 아마 김○○ 국장을 질책했을 것이라고도 진술하면서 김○○ 예술정책관의 1급 승진이 계속해 누락된 것은 <개구리> 관련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위 문서에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보고용으로 좀 과장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하면서, 일주일 가량 청와대와 문체부 사이에서 몇 차례 피드백이 오고가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2013년 9월 12일경 중앙일보 기사가 나간 후 더 심각한 상황이 돼 기사가 나간 당일 자신과 손진책 예술감독이 장시간 면담을 나눴고, 그 결과 손진책 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연임을 하지 않기로 해서 이 문서 첫 번째 장 마지막 줄의 ‘현 국립극단 예술감독 교체 추진’이라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3.11)

(B-3.7) 모칠민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2-27)

(B-3.8) 김○○ 1회 진술조서, 4쪽 (2018-01-11)

(B-3.9, 편집자 주) 해당 진술의 당사자는 조현재 전 정책보좌관으로 추정되며, 백서 원문의 대인 조사 목록에 누락돼 있어 바로잡는다.

(B-3.10) 조○○ 1회 진술조서, 11쪽 (2018-01-18)

(B-3-1) ①의 문건

(B-3.11) 김○○ 1회 진술조서, 3~5쪽 (2018-01-12)

[B-3]

⑨ 참고인 최○○의 진술

참고인 최○○(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가 개막한 이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정○○ 사무관이 <개구리> 대본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해서 정○○ 사무관 혹은 김○○ 과장에게 <개구리> 대본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뒤로 손진책 감독과 문체부 사이에서 사후 대처가 진행돼 자신은 따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문서의 ‘손진책 조치사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손진책 감독이 ○○○ 연출가와 만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대폭 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아마 김○○ 과장이 ‘위’에 보고용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연출가에게 ‘권유’ 정도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문서의 ‘향후 조치 계획’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지시받은 기억은 없다고 했다.(B-3.12)

⑩ 참고인 손진책의 진술

참고인 손진책(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개구리> 시연회가 끝난 후 ○○○ 연출가를 ‘한 차례’ 면담해 직접적인 풍자 부분에 대해 ‘예술감독으로서’ 미학적인 차원에서 조언했고 이를 ○○○ 연출가가 수용했으며, 그 이후 그 문제에 대해 연출가에게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개구리> 공연 이후 김○○ 당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과 면담하면서 연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적이 없으며 ‘국립극단이 이런 작품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이 공연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B-3.13)

⑪ 참고인 유진룡의 진술

참고인 유진룡(문체부 장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3년 연극 <개구리>가 문제가 돼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형식적으로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3.14)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점검 TF는 2013년 9월 9일 만들어졌다.(B-3.15)

[B-3-3] 소결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에서 현재 공연 중인 작품에 대해 ‘추가 조치 요구(수정 등)’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출가로 하여금 결말을 수정하도록 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하고 있는 점(B-3.1) 참고인 김재엽 연출가가 <개구리> 공연을 대략 일주일 내지 5일 가량 앞두고 ○○○ 연출가로부터 손진책 예술감독이 대본의 결말을 바꾸는 등 작품에 대해 관여를 많이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3.3) 정○○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이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 부분은 손진책 예술감독님의 판단으로 조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3.4) 참고인 ○○○이 공연 며칠 전 손진책 예술감독이 리허설을 본 후 “국립극단인데 작품에 격

(B-3.12) 최○○ 1회 진술조서, 3~5쪽 (2018-03-09)

(B-3.13) 손진책 면담조사보고, 1쪽 (2018-01-28)

(B-3.14) 유진룡 면담녹취록, 44~46쪽 (2017-11-29)

(B-3.15)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2쪽(2017-10-30), 이 책의 {A-3-1} ②의 문건 참조

(B-3.1) 참조

(B-3.3) 참조

(B-3.4) 참조

[B-3]

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는가. 그리고 직설적인 욕설을 배제했으면 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3.5)** 박○○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는 결말을 동지승의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 손진책 예술감독과 ○○○ 연출가가 따로 만나 얘기를 나눈 후 수정한 것으로 손진책 감독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3.6)** 모철민 교문수석이 <개구리> 논란과 관련해 당시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상당히 폄하하는 등의 이유로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3.7)** 조○○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연극 <개구리>를 보고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유진룡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3.10)** 김○○ 공연전통예술과장이 <개구리>가 개막하고 9월 6~7일경 청와대 문체비서관실로부터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 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공연을 본 후 청와대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진술하면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손진책) 조치사항’은 청와대 보고용으로 좀 과장해서 만든 보고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B-3.11)** 손진책 예술감독이 <개구리> 시연회가 끝난 후 ○○○ 연출가를 면담해 직접적인 풍자 부분에 대해 미학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했고 ○○○ 연출가가 수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3.13)**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2013년 연극 <개구리>가 문제가 돼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형식적으로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3.14)**을 종합해 살펴보면 연극 <개구리>가 개막하기 전 국립극단에서 대본의 결말 등에 대한 수정 조치가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개구리>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은 김○○ 공연전통예술과장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손진책 감독을 면담한 후 ‘손진책 감독 조치사항’ 부분, 손진책 예술감독 교체 추진 등의 사항을 문서에 포함시켜 청와대에 보고하고, 문체부에서는 연극 <개구리>가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개구리> 개막 전 대본의 결말에 대한 수정 조치가 청와대·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수정 조치인지 아니면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미학적인 차원의 조언을 ○○○ 연출가가 수용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B-3.16)**

(B-3.5) 참조
(B-3.6) 참조
(B-3.7) 참조

(B-3.10) 참조
(B-3.11) 참조
(B-3.13) 참조
(B-3.14) 참조

(B-3.16) 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2018-11-09) 청와대 및 문체부가 인정한 시점은 공연이 시작된 9월 3일 촬영 이후인 9월 6~7일경임. 따라서, 문체부 내지 청와대는 <개구리>를 포함한 특정 작품의 내용에 대해 수정 등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위 사건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수정 과정의 개입 의혹은 사실이 될 수 없음.

[B-4]

국립극단 공동 제작공연 <알리바이 연대기>의 경우

[B-4-1] 문건 등 자료 조사

① <알리바이 연대기> 공연 소개

연극 <알리바이 연대기>(작·연출 김재엽)는 2013년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초연돼 제5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희곡상·연기상, 제6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연기상·무대예술상, 2013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2013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7 등을 수상했고, 2014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재공연됐다.

<알리바이 연대기>는 6.25 전쟁 당시 육군 포병학교 장교로 용감히 싸운 아버지가 공익근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막내 아들의 훈련소 앞에서 진한 눈물을 흘리는데, 아버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의 일생을 추적해 가면서 광복 이후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아버지가 숨겨온 ‘알리바이’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②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B-3-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 과장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는 “2013년 국립극단 후속 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1쪽)하겠다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면서, ‘참고사항’으로 국립극단의 2013년 하반기 주요 공연을 첨부했는데, 이 중에 김재엽 작·연출의 <젊은연출가전(1)-알리바이 연대기>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B-4.1)**

[B-4-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김재엽의 진술

참고인 김재엽은 위원회 조사에서 <알리바이 연대기>에 대해 ① 손진책 예술감독이 연극 무대에 걸려 있는 박정희 사진에 대해 우려가 많았고, 극 중 내용에 박정희의 일생 중에서 사회주의 자로서의 활동 경력, 밀고 및 전향 경력 등이 직접 거론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② <알리바이 연대기>가 2013년 연말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대한민국연극대상, 2014년 초 동아연극상 작품상·희곡상 등을 수상한 후 제35회 서울연극제(2014-04-14~2014-05-11)에 참가하고 국립극단에서도 재공연하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2014년 2월 4일경 신임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김윤철 예술감독이 국립극단에서 재공연하기로 약속했던 <알리바이 연대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국립극단에서는 이를 정도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 <알리바이 연대기> 공연을 국립극단에서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B-4.2)**

② 참고인 ○○○의 진술

참고인 ○○○은 위원회 조사에서 연극 <개구리>를 준비하는 동안 손진책 감독이 너무 예민한

[B-3-1] ①의 문건

(B-4.1) 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2쪽 (2013-09-12)

(B-4.2) 김재엽 1회 진술조서, 3~9쪽 (2017-10-22)

[B-4]

게 아닌가 하여 김재엽 연출가에게 “〈개구리〉에 대해 이렇게 할 정도면, 너네 팀은 더 심했겠 같은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라는 취지로 전화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김재엽 연출가가 〈알리바이 연대기〉에서 박정희 액자가 꼭 필요한데 손진책 감독님이 그 액자가 꼭 있어야 되느냐고 계속 물어봐서 골치 아프다고 말을 하곤 했다고 진술했다.(B-4.3)

③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2014년 2월경 예술감독 취임 직후 〈알리바이 연대기〉의 예술적 완성도에 만족할 수 없다면서 재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김재엽 연출가와 이미 얘기가 됐다고 하는 취지로 진술했다.(B-4.4)

④ 참고인 최○○의 진술

참고인 최○○은 위원회 조사에서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 연대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거는 것에 대해 걱정은 했지만 때라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4.5)

⑤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김재엽 연출가에게 재공연을 하지 말자라든가 공연을 이틀만 하자라든가 하는 말을 한 기억은 없고, 도리어 예술감독 취임 직후 박○○ 팀장으로부터 김재엽 연출이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만 작품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첨예한 주제를 다루면서 작가의 시선이 너무 자기애적인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박○○ 팀장 등 국립극단 직원들에게 피력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4.6)

[B-4-3] 소결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의 ‘향후 조치계획’ 대상에 〈젊은연출가전 (1)-알리바이 연대기〉가 포함돼 있는 점, 김재엽 연출가가 〈알리바이 연대기〉에 대해 손진책 예술감독이 연극 무대에 걸려 있는 박정희 사진, 박정희의 사회주의자로서의 활동 경력, 밀고 및 전향 경력 등이 직접 거론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4.2) 김재엽 연출가가 김윤철 신임 예술감독이 국립극단에서 재공연하기로 약속했던 〈알리바이 연대기〉 재공연을 부담스러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4.2) ○○○ 연출가의 진술.(B-4.3) 박○○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김윤철 예술감독이 2014년 2월경 예술감독 취임 직후 〈알리바이 연대기〉 재공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 김재엽 연출가와 이미 얘기가 됐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4.4) 최○○ 사무국장

(B-4.3)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1-24)

(B-4.4) 박○○1회 진술조서, 6쪽 (2017-12-12)

(B-4.5) 최○○1회 진술조서, 6쪽 (2018-03-09)

(B-4.6) 김윤철 1회 진술조서, 2쪽 (2018-04-10)

(B-4.2) 3~6쪽 참조

(B-4.2) 7~9쪽 참조

(B-4.3) 참조

(B-4.4) 참조

[B-4]

이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 연대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거는 것에 대해 걱정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4.5) 김윤철 예술감독이 박○○ 팀장으로부터 김재엽 연출이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4.6)을 종합해 살펴보면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 연대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김윤철 예술감독의 경우 김재엽 연출가나 박○○ 팀장의 진술과 반대로 김재엽 연출가가 재공연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말하고 있어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알리바이 연대기〉 재공연을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B-4-4] 연출가 김재엽의 목소리

일시 2021-10-14(목) 오후 7시

장소 국립극단 회의실 1

참석자 총 5명

공연 참여자: 김재엽(작·연출)

외부 인사: 이양구(자문위원)

국립극단: 오현실(사무국장), 정용성(홍보마케팅팀장), 김태은(홍보마케팅팀 대리)

정용성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동안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사건마다 피해자들을 모시거나 찾아뵙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말씀해주신 것들을 오늘처럼 녹취 형태로 수집해서 사례집에 담거나, ‘나는 좀 돌아가서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 해 보겠다’고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원고를 받아서 기록을 남기려는 작업을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재엽 연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들에 대해 저희가 연출님께 공식적으로 들은 적도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직원도 국립극단에 몇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에 오늘 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국립극단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대화는 녹취해서 연출님께 전해드리고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김재엽 네, 괜찮습니다.

정용성 이양구 작가님께서 원래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에 계시기도 한데요.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에 대한 사례집 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돼 오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오현실 이양구 작가님께서 저희 사건에 대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 저희가 만나서 대화할 때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후속조치를 계획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례들을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상

(B-4.5) 참조

(B-4.6) 참조

[B-4]

태에서 일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한 내부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국립극단이 많은 예술가들과 작업할 때 조심할 부분,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국립극단에서 다시 진행하는 만큼 국립극단만의 일종의 백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열 이양구 작가님한테 일전에 다 말씀드려서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한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작가님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이양구 지금처럼 편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립극단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립극단의 사례집 제작 과정에 참여하시는 거고, 팀 전체가 모여서 그때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작가나 연출가께서 글로 전달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 우선 사건에 대한 기억을 중점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재열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가 가동돼서, 김기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공립 단체에 이런 이슈가 발생한 시점이 제가 알기로 2013년 연말, 2014년 초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자면, <개구리>가 이슈가 된 게 2013년 9월이죠. 아마 12월 말쯤 김기춘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오더한 걸 거예요. 국공립에서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양구 제가 복기를 해드리자면, <개구리>가 공연된 게 2013년 9월 3일이에요. 9월 3일에 첫 공연되고 나서 청와대로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연락한 게 9월 5일경입니다. 국립극단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작업이 있다는데 알아봐라, 해서 주요 인사들이 공연을 본 거죠. 이후에 청와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9월 5일쯤이거든요. 그리고 연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기춘이 국립극단을 비롯한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라고 한 건 9월 9일이에요.

김재열 9월 9일이에요?

이양구 네, 그날 문체부에서 해당 지시에 대응해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문화예술정책점검 TF(A-3-1)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아마 크리스마스 때였을 거예요.

김재열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지 않았나요?

이양구 네, 우선 이게 있었고 그리고 12일날 기사가 나는 거죠. 중앙일보 기사 있잖아요.(B-4.7) 그 무렵에 <개구리>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알리바이 연대기>는 맞은편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거였죠.

김재열 저희 때는, 처음에 손진책 예술감독님 시절이죠. 그리고 박○○ 팀장님, ○○○ 피디가 저희 프로듀서였어요. 지금은 다들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젊은연출가전(B-4.8) [B-9]'이라고 해서 지금도 7년째 하고 있는 그걸 하신 거죠. 그게 1년 전에 공동 제작

[A-3-1] 참조

(B-4.7) '박정희·박근혜 풍자나비하나. 국립극단 연극 논란', 중앙일보(2013-09-12)

[B-4]

형식으로 작품을 의뢰하시고, 저희는 준비하는 거였어요. 손진책 예술감독님과 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9월에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감독님은 약간의 노파심 같은 게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 시대에 겪어 본 바가 있는 분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하신 거죠.

<알리바이 연대기>는 국립극단 공동 제작이라 저희는 국립극단 내 연습실이 아니라 대학로 부근 사설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을 했어요. 연습 당시에 ○○○ 피디가 한 차례 연습실을 찾은 것 외에 국립극단과 별다른 소통은 없었고요. 공연을 앞두고는 예정보다 좀 일찍 소극장 판에 들어와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때 손진책 감독님은 거의 매일 연습을 보러 오셨죠.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감독님께 드린 원고는 공연 대본처럼 상세하게 적힌 게 아니었고,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형식으로 A4 100매에 가까운, 두꺼운 걸 전해드렸어요. 회곡 형식이 아니라 소설 형식으로 쓴 대본이라서 당시 감독님께서 '이걸 어떻게 올리려고 하나'고 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원고에 박 대통령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예술감독님] 올해가 박근혜 정부 첫해니까 '박정희' 이름이 직접 나오고 이래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쪽으로 슬쩍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술감독님으로서 좋은 의미에서 노파심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압박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 팩트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잘 풀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 관계를 따지면, 이게 거짓말도 아니고 추측으로 쓴 것도 아닌, 전부 팩트를 체크해서 쓴 거기 때문에, 다 자료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준비했었죠. 그런데 리허설 하러 극장에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를 좀 일찍 부르셨어요. [소극장 판에] 들어가서 리허설을 하는데, 거의 매일 저희 연습실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건 집어넣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손진책 예술감독님] 노파심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박정희 사진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보시다 언짢으실 거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약간은 경직되죠. 다 와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보시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끝나고 잠시 얘기 좀 하자고. 갔더니, 예술감독으로서의 얘기하는 건데 '네 작품은 미학적이지가 않다', '예술적이지가 않다', '이런 건 메타포를 동원해서 비유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뭐 영상도 없고 뭘 안 집어넣은 상태라... 그리고 무대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회색 벽이라고. 사실은 거기 영상을 썬야 하는 건데. 뭘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여쭙봤어요. 혹시 위에서, 정부나 문체부에서 어떤 관여 같은 게 있느냐, 그냥 웃으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쪽 정부가 됐으니까'라면서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워낙 살아왔던 구력

(B-4.8)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은 2012년 '젊은연출가 시리즈'로 시작, 신인에서 중견으로 발전하는 연출가들이 실험적 창작극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소극장 판에서 꾸미는 창작 마당이다. [B-9]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된 경위 참조

[B-4]

이 있으시니까 전두환 시절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음날인가 또 보시다가 부르시더라고요. 학생반장이 불려가는 것처럼 된 거죠. 선배들은 연습 끝나고 가는데 나만 남으라고 그러시니까. 다음날 만나면 이제 ○○○ 선배님이나 다른 선배들이 어제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 다 얘기해봐라 그러시면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세 번째인가 불려갔는데, ‘박정희가 좌익 활동을 했다는 거는 하나의 설에 불과한 건데 그걸 네가 하나의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곤란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그건 증거가 다 있고, 역사책에 다 나오는 거다, [그랬죠.] 이렇게 내용에 대해 지적하시더라고요. 좀 안 했으면 한다, 이런 쪽으로요.

이양구 박정희 대통령 관련한 부분일까요?

김재열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굳이 걸려야 하느냐 그런 거였죠. 세 번째 리허설을 할 때 세트가 들어왔는데, 디자이너가 사진을 세트에 인쇄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사진을 거는 걸로 약속했는데 벽에 완전히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예술감독님은 자기가 자꾸 지적하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 아닐까 하고 의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거를 좀 빼자, 무대를 보면 아버지 사진이 있고 그 옆에 박정희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빼자는 거죠. 무대에 그게 계속 있으면 문제가 좀 있다, 이러시는 거죠. 액자도 빼자고 하고 세트에도 조정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뭐 난 괜찮다, 그게 제가 국립극단 하고 처음 작품 하는 거였어요. 그땐 국립[극단] 초창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고 다음에 안 나오면 되지 했죠. 그리고 묘수가 하나 있던 게, 저희는 공동 제작이니까 국립극단에서는 장소하고 제작 여건을 제공해주는 거고, 콘텐츠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손진책 예술감독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날 <개구리> [백성희장민호극장 공연]에 가신 거예요. <개구리> 가서서 그날 사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 있던 스태프들은 이제 전부 아니까. 그때 분위기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데 정치적인 이야기 [두 편이] 어떻게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똑같았어요. 근데 이전 손진책 감독님이 잡으신 [기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알리바이 연대기> [소극장 판 공연] 신경 쓰느라고 맨날 여기 오시면서 저쪽은 그냥 풍자하고 그런 거니까 했는데, 보고 식 겁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말도 바꾸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 연출님은 듣고 있다가 나와 버리시더라고요. 자리를 피해준 거지 그냥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새벽에 ○○○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두 시 반쯤인가, 술이 좀 되셔가지고. 맨날 너네한테 갔다던데 오늘은 우리한테 왔다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결말이 어땠고 저땠고, 에이, 하고 그냥 나와 버려서 얘기도 안 들었는데, 술 한 잔씩 하고 들어보니까 배우들도 마음이 상한 거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기 [<알리바이 연대기> 리허설]엔 맨날 갔다 그러더라. 자기한테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너한테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빼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대로 할 거다, 그리고 공동 제작이고 어차피...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저기 본부랑 양쪽에서 연습하고 있는 팀들이랑, 극장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쉬

[B-4]

는 시간에 나오면 [양쪽] 배우들끼리는 돈독하니까 분위기 어땠는지 서로 막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오픈하는 날, 아니 오픈하기 전날에 ○○○ 피디가 와서, 원래는 개막식 때 프레스 리허설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만 취소가 됐대요. 사진 찍고 그래야 하는데 세트 이미지 들어가는 게 예술감독님이 못마땅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프레스 리허설이 취소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상관없다, 괜찮다 그랬죠. 근데 고사는 간단하게 지내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날이었나, 저희 시파티 자리에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개구리> 자리에 가 봐야 할 거 같다고. 프레스 리허설 없애고, 그다음에 고사 지낸다고 하니까 오셨어요. 오셔서 무대를 보시더라고요. 저 사진, 저거 어떻게 하냐고. 저게 공연 내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대뜸 ○○○ 선배랑 저를 같이 부르시더니만 거기서 또 갑자기 박정희가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게 아니다, 박정희가 좌익 활동을 했다는 건 좌파들 포함인데 자꾸 이게 국립극단 입장처럼 되어버리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배우들 다 있는 데서. 그래서 논문이랑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죠. 책에 다 나와 있는 거다. 감독님이 옛날 공부했을 때랑 지금이랑 현대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박정희를 포함하려고 하는 연극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걱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이]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는 첫날 반응이 다행히 괜찮아서 갑자기 우리한테 시파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공동 제작이라서 시파티 안 해준다 그랬는데. 어쨌든 갑자기 시파티를 잡아줬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작품에] 관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시는 건가. 그렇게 시파티 하고 나서 또 나는 <개구리> 가 봐야 한다고, 그렇게 가셨어요. 저흰 안 심했죠.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오시기는 했는데 더 이상 박정희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셨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독일 베를린에 교류하는 도이치시어터랑 국립극단 이랑 같이 하는 작업 때문에 종파티에 못 간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종파티는 잘 준비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독님이 분명 안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다음 날 극단에 딱 들어오셨거든요. 노심초사하시면서 마당을 이렇게 걷고 계신 거예요. ‘어, 독일 간다고 그러셨는데 왜 안 가셨지?’ 했는데 바로 그날 기사가 난 거예요.

이양구 9월 12일날 독일에 가려고 공항에 가셨다가 기사가 떠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출장이 취소된 거죠.

김재열 그래서 뭐지? 했죠. 그 <개구리> 기사가... 중앙일보 ○○○ 기자였나?

이양구 그날 이제 청와대에서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예술감독님이 책임지고 연임하지 않는 걸로 정리해서 국립극단에서 보고하고, 그걸 가지고 김기춘이 박근혜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B-3-1] 그게 9월 12일 일이죠.

김재열 그래서 그때 다 알게 된 거죠. 기사가 떠서 못 가게 되셨다. 그럼 그렇게 노심초사 마

[B-3-1] 참조

[B-4]

당을 걷고 있지 마시고 방에 좀 계시지. 거기서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그때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정도는 이제 국공립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감독님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모니터링이 되신 거지. 공연 나온 거 보고, 관객들 하고 연극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신 거죠.

이양구 근데 이제 김기춘이 난리가 난 거죠.

김재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갔어요. 오히려 <개구리>가 집중 포화를 받는 바람에 <알리바이 연대기>는 그냥 물어 간 거죠.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개구리> 쪽이 더 많이 찍혔고. 집중적으로 거기만 본 거죠. 손 감독님도 사실 그 정도 됐으면 그냥 독일 가버리고 나는 모른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 가시고, 노심초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이 작품으로 다른 사업에 지원하려면 국립극단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공동 제작이다 보니까. 재공연은 해 보고 싶는데 국립극단 피디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예술감독님은 재공연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답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알아봐도 되겠냐, 그러니까 된다고 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SPAF니 서울연극제, 이런 데 내보자, 연말에 신청하는 기간이니까, 어쨌든 도장을 받긴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도장을 받았어요, 손진책 예술감독님 계실 때. 그런데 나중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대관하는 신청 기간이 돼서 그거 [허락] 받으려고 국립극단에 얘기하려 했는데, 그 때 손진책 예술감독님 자리가 공식인 거예요.

이양구 아마 11월 8일 정도에 임기가 끝나셨을 거예요.(B-4.9)

김재열 네, 맞아요. 그래서 결재 권한이 없는 거죠. 이제 최○○ 사무국장이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사무국장이 그거 내지 마라, 아르코 같은 데 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국립[극단]에서 내년에 재공연할 거다.

이양구 그때 또 상을 다 받아와서.

김재열 그랬지, 그래서 분위기가 국립극단의 업적처럼 된 거지. <개구리>의 과오를 가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지. 근데 <알리바이 연대기>는 공연을 많이 못 바뀌요. 극장도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 사무국장이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알리바이 연대기>는 또 할 거니까 다른 데 내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립극단에서 허락을 안 해준 거지. 근데 손진책 감독님이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미 다른 데 낸 게 있다 그러니까 ‘낸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부터는 내지 마라’, ‘내년에 여기서 할 거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걸 팀원들한테 상의했어요. 내년에 이런 비전을 최○○ 사무국장이 제시한다고. 그러니까 팀원들이, 그럼 ○○○가 예술감독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는 빨리 신청서를 내야

(B-4.9) 손진책 초대 예술감독의 임기는 2010년 11월 9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이며, 이후 최○○ 사무국장의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김윤철 예술감독이 임명된 것은 2014년 2월이다.

[B-4]

하는데, [예술감독은] 아직 공식이고. 그런 상태로 그해를 지나갔죠. 작품 평가는 좋게 받고. 다들 시국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어드밴티지(advantage)가 많았던 거죠. 근데 1월 초인가, 김윤철 선생님이 예술감독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출근하셨나? 박○○ 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갔는데, 김윤철 예술감독님이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초면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자리 안 맡았다, 네 번을 거절했는데’ 하시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닌데 왜 불러내셨지?’ 하면서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알리바이 연대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라인업에 있긴 한데...’ 하시면서.

오현실 아, 라인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요?

김재열 그렇죠, 예술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일단 라인업은 다 짜놓으신 거죠. 짜놓은 상태로 거기다가 수정하시는 과정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짜, 그냥 다른 극장 대관 신청하고 내다 그랬을 때 내버려 뒀으면 우리가 알아서 빠졌을 텐데. 그뻐 또 내지 말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하지 말라 그러고. 김윤철 감독님이 신작을 가져오면 그걸 해줄 테니 <알리바이 연대기>를 안 하면 좋을 거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아마 김윤철 감독님 부임하셨을 때, [이미] 문체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었을 거야.

이양구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했던 건 2013년 9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2013년 연말에서 2014년 2월로 갈 때, 청와대에서 집중적으로 국공립에서 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온 거죠.

김재열 김윤철 감독님은 부임하시고 보니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김기춘이랑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를 장악해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양구 문체부에선 이미 TF팀도 구성돼 있던 상태였으니까.

김재열 네, 그렇죠. <개구리> 끝나고 <구름>[B-5] 할 때도 분위기 안 좋았어요. 디테일하게 대본을 건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공연을 봤는데 뭐가 계속 안 맞아 이렇게. 여기 건너고 저기 건너는 흔적들이 보이고. 연출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없고 배우들만 남아서 상처 투성이더라고요. 어쨌든 <알리바이 연대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저는 배우들한테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윤철 감독님이 배우들 이름을 듣고 고민을 좀 하시더니만 자기가 생각을 다시 좀 해 보겠다고, 일단 밥부터 먹고 오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박○○ 팀장이랑 ○○○ 피디랑 저랑 식사를 하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이분들은 이미 분위기를 아신 거지. 공연이 좀 어려워진 거 같다는 걸, 예술감독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럼 공연을 이틀만 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면, 약속은 지켰다.

오현실

김재열 네, 그렇죠. 하기로 했으니까. 최○○ 사무국장은 원래 3주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우들한테 3주를 얘기해놨는데, [지금] 저한테 이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틀 발상

[B-5]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에서 대본 수정 조치 경위 참조

[B-4]

이 어디서 나왔지?’ 학교 연극반에서 연극할 때 주말 끼워서 이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빠졌으면 하는 거죠.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것도 상의를 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생각이 든 게, 우리한테 이틀 하자고 말해서 열 받게 만든 다음 알아서 빠지게 하려는 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려고 나가게 하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감당을 못하시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저게 노파심에서 오는 건가 싶은 거죠.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니 공식적으로 뭐가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바로 얘기하시니까. 손진책 감독님의 우려는 노파심에서 나오는, 미리 예측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거기서 한 방 맞고 나서 지금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결국 기간을 줄여서 올리긴 했어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열흘 정도 했나?(B-4.10)

이양구 2주 정도.

김재열 2주 정도 했어요. 그리고 또 원래 [소극장] 편에서 하기로 했는데, 편에서 무슨 워크숍을 한다고 백성희장민호극장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모양새는 옮기는 건데,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세트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딩을 더 했고. 뭔가 좋게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공동 제작이었어요. 김윤철 감독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작품 그렇게 대단한 작품으로 안 본다’, 뭐 그런 얘기. 약간 일부러 자존심 다치게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싸우려고 하는 듯한... 내가 싸워서 안 한다고 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때 ○○○ 관련한 작품을 남산(예술센터)에서 준비 중이었는데, 그걸 이쪽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윤철 감독님은 예술감독 경험이 없으시니까. 다른 극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 자기가 전화한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말씀을 막 하셨죠. 감독님은 아닌 척하면서 계속 달하려고 하셨고,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면서 버텼던 거 같아요. 알겠다고, 배우들 하고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로 따지면 다시 불러준 거니까, 배우들은 대우가 조금 괜찮아졌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재공연하는 거니까. 세트나 의상 소품 같은 건 전부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2014년 재공연 때 피디님들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공동 제작이 아니라 국립극단에서 전부 만든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상팀 분들이 의상·소품실을 다 뒤졌는데 의상이 없더라는 거야. 전부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이랑 이런 것들 주고받으면서 피디님들이랑 알게 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국립[극단]에서 직접 제작한 건 없었고 장소랑 약간의 서포트만 해줬죠, 우리가 다 하고. 어쨌든 그때는 상황도 상황이고 시국도 시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극계 어른들의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은 본인의 고뇌를 얘기하면 약간 뭐랄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헤아려서 움직여주기를 바란 거 같아요. 뉘앙스나 이런 게. 저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 같고,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B-4.10) <알리바이 연대기>는 백성희장민호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9회 공연했다.

[B-4]

어떤 논리가 나오면 ‘해명할 기회가 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또 김윤철 감독님은 아무래도 외국 번역극을 좋아하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왔던 거 같아요. 손진책 예술감독님, 그리고 잠깐 공식이었던 시기, 김윤철 예술감독님. 이 정도면 될까요?

이양구 지난번에 <구름> 얘기를 드렸잖아요. 9월 12일 김기춘 보고서가 청와대에 올라가고 <개구리>와 <알리바이 연대기> 이후에 <구름>까지 전부 다 보고가 됐죠. 사실 <구름>은 그다음 공연이긴 한데, 같은 시기에 함께 검열이 들어간 거죠.

김재열 대본 검열한 거 가지고 손진책 감독님이 지시했느니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이후에도 손진책 감독님은 저를 몇 번 부르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 2016년도, 2017년도에 ○○○ 선배하고 저를 같이 불러서 해명하려고 하셨어요. ○○○ 선배한테 전화가 와서 너 뭐 또 잘못된 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진책 감독님이]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가 안 받는다고 하신다, 라면서. 나는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닌데, 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검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독님께선 ‘자기는 검열을 한 게 아니고 예술감독으로서의 어떤 터치였는데 그걸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해인 거 같다, 오해를 풀자고 하시더라고요.

오현실 2016년, 2017년에 만나자고 하셨고, 그때 만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김재열 그게 2017년도 봄이었어요. 김윤철 감독님은 그때 ‘작가의 방’ 있었을 때(B-13-1) 저도 패널로 앉아 있었는데, 국정원 직원 만난 것도 얘기하고 본인은 뭐 최선을 다했다는 쪽으로 자기 방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연극계에 알렸어야죠. 예술감독이 연극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연극인이라면. 연극 해서 예술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정치 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때 그럼 또 올라가서 문화부 장관까지 하겠다는 얘긴데. 뭐 그렇게까지 해서 문화부 장관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학자가 됐는지, 예술가가 됐는지 예술가로서 본인의 세계도 확실히 있으신데. 그럴 때 나는 연극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출세의 장벽이 막힐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연극계 안에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분들만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정부에서 우리한테 계속 이런 걸 요구하고 있고 나는 더러워서 못 하겠다 이 얘길 해버려야 해요, 사실은. 그 정도 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신 분들인데 이후의 어떤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던 거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폭압적인 세상을 살았다보니까, 그런 시절을 살아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선생님들, 김윤철 감독님의 마지막 모습들이... 저희는 존경하고, 그 선생님들의 작품을 보고, 책 읽고 그렇게 공부한 세대들인데. 가까이서 봤을 때 저 자리에 그렇게 연연해야 하나, 오히려 최고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실췌. 사실 지금 연극계에서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오현실 사건의 전말은 시간 단위로 흐름을 파악했고, 녹취했으니 정리된 거 한번 받아보시고

(B-13-1) ②의 문헌 참조

[B-4]

여기서 마무리하실지, 아니면 국립극단에 바라는 바,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이 계속해서 바뀔 텐데 어쨌든간에 연극계를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점에서 바라는 바를 조금 더 첨언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양구

저도 이게 핵심적인 거라고 봐요. 제가 국립극단 조사를 담당했잖아요. 조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옛날부터 국립극단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극계를 보지 않고 문체부·청와대·국가정보원 이쪽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국립극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예술계 전반의 문제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출발한 단체잖아요. 저는 지금 이 작업이 국립극단이 정부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극인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 기반을 받는 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문체부를 커버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좀 전환되는 과정인 거 같아요. 문체부가 어떻게 해도 현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무게중심이 아슬아슬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연출님이 말씀해주신 사건의 전말 외에도 이런 전환기에 있는 국립극단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재엽

여기도 이사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문체부 예산을 거의 다 받아서 가는 거고... 건물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사실 [건물] 같이 쓰고 있는 거부터가 문제거든요. 모든 면에서 좀 독립해야 하는 것 같은데. 〇〇〇도 대통령 후보 되고 바로 원로원들, 민주당의 원로들하고 인사하잖아요. 연극계에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원로원이란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 원로원에서 누군가를 낙점했던 거죠. 저희들 세대 정도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랑 라인이고, 그 공연장에 가면 누구는 항상 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이지 않게 관여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김]광보 감독님 세대까지는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보여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던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원로원을 깨뜨리는 거, 결국 이사회 구조 자체가 개방적이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법인이화 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예술단체는 경영자들을, CEO를 앉혀놓죠. 그 사람들이 펀딩을 해오니까. 예술가들은 펀딩할 능력은 없는데 자리는 차지하고 싶고. 국공립 단체들이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로 이사진을 공모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진은 아무래도 연극계에 또 다른 친분이 있으신 원로분들이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정치라든지 문화 쪽 관료들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은 어떤 법인의 형식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독립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국공립에 있는 예술감독을 터치하거나, 쉽게 말해서 지지하거나 선발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옛날의 원로원들 분위기는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절충적인 면에서 민주적이어야 하는 거 같고, 쉽게 말해서 예술감독이 이사진 중 한 명이니까 이사회에서 예술감독을 임명하면 되는데 문체부 장관이 [예술감독을] 임명한다 그래요. 왜냐면 문체부 장관이 결재해야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사회에 검열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사회 내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방면에서는 예술감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좀 더 개혁이 되어야죠. 예술감독

[B-4]

이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혼자 2, 3년 동안 있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성열 감독님도 예술감독이실 때, 저희 공연 보러 오시면 우리 힘든 얘기를 들어주세요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 힘든 얘기를 더 하셨거든요.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예술감독 하고 싶어서 왔는데 행정감독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오현실

앞에 한 얘기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죠. 경영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예술만 감독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데, 사실 그 샘플이 지금 저희 안에는 없거든요.

김재엽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구조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기존에 있던 어른들 같은 경우엔 입신양명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양반들이라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나 다음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연극계 힘든 얘기들, 본인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술감독이 무슨 메시아라도 되는 양 자꾸 뭘 요구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많아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옛날같이 연극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연극 잘해서 예술감독이 되셨으니까 연극하는 사람한테 계속 존경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 같아요. 입신양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버리고.

오현실

김광보 감독님이 취임하셔서 새로운 사업 등 운영을 시작하시면서 전 예술감독님들께 인사차 연락드린거 말고는 별도의 만남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김재엽

독대할 수 있는 세대들이긴 하잖아요.

오현실

그렇긴 하죠.

김재엽

독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세대들이시니까. 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성

저희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술가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블랙리스트 이후에 더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한 국립극단의 약속 같은 걸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국립극단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작성할 게 아니라 지금 연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에서 많은 소스를 얻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국립극단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국립극단이 어떤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편안한 형식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른 예술가들, 피해자분들 것도 모아서 국립극단의 약속으로 하나 지정할 생각이예요. 물론 이게 사례집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는 저희가 앞으로 예술가들과 어떻게 지내고 연극계와 어떻게 공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채워나가려는 거죠.

이양구

어차피 피해자들 얘기 나온 걸 쪽 정리를 하면 그게 하나의 큰 근거가 될 거고, 그걸 가지고 문체부와 연계해서 좋은 사례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될 만한 좋은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재엽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런 거 안 하나요?

이양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금 블랙리스트 TF가 구성돼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부분에

[B-4]

대해서는 국립극단이 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재열 국립극단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권한이 전부였던 말이에요. 손진책 감독님은 포스터까지 다 관여하셨던 말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올해 국립극단은 사진을 안 찍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리바이 연대기> 포스터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동 제작인데 저희한테 상의를 하고 결정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우겨서 결국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까지도 예술감독님이 다 관여하셨기 때문에 피디들하고 얘기하면 ‘예술감독님과 독대를 한번 하시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김윤철 감독님은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해?’, ‘나는 그냥 셰익스피어 극 드라마터그나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예술감독의 권한이라 그래야 하나, 그런 것들이 명시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피디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준비할 수 있죠. 옛날엔 자연스러웠던 거지만, 연극계에서 전해 내려오던 전통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술감독님들이 오버하셨던 거죠. 결국 ‘사회적 기억’이라고 하는 거가 바닥에 뒹 하나 박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아 이게 그런 자리구나’ 할 수 있는. 그게 사회적 기억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상징적인 기억의 대상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공공예술이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기억하거든요. 백서 나오고 하는 거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고, 뭔가 하나 있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은 피디들도 하나의 벽으로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 정도 되면 그렇진 않아서... 잘 보면 피디들이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피디들한테 얘기해서 또 뭐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손진책 감독님, 김윤철 감독님도 인터뷰해서 원고를 받고 긴장감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뭐. 여하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쪽에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나요?

정용성 네, 지금 김광보 감독님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연극계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꼭 청산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예술감독으로 오시자마자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로 예산도 부여돼 있죠. 그리고 제가 연락드렸더니 정말 실무 차원이 아니라 직급이라든가 예술가들을 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한다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이 사회적 기억이 공표되고 시민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저희 홍보마케팅팀에서 준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들이 전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 뵈고 말씀을 듣는 게 저희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인 거죠.

김재열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사자들은 없고, 어떤 면에서는 감독님들[국립극단 전 예술감독을 지칭]이 안 계신데 국립극단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 옛날에 ○○○ 선생님인가? 1987년도에, 노태우 6.29 선언 있기 전에 검열을 했는데, 검열이 아니고 심사를 했잖아요. 이제 스스로가 그런 검열을 피해 다녔고, 도망갔고, 그런 기억들에 대한 걸 글로 한번 쓰셨어요. 그걸 못해서 그게 두렵거나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역사극만 했다고 쓰셨더라고요. 그게 참 부끄럽고 못한 행동이었다, 후배들 보기 부끄러웠다, 그런 글을 쓰셨거든요. 사실은 그

[B-4]

정도의 어르신들이시면 긴 세월 동안 지나온 잘못들에 대해 내가 증대한 판단 착오를 했다, 내가 머뭇거렸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사회적 기억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사례를 모집하고 그러는데,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푸시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억 사업을 하려면 김광보 예술감독님이 김윤철 감독님, 손진책 감독님 만나서 인터뷰하고, 글도 받고, 오해도 풀고 해야 해요.

예전에 <록엔롤>(B-4.11) 할 때였는데 이성열 감독님 오셔서 난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손진책 감독님한테 자꾸 전화가 온대요. 그때 건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어이가 없는 게, 이성열 감독님은 당시 현직 예술감독이었던 말이에요. 나름대로 공인인데. 전직 예술감독이 현직 예술감독한테 전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위의 어른들한테 직언을 못하고 있고, 비하인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자리에서는 서로가 전언을 해주고 있고, 그런 게 후배들한테 노출되고, 사실 뭐 답답했으니까 얘기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위에다 얘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사회적 기억에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무리 사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라도 요청을 좀 하시고, 인연이 소중한 만큼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드려야 하는 건데 자꾸 밑에서 보여지는 일들과, 과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위 세대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아래 세대들한테 경고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게 저로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1대, 2대 예술감독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풀려야 사회적 기억으로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양구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김재열 네, 그럼시다. 고생하셨습니다.

(B-4.11) <록엔롤>, 2018-11-29~2018-12-25, 명동예술극장, 원작 톰스토파드, 연출 김재열, 예술감독 이성열, 주최·제작 국립극단

[B-5]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에서 대본 수정 조치 경위

[B-5-1] 문건 등 자료 조사

① <구름> 공연 소개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공동각색 남인우·○○○, 연출 남인우)은 2013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됐다. 아들의 낭비벽으로 빚에 쪼들리던 아버지가 아들을 소크라테스의 학교에 보내 퀘변술을 배우게 한 후 그를 이용해 빚을 탕감할 꾀를 낸다. 말을 듣지 않는 아들 덕에 학교에 간 아버지는 소크라테스의 현란한 퀘변에 감동을 받아 정론과 사론 중 사론이 이기는 것을 보고 아들을 학교에 보냈고, 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퀘변을 구사해 채권자들을 쫓아버린다는 등의 원작 내용을 2013년 한국 사회에 대입시켜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냈다.

②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B-3-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 과장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는 “2013년 국립극단 후속 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국립극단)”(1쪽)하겠다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면서, 아리스토파네스 희극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구름>)에서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B-5.1]

[B-5-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남인우의 진술

참고인 남인우(연출가)는 위원회 조사에서 <개구리> 공연이 올라가고 난 뒤, <구름> 공연을 대략 2주가량 앞둔 어느 날 ○○○ 담당 피디가 대본을 보여 달라고 해서 대본을 봤는데, 손진책 예술감독이 예술감독 방으로 자신을 불러 풍자의 내용보다는 미학적인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 후 최○○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특정 대사에 자로 대고 반듯하게 그는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서 미안해 하면서, 빨간 줄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느냐고 물어봐서, 빨간 줄을 누가 그은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최○○ 사무국장은 대답은 하지 않고 한숨만 쉬면서 ‘이 대본은 볼 필요도 없다’고 했고, 대본 중에서 ○○○ 등 구체적인 정치인에 대해 알 수 있는 풍자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5.2]

②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에 나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등을 빼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체부에서 예술감독에게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손진책 감독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전(준) 국립예술단체 주관 공

[B-3-1] ①의 문건

[B-5.1] 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1쪽 (2013-09-12)

[B-5.2] 남인우 1회 진술조서, 6쪽 (2017-11-20)

[B-5]

연에는 정치적 편향의 내용은 배제토록 협조 요청’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5.3]

③ 참고인 ○○○의 진술

참고인 ○○○(배우)는 <구름>에 출연한 배우로,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연습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손진책 감독이 간섭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최○○ 사무국장이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남인우 연출가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5.4]

④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이 쳐져 있고, BH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했다.[B-5.5]

⑤ 참고인 최○○의 진술

참고인 최○○(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공연 연습 당시 손진책 예술감독이 자신에게 대본을 주며 ‘코멘트를 단 것이다’라고 하면서 남인우 연출가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지만 예술감독의 업무 지시를 통상적으로 전달했을 뿐 특별한 기억은 아니라고 하면서, 봉투에 받아서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어본 기억은 없고, 빨간 줄을 친 대본을 확인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개구리> 사태 이후 정치적인 소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때여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술감독의 코멘트가 담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같은 연출가로서 코멘트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미안했을 것이고, 남인우에게 대본을 전달했던 장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이 손진책 감독이 코멘트를 달아서 전달하라고 했던 그 대본을 전달한 장면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5.6]

⑥ 참고인 손진책의 진술

참고인 손진책(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공연 대본에 코멘트를 달아 최○○ 사무국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공연 대본에 빨간 줄이 쳐진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5.7]

⑦ 참고인 ○○○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을 그어서 대본을 연출가에게 전달한 일이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다만 자신이 청와대에서 ‘지금 <개구리> 건 때문에 국립극단에 걱정이 많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5.8]

[B-5.3] 정○○ 1회 진술조서, 6쪽 (2017-10-23)

[B-5.4] ○○○ 1회 진술조서, 3~4쪽 (2017-11-28)

[B-5.5] 박○○ 1회 진술조서, 5쪽(2017-12-12); 추가 진술(2018-11-19)

[B-5.6] 최○○ 1회 진술조서, 4~5쪽 (2017-03-09)

[B-5.7] 손진책 1회 진술조서 (2017-01-28)

[B-5.8] ○○○ 1회 진술조서, 3~5쪽 (2018-01-12)

[B-5]

⑧ 참고인 〇〇의 진술

참고인 〇〇〇(국립극단 피디)는 위원회 조사에서 <구름> 대본과 관련해 연습 도중 대본이 계속 해서 바뀌고 있었고 예술감독·사무국장·공연기획팀장에 대한 대본 공유는 통상적인 것이었 으며, (남인우 연출가에게) 문체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5.9)

{B-5-3} 소결

남인우 연출가가 최〇〇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특정 대사에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가지고 극 장에 찾아와서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5.2) 공연전통예술과 정〇〇 사무관이 <구름>에 나오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등 패러디 내용 등을 빼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 해 손진책 예술감독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B-5.3) 출연 배우였던 〇〇〇가 최〇〇 사무국장이 빨간줄이 쳐진 대본을 남인우 연출가에게 전달했다고 들 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5.4) 박〇〇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이 쳐져 있고, BH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B-5.5) 최〇〇 사무국장이 손진책 예술감독의 코멘트가 달린 대본을 남인우 연출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B-5.6)을 종합해 살펴보면 최〇〇 사무국장이 대사에 자로 대고 반듯하게 그 은 빨간 줄이 쳐진 <구름> 대본을 남인우 연출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진책 예술감독이 <구름> 공연 대본에 빨간 줄이 쳐진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연전통예술과 김〇〇이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을 그어서 연출가에게 전 달한 일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립극단 〇〇〇 피디가 문체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살펴봐도 손진책 감독이 최〇〇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대본이 <구름> 대사에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인지 여부, <구름> 대본에 대한 검열에 청와대·문체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B-5-4} <구름> 프로덕션의 목소리

일시 2021-08-19(목) 오후 5시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참석자 총 20명

공연 참여자: 남인우(연출), 이범석(조연출), 김옥란(드라마터그), 〇〇〇(안무), 박미령(작곡),

김은정(음악감독), 〇〇〇(이하 배우), 전영, 〇〇〇, 고영민, 〇〇〇, 이상홍

외부인사: 최〇〇(전 사무국장), 이양구(자문위원)

국립극단: 김광보(단장 겸 예술감독), 오현실(사무국장), 김옥경(공연기획팀장),

정용성(홍보마케팅팀장), 최윤영(홍보마케팅팀 과장), 변정원(홍보마케팅팀 사원)

(B-5.9) 〇〇〇회 진술조서, 4~5쪽
(2018-03-09)

(B-5.2) 참조

(B-5.3) 참조

(B-5.4) 참조

(B-5.5) 참조

(B-5.6) 참조

[B-5]

정용성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2013 년 국립극단이 제작한 연극 <구름>에서 실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공연 이후에 8년이라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는 작업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 고요. 이어서 김광보 예술감독님께서 <구름>에서 실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 과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석해주신 최〇〇 전 사 무국장님 말씀 듣고요, 이후에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보

안녕하세요. 국립극단 예술감독 김광보입니다. 제가 2020년 11월 12일부로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국립극단에서 실행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와 관련해 남인우 연출님께 국립극단으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은 적이 없 다는 말씀을 들었고, 2021년 5월 26일 남인우 연출님을 뵙고 제가 국립극단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인우 연출님께서 <구름>에 참여했던 모 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 진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후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2013년 국립극단 이 제작하고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된 <구름>에 참여했던 분들이 와 계십니다. <구름> 연습 과정 중 대본 검열이라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국립극단 예술감독인 저 김광보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더 일찍 자리를 마련하고 모셨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 각합니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도화선이 된 <개구리>를 비롯해 여러 작품에 걸쳐 지난 정부의 블랙리 스투에 따른 예술가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했고,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 스투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와 백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국립극단 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2018년 5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 극단 사과문을 발표했고, 피해자께도 직접 사과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례 별로 사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름>의 경우는 연출을 맡은 남인우 연출님께만 사 과가 전달됐고, 공연이 올라가기도 전에 대본 검열이라는 참담한 사건을 겪으신 분들 께는 직접 사과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연극 <구름>은 국립극단의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3부작 중 하나로 기획됐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이었던 <개구리>에 이어 공연 된 작품입니다. 문화예술 및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B-5]

문체부 직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에서 <구름>을 비롯한 2013년 국립극단 후속 작품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은 배제토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진행되는 시기 국립극단에서는 <구름> 공연 개막을 약 2주를 앞둔 시점에 해당 작품의 담당 피디가 연출가에게 대본을 요청했으며, 연출가는 피디에게 대본을 전달했습니다.(B-5.10) 이후 손진책 전 예술감독이 연출가를 불러 풍자의 내용보다는 미학적인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 후 최○○ 전 사무국장은 특정 대사에 빨간 줄이 그려진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서 연출가에게 빨간 줄이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겠느냐는 발언과 함께 대본에 등장하는 특정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풍자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등 사전 검열을 시행했습니다. 국립극단은 공연 연습 과정 중에 대본 검열로 인해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서 <구름> 제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대본 검열이라는 참담한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즉시 사과드리지 못하고 많은 시일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다시금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립극단은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울러 <구름>의 사례로 밝혀진 사전 검열은 다수의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달리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서 이러한 과오가 극단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 국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중요한 과제로 말씀드린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연극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해결 노력을 예술감독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하겠습니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의 후속조치를 위해서 우선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기억을 남기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립극단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제작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과 연극인들 앞에 서고자 노력하는 국립극단의 약속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립극단 운영 제도와 관련해 예술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단지 누군가가 사과하고 사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사례를 겪으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국립극단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연극을 만드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B-5.10, 편집자 주) 이와 관련해 담당 피디는 프로덕션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대본을 요청했으며, 해당 대본은 공연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내부 관계자에게만 공유했다고 밝혔다.

[B-5]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연극계의 큰 상처이자 아픔이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립극단 예술감독인 저 김광보와 국립극단 모든 임직원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름> 공연 이후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아픔을 겪고 혼란을 느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최○○ 전 사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 사무국장 최○○ 연출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최○○ 네 안녕하십니까. <구름> 사태 때 국립극단에서 실무 총책임인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최○○입니다.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일이 있었든시간에 같은 연극 제작 창작자로서 동료, 후배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참담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연극을 처음 시작했던 1980년대에는 대본 검열이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80년대에 20대였는데, 그때는 처음 연극을 시작할 때 당연히 대본을 제출해야 되는 줄 알고, 또 그 대본 그대로 공연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그제[그러한 역할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그때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고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쨌든 막아내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고,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양구 작가님 계신 조사위원회에 가서 진술을 했고요. 진술하기 위해 불러갔을 때 저도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적 기억인가, 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일 자체가 저한테는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고요, 조사할 때 좀 답답하셨겠지만 ‘그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도 기억을 해내려고 노력했고, 그 기억이 돌아오게끔 도와주신 분도 계셨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백 퍼센트 정확하게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개괄적인, 대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진상을 솔직히 아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굉장히 많은 간섭과 시기와 참견과 어깃장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제가 실무 책임이었지만 그때 예술감독님께서도 고초를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남인우 연출, 지금 바로 이 자리네요. 저 자리에서 우리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날이 정확히 며칠이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예술감독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노란 봉투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뭘니까?’ 물었더니 자기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이거를 남인우 연출에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예술감독님의 지시고, 어쨌든 두 권을 받아 들고 나왔는데, 말씀하신 순간 이게 대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뭔가가 쓰여진 대본이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구석에 가서 혼자 담배

[B-5]

피우면서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가 모시던 예술감독님이고 연극계 어르신이고 저도 연극을 하는 후배로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인우 연출에게 그것을 전달했고, 남인우 연출과 같이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역시 예상했던대로 줄이 그어져 있고, 뭐 이런 경험이었습시다.

그 당시는 <개구리> 때부터 공연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저를 비롯한 국립극단 피디들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대본이 내려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예술감독님이 제게 먼저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을 맞게 됐고요. 어쩔 수 없이 남인우 연출을 찾아오게 됐고, 제가 거기서 그것을 알아서 없애버리고 해명했어야 되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에 대해서, 아마 저도 제가 싫어서 그 기억들을 스스로 지웠던 것 같습니다. 남인우 연출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창작자이고 연출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온다는 거 자체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든 공연이 갈 수 있게끔 해 보자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남인우 연출에게 이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남인우 연출이 충분히 그걸 같이 본 다음에 본인은 받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얘기하셨고, 저도 그 말을 듣고 대본을 들고 국립극단 밖으로 나가서 어느 쓰레기통에 집어던졌던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시다. 어쨌든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 거기서 제가 정리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창작하고 예술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많은 아픔과 어려움, 그렇게 하면 안 됐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성 네. 국립극단 예술감독님과 최○○ 전 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우 연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시작해주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괜찮을까요?

남인우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예술감독님, 큰 용기 내주신 최○○ 전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는 건 너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이상하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떨려가지고, 작년에 서울연극센터 웹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쓰다가 도저히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고료를 도로 돌려주고 더는 못 쓰겠다 했던 글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읽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2017년 이양구 작가님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11월 30일 날 밤 11시 30분, 광화문 KT 건물 십몇 층이었죠.

이양구 12층에.

남인우 네. 12층에 들어가서 자정이 넘도록 문체부하고 안기부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공문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놀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걸 왜 이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B-5]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 전 사무국장님하고 그날 저기 서서 얘기했어요. 저 난간에, 지금 저도 막 기억이 나네요. 그다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미리 써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23일 국립극단 공연을 2주 앞두고 문자가 오기 시작한다. 미학적 조인들이 쏟아진다. 당연하다. 좋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저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인들이 쏟아지는 시기다. 그런데 다른 때랑 다르다. 좀 집요하고 구체적이고 너무 많다. 전 공연 <개구리>가 좀 시끄러웠던 탓인가 은근슬쩍 피디들의 한숨이 들린다. (이건 일종의 저의 사적 보고 글이기 때문에 글이 좀 사변적입니다.) 나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 장면이 정말 싸구려인가? 이거 정말 이상한가? 예술적 가치가 없나? 배우들은 웅성거린다. 또 호출이다. 난 내 의도와 장르를 설명하러 국립극단 사무실로 향한다. 난 잘하고 싶다. 난 어떻게든 잘하고 싶다. 난 잘 보이고 싶다. 아 근데 좀 나 좀 내버려 두지. 내가 알아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마당에 모여 있다. 누구는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누구는 화가 나 있다. 수정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이거 내용이 뭐였더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나 안 하기로 했나? 나도 헛갈린다. 배우들이 연기할 때 정치인 패러디 하지 말라고 해야지. 누가 자꾸 연상되게 하면 연극이 너무 B급 되니까. 배우가 ‘원래 B급 용어로 해 보자고 한 거 아닌가?’ 그럼 제가 ‘에이 그렇다고 진짜 B급이면 어떡해, 격식이 있어야지. 세금 가지고 그러면 되나.’ 나와 그녀 사이에 이러한 실랑이가 진행된다. 내가 지금 뭘 소리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극장 셋업이 시작됐다. 대본이 하도 바뀌어서 큐가 어떻게 되는지 헛갈린다. 누군가 나에게 매우 슬프고 난처하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말을 건넨다. ‘남연출 이거 이 대사 말이지 좀 안 되겠지?’ 서로 눈을 맞추기 싫어서 멀뚱거린다. 그의 손에 들려 있는 대본을 보며 한숨을 푹 내뿜는다. 진한 담배 냄새… 언덕아 세 대 이상을 피신 것 같고, 고개를 살짝 돌려 나도 그 난처함의 원인 제공인 대본을 본다. 며칠 전에 드린 수정본이다. 보인다. 아주 정갈하게 그려져 있는 밑줄… 빨간 줄, 굉장히 많은 부분 빨간 줄이 정갈하게 밑줄이 쳐서 왔던 기억이 남는다.”

그때 기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장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난처해하고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 기억에 남겼어요. 그 담배 냄새 하며, 막 손도 부들부들 떠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때 이런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해요. 이거는 사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게 벌어진 일이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는 저의 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계속 이어 가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문체부에서 공문이 발견됐는데 내가 국립극단에서 2013년에 각색하고 연출했던 <구름>에서 윤창중을 패러디하는 대사를 삭제 지시할 것이라는 요구가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그걸 조치했다는 내용의 공문이 한 차례씩 오갔다는 것이다. 묻는다. 대본을 수정했느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선명하게 남은 기억은 내가 잘 보이고 싶었다는 것과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7월 6일 손진책 선생님께 “니가 양구한테 빨간 밑줄 친 대본이

[B-5]

있었다는데”라고 시작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양구 작가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 나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걸 당사자한테 내가 말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 연극관이 얼마나 좁은데 그분들도 그때 너무 힘겨웠고 상황이 복잡했다고 말했는데. 나만 여기서 고자질하게 만드는 거냐. 내가 그분들 얼굴 어떻게 보고 사냐, 혹시 오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이렇게 제가 항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양구 작가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꽤 구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셨어요. 이것도 역시 김광보 감독님께서 백서를 살펴보면 나온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13년에 9월 3일 <개구리>가 오픈되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합니다. 6일? 7일? 맞죠? 네 맞습니다.

이양구

그리고 9월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개구리>는 용서가 안 된다고 했고, 9월 12일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가기 시작하고요. 같은 날 <구름>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돼 문체부로 내려옵니다.

남인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면] 작성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대책을 보고 하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작성해서 김기춘을 거쳐서 박근혜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이양구

네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2018년 10월 6일 오후 8시 40분경에 대학로 사무실에서 손진책 전 예술감독님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손진책 예술감독님께서 그런 일이 없었고, 어... 내가 본 것은 잘못됐고, 만약에 내가 본 게 맞으면 내가 ○○이한테 물어볼 거야. 이런 투로 얘기했습니다. 2018년 11월 이때가 아마 아르코에서 주최하는 무슨 페스티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손진책 감독님이 <돼지우리>라는 작품[을 공연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최○○ 전 사무국장님께서 작품을 하나 하셨죠. 그때 연극인들이 블랙리스트를 사과하지 않고 이런 걸 올린다는 것에 대해, 아르코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항의했고, 그것 때문에 손진책 감독님이 저한테 ‘내가 어떻게 연극계를 일궜는데 후배들이 나를 연극을 못 하게 한다’ [그러셨죠.] 그래서 2018년 11월 어느 날 대학로에서, 손진책 감독님을 비롯해 몇몇이 모여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손진책 감독님은 연임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재임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문체부 과장이 그날 방문은 했지만 통상적인 대화만 했고 절대로 문체부로부터 억압을 받은 적이 없다, 빨간 밑줄 친 대본은 전혀 모른다, 봉투를 전달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이 ○○이의 손에 달렸다. ○○이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 내가 ○○이에게 말하겠다, ○○이가 봉투를... 봉투를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대략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맞죠?

이양구

네, 그 뒤로 한 1년쯤 지나서 2020년 12월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죠. 손진책 예술감독님께서 ‘범인을 잡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구름> 공연 후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고요. ‘네가 그렇게 아팠다는데. 정말 압력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모를 리가 있겠냐. 추적을 해 보겠다. ○○○가 입을 다무는데 별 수가 있냐. 내가 추적을 해 볼 테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수정했던 대본들을 다 나에게 달라’며 손진책 감독님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

[B-5]

때 저는 덴마크 극단과 협업차 해외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던 거라 메일을 드렸니다. 감독님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선생님 제가 급하게 덴마크 오면서 당시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들고 왔는데 여기엔 <구름> 자료가 있지 않네요. 다 지웠나 봐요.’ 사진만 있더라고, ‘제가 메일함을 뒤져서 두 개의 <구름> 대본을 보내드립니다. 조연출이 당시 대본 앞에 버전이 수정된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9월 4일 부분이 아마 막 취합해서 정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은 삽입하거나 수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대본이요. 아마 날짜로 봐서는 문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극단에서 대본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 대본으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일이 대본을 보시면서 수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이 존재했으며, 최○○ 전 국장님을 통해서 당시 연출가였던 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즉 명백하게 국립극단이 관료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관료들은 모른다고 하고 최○○ 전 국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니 그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언젠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당시 일을 생각하기도 싫고, 상황이 점점 뭔가 곤란해져도, 이 생각을 하면 사실을 정리하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도 정진하고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더 짧게 오셨습니다. ‘알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없었고요.

2018년 12월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날치기 사과를 했죠. 그리고 도중환 장관이 교체됐고, 법률과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교수로 임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왜 쓰려고 했냐면, 2019년 1월 민주당 대표가 당시 명동을 시찰하면서 명동예술극장을 케이팝 공연에 오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주의 한 미술관 예술감독이 사퇴했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미술관을 관리하던 중앙 조직의 관료들과의 충돌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검열과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청와대와 비서실장·정무수석 같은 독재적 발상을 가진 한두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한두 사람의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열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동예술극장을 한류 케이팝 스타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툭 던지고 간 모 당대표의 발언 때문에 문체부 관료들과 그 관료들의 관리를 받는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당시 이성열 예술감독이었습니다.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걸 기사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걸 쓸 때만 해도 최○○ 전 사무국장님이 저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최○○

네. 그런데 2020년 4월 23일 최○○ 전 국장님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작년입니다. 제가 여기[서계동 국립극단]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 한번 만나자.’ 그러셔서 4월 28일 오후 6시에 근처 카페에서 만납니다. 물론 시간은 굉장히 지났지만 굉장히 헬썹해진 감독님을 보자마자 제가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 요지는

남인우

‘왜 연극인들끼리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였습니다. 최○○ 전 국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기억이 난다’, ‘네가 봤던 부분이 빨간 밑줄 친 게 맞다’ 제가 거기다 대고 ‘그쵸, 파란 밑줄 아니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2017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공문이 오셨던 그 모든 과정을 듣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 ‘맞아 빨간 밑줄 된 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 기억이 맞는지 많은 분들에게 물어왔어요. 그때 저를 따로 사무실로 부른 것도 아니고, 테크니컬 리허설 중이었는데, 아마 그것도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라, 이랬던 일을 좀 보라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안 보이는 곳에서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스태프들이 그 모습을 봤고... 잘 보이고 싶은 제 욕망이 만들어낸 행동을 봤을테고, 그 행동들 때문에 배우들에게 피치 못할 불편을 드려서, 저도 크게 사과드립니다. 그날 제가 대본을 받지 않았던 건... 이대로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21년 5월 26일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국립극단 측에, 물론 그전에 예술감독님과 사적으로 만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만 해도 손진책 예술감독님께서 완강히 부인하시고, 최○○ 전 국장님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성열 예술감독님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백서가 사실이라면 사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 알려주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달라. 지켜지지 않았고요. 다시 제가 재차 [김광보 예술감독님과] 사적으로 만날 때 말씀을 드렸고,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모임 때 재차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야 조금 용기 내서 말한다면, 제가 그동안 왜 이 이야기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전달했던 분, 전달하라고 명령했던 분, 그분들이 어떤 경로로 이것들을 전달했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제 기억이 왜곡됐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는 두 연극계 선배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 그것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전 사무국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오셨겠지만, 진짜로 사과하셔야 될 일은 그때, 대본의 빨간 밑줄 관련해 힘들게 저하고 얘기했던 그때, 그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하지 않고 2017년부터 꾸준히 전 예술감독님과 다른 동료로 이 검열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았던 후배들, 물론 거기에는 최○○ 전 사무국장님을 포함합니다. 그런 분들 편에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 그 일이 예술감독님의 예술적 조인인지 정치적 검열 행위인지 구별할 수는 없었지만, 저도 어떤 것은 따랐고 어떤 것은 거부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이것에 대해 용기냈던 이유는 국립극단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관료들에게 혹은 재정적 독립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예술적 관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거기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해요. 내주지 않으셨던 그 2년간이 저는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진

실을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격앙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구름>은 공연 끝나고 서로 연락도 잘 안 했고 저도 거의 다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저도 참 연락하기 힘들었어요. 그때가 딱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냥 아 좀 그래... 그래... 그래서 에이 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오늘 저도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이제야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죄송스럽고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 남인우 연출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손 예술감독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저를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수사하셔서...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기억을 해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해주신 분이 사실 손 예술감독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그 순간들이 모두 기억나는 순간에 손 감독님한테 문자로 말씀을 드렸고, 그날 이후로 저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나자는 얘기도 없으셨고, 연락도 안 하시고, 아무튼 얼마 후에 제가 남인우 연출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노력한 거는 전혀 없었고요. 아무튼 그 기간이 길었다는 점, 제가 기억해내지 못했다는 점, 제가 그걸 지워버리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인우 저는 우연히 손진책 예술감독님을 또 만났어요. 두 달, 세 달 전에. 두 달 전인가 저한테 ‘우린 따로 정리할 내용이 있지’라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만 하시더군요. 뭘 정리하시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홍 저 전에 하던 얘기가 있어서 하고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그런 대본이 오고 갔는지는 몰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주신 예술감독님과 전 사무국장님과 대본을 받지 않은 남인우 연출님한테... 아무쪼록 저는 그 대본이 오고 갔다는 건 몰랐지만, 혹시 배우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가 리허설을 할 때, 손진책 예술감독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저희에게 대사를 수정하라고 하셨던 순간이 기억이 나요. 저도 다른 데서는 꽤 열렬히, 그런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제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저희 팀 그리고 저희 공연, 그리고 저는 남인우 연출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커리어에 제가 아주 큰 동질을 할까 봐. 비겁하게 저는 숨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이죠. ○○○와 남인우 연출님께서 편에서 작업하셨을 때 공연을 보러 갔는데, 또 희한하게 그날 이야기를 ○○○와 하게 됐어요. 그날 그 비겁함은 저도 좀 잊혀지지 않는 제 수치스러운 기억인데. 저는 답답한 게 그전부터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검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뭐라고 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당사자분들이 사과를 안 하고 이성열 전임 감독님께서 사과를 하시고 왜 김광보 예술감독님께서 사과를 하시는지. 저는 그 대본이 오고 간, 전 사무국장님께서 남인우 연출님한테 [대본을] 준 그것조차 몰랐고, 저는 사실 그 사과에서 해당이 없다고 봐요. 제가 비겁한 건데. 제가 받고 싶

[B-5]

은 오늘의 사과를 사실, 저기 객석에서 저희들의 대사를 실제로 검열하셨던 손진책 감독님의 그 발언에 대한 사과를, 저는 당사자한테 듣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사과하고, 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사과를 받죠. 저는 그냥 되게 좀 어린애같이 단순하게 손진책 감독님이 그때 거기서 저희한테 대사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 이런 대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그게 풍자가 안 되냐?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해.’ 그렇게 말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냥 감독님이 사과해주세요. 그전에 대본 때문에 힘드셨던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거는 그냥 직접 좀 사과를 받고 싶어요, 감독님. 이런 말을 조금 건방지지만 저는 그런 사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뭐 8년이라는 시간이... 여기 오면서 좀 많은 생각이 났고, 아까 연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났는데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도 있었지만, 그때 제가 그래도 중심인물을 맡다 보니까 선배였는데, 그날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전임 예술감독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있냐고. 아직 안 간 줄 아니까 당장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갔죠. 갔는데 저한테 많은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건 생각 안 하는데, 연출에 대해서 묻고 연습 방향에 대해서 묻고 대본에 대해서는 묻고, 너는 선배가 돼서 후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인도를 해야지 그걸 방관만 했냐고 저한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저는 배우고,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려도 후배인데, 연출이고, 후배가 연출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배우가 그럴 건 아닌데... 그 말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인지, 아니면 단지 외압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었는지. 그때 황당한 얘기를 듣고 스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몇 년, 한참 후에 다시 손진책 감독님한테 전화가 와요. 그때 당시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니? 어떤 마음이었니? 그때 연습할 때 배우들한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배우들은 어떻게 생각했나면서 묻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저한테 확인차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화가 오고 불쾌했어요. 불쾌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구름> 하기 전에 이미 <3월의 눈>이라는 작품을 선택해 감독님처럼 계속 해마다 지방 공연도 해왔던 백역인데 <구름> 이후에 제가 배제되고 작품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갔었고, [공연이] 끝나고 ○○○ 작가를 만나서 ‘몇 월에 일정이 있느냐’, ‘일정이 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됩니다’ [했더니] ‘빼놔라’ [그러셔서] 일정들을 다 빼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제가 작품에서 다 빠지니까 그것[<구름>] 때문에 어떤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그 상황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전임 예술감독이 있었으면 그때 저한테 불러서 아까 말했던, 선배로서 후배의, 그 작품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끌지 못했다는 말이 그게 그냥 이분의 생각인지 아니면 또 어쩔 수

[B-5]

없는 부분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문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로 많은 배우들이 저한테 ‘안기부에 끌려갔다면서?’ 하는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전영

저는 오디션 보던 날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1차 지정연기를 보고, 2차 오디션으로 정치인 패러디를 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독특하다, 뭔가 이 패러디를 가지고 재미난 것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대본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이 오디션을 끝으로 배우분들이 각각의 기량으로 너무나도 재미나게 패러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습이 내내 재밌었고, 공연이 되게 실험적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건 배우로서 적응하기는 힘들었고, 배역을 찾아가기도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긴 해요. 특히 공연 직전의 막판 2주는 연출과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집중을 요하는 시기인데, 그때 연출이 늘 배우 곁에 있지 않았어요. 늘 어딘가에 가 있었고, 늘 불안해 보였고. 저는 그때 여배우 중에 나이가 좀 있는 편이어서 연출이 [나에게] ‘지금 나 뭐 어떻게 좀 해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 빨간 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쓱 지나가듯이 했던 기억이 있고. 아까 상홍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진책 감독님이 저희 연습을 보면서 ‘이 대사 바뀌’, ‘이런 거 이상해’ 한 것도 생각이 나요. 저희 원래 ○○○ 선배님 첫 의상이 빨간 내복이었어요. 그런데 빨간 내복을 ‘야! 국립에서 어떻게 천박하게, 빨간색이 위협적이잖아’ 하면서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딱 생각했을 때 내복은 빨간 내복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게 빨간색이라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밖에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라 부라 첫 잠옷이 바뀌었었거든요.

우리가 <구름> 공연을 들어가기 전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개구리>에서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국립극단 앞 마당에 바리케이드가 막 2, 3개씩 쳐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전쟁터에 오는 것인지 공연을 하러, 예술 작업을 하러 오는 것인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다들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남인우 연출도 고생이 많았겠지만 본인도 잘 보이고 싶었고, 거역할 수 없었던 어떤 지점들이 있었을 거고, 최○○ 전 국장님도 마찬가지. 손진책 감독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던 것이 상충하면서. 배우로서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완성도 있는 2주를 보내자 하는 시간을 저희는 굉장히 혼돈의 시기로 보내면서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와 배우들끼리 쳐다보면서 격려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도 이거 바뀌라 저거 바뀌라 그래서, 큐사인 맞추고 이런 것들이 안정되게 공연을 올렸다가보다는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공연에 대해] 기대를 안고 시작했어요. 되게 재미난 공연이 탄생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뜻하지 않은 일들로 많이 양보해야 했고, 많이 포기해야 했고. 이렇게 했던 상황들이 마음이 아팠고, 그런 것들을 피디님이나 남인우 연출한테만 ‘그때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았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상홍이처럼 ‘어? 이거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아무도 ‘왜요?’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점이 그렇

[B-5]

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연습을 해야 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인우 왜 당한 우리가 수치스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당한 걸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김옥란 저는 어떤 경우인지 판단이 안 돼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고요. 일단 늦었지만 8년 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오래간만에 뵙지만 저는 초기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인우 연출님께서 많은 기회를 열어주셔서, 오디션에서부터 함께 뭔가를 하면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좀 궁금한 게, 저는 초반에 배제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당황스럽고, 대본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대본을 만들어보자, 하는 초기에 담당 피디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줄 것을 요청하셨고요. 저도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빠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했어요. 앞에 <개구리>가 그런 게 있어도 그때 당시에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남인우 연출님께서 왜 우리끼리 수치스러워하고 왜 우리끼리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상한 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남인우 연출 하고 제가 작업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게 [배제의] 이유였어요. ○○○ 피디님께서 관찰하시기에. 그래서 그만 하차를 요구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지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남인우 연출님은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국립극단하고 떨어진 대학로 혜화로터리 쪽에 손칼국수라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 가봤는데, 유명한 칼국수 집이라고 하고, 별도의 방으로 따로 더 들어갔어요. 그때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도 저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남인우 연출과 저의 작업 스타일이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제가 국립극단과 팀에 누가 될 수 없으니 빠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하차한 거죠.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작동이 시작됐는지, 마지막 빨간 줄 대본이 나오면서부터 뭔가 본격화되는 거라는 것은 조금씩 알겠는데, 저의 경우는 아주 초기거든요. 그렇다면 아주 초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피디님께서 정말 보기에 예술적인 지향이 다르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죠. 제가 다른 팀에서는 하차한 경우가 없어서요. 공연을 보러 오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첫공을 보러 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많이들 좀 어수선했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는 블랙리스트 백서에 <구름>이 있길래 읽어봤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알게된 거죠.] 그럼 나는 아주 초기에 배제된 건데, 어떻게 되는 거지? 무슨 케이스인지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B-5.11)**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특정한 누군가가 전임하거나 예술가, 문체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계통에 따라서만 이뤄진 일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B-5]

였거든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셨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말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자리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늦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까 김광보 예술감독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재발 방지인 거죠.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탓이지만, 이게 어느 단계의, 어느 수준에서라도 인지해야만 하는 문제이고, 각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건데 전혀 걸리지 않고 공연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남인우 오늘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 인거 같아요.

○○○ 아마 그때 공연 올리기 얼마 전에 영국으로 출장 간 적이...

남인우 올리고 나서 아마 일주일.

○○○ 그러면 제가 기억이 틀렸는데, 공연 올리고 나서 많이 불러갔어요. 제가 이제 총대 매서 대표로. 그래서 아니 이런 말을 배우인 내가 어떻게 하지 [싶었죠.]

남인우 그 뒤로 잠깐 대학로에서 만났을 때, '나 공연에서 전부 배제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2017년 이전일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설마 그럴 거라 생각도 안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니 설마 그럴까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잠깐 나요.

○○○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남인우 그렇죠.

○○○ 미리 그 기간에 다른 공연 다 거부하고 기다렸는데 저만 쪽 빼고 하니까. 내가 그때 <구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는 건가? 뭐 그러면 나도 블랙리스트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좀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지금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전화를 주셨을 거예요. 손진책 예술감독님이 기억이 흐릿하대요.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흐릿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내용인지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화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통화 이후로 불쾌했던 기억[이 있어요.] 무언가를 무마하려는 듯한, 내가 그때 당시에 너희들한테 그랬던 건 정말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한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네요.

(B-5.11, 편집자 주) 이와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한 피디는 당시 공연기획팀장의 권유와 남인우 연출가와의 상의를 거쳐 드라마터그의 하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출가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각색자가 프로덕션에 함께하고 있어 특별히 드라마터그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김옥란 드라마터그와의 작업이 처음이라 그 밀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담당 피디는 연출가와 전화 통화를 통해 드라마터그 작업을 중단하는 건에 관해 허가를 얻었고, 이후 김옥란 드라마터그와 만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그 장소로 서계동 국립극단이 아닌 대학로 근처 외부 공간을 택한 것은 드라마터그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5]

○○○ 저는 당시에 좀 젊은 배우에 속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뭔가 되게 불안하게 흘러간다는 걸 리허설이나 연습을 통해서만 알았던 사실이고 자세한 거는 전혀 몰랐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연출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신지는 몰랐고, 같이 작품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한 것 같고, 지금에서라도 좀 알게 돼서 생각해볼 수 있어 뜻깊은 자리인 거 같고요. 또 오늘 뵙게 되서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지... 그렇습니다.

김광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홍 배우도 전임 손진책 예술감독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 배우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이 된다고 하는 건 지난 11년간의 역사를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0년 11월 10일부로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기 이전의 역사는 제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손진책 감독님도 계시고 김윤철 감독님도 계시고 이성열 감독님도 저에게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년간의 역사에서 이뤄진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역사를 제가 이어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해결된다고 장담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난 역사의 모든 것과 더불어 지금 이곳 현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인우 저는 오늘 새롭게 안 사실도 많아서 좀 놀라운데, 말씀 안 하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시면 어떨까요?

박미령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연극 음악에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그 뒤로도 연극 음악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연극계가 굉장히 갑갑하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디폴트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네요.] 사실 그때 극장 감독님이란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 2주, 그때 아버지 배우분이 하셨던 첫 번째 노래 생각나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마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간 내복에 트로트를 시작하는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윗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 원작 가수를 너무 싫어해서 바꾸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예 노래 자체를 통째로 바꿔라 그래서 그거를 트로트가 아니라 포크로 바꿨나. 그 정도로 바꿨던 것 같아요. 네, 이 생각이 나고요. 저는 사실 뒷정리하면서 남인우 연출님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시는 걸 많이 봤어요. 마당에서 몇 번이나 봤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대본 검열을] 알게 됐던 거 같고요. 사실 배우분들이 계속 리허설 하시면서 정말 처음에 뽕뽕 터졌던 कै감 있던 대사들, 그런 연기들이 갈수록, 그러니까 대본 수정이 들어가면서 너무 아쉽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남인우 연극이 원래 갑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아시니까 이제 작업 많이 해주세요.

김은정 저도 사실 기억을 많이 남겨놓는 사람도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작업이 되게 재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남인우 연출님이란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해 봐야 되나, 이렇게 움직여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공연을 앞둔 사람들로서 당장 공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B-5]

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보던 어떤 상황들이 제가 있던 그 순간에 진행이 됐고,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얼추 짐작은 했지만... 네. 무언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남인우 그때 생각 저도 지금 또 나네요. 그래도 우리가 ‘쇼 머스트 고 온(Show Must Go On)’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죠.]

박미령 그 당시에 고쳐라, 뭔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뭔가 ‘천박한’, ‘짜구려’, ‘B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작품을 폄하하면서 고치게끔 하셨던 거에 굉장히 화가 나요. 사실 목적은 다른 데 있었는데...

남인우 핵심을 찔러주셨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손진책 감독님이 저한테 이 작품을 의뢰했을 때는 30대만의, 그때 제가 30대니까. 30대만의 B급 정서를 마음껏 펼쳐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피디들이랑 대학로에 가서 B급 코미디를 보기도 하고, 나 B급이 뭔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B급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엄청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짜구려인가? 우리가 그렇게 못하나? 근데 우리 그때 너무 좋았고, 재밌었는데, 만드는 과정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제가 아마 ○○○ 선생님 처음 봤을 때도 B급 코미디 그런 말 하고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 저는 어떤 권력이 한 개인한테 얼마나 큰 아픔과 무기력함을 주는지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한 것 같고요. 연출님은 공연을 하면서 되게 많이 아팠고, 그러니까 <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 현재까지 남인우 연출의 건강 상태를 계속 봤는데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에 너는 왜 이렇게 아프니, 도대체 언제부터 아픈 거니,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구름> 이후부터 엄청나게 고향압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이양구 작가님께서 백서를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제가 또 그날 공교롭게도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대본을 남 연출님한테 전달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뒤에서 봤어요. 뒤에서 무슨 감정이지? 둘 다 너무 난처해 하는데, 저 뒷모습, 저런 모습은 뭘까? 그때 그게 되게 강렬하고, 저한테는 아직도 너무나 선명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남아 있어요. 그때 남 연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신다, 나는 기억이 나는데, 나는 그걸 다 봤는데’, 그냥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구나. 그런 곳이 한국이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이 더 나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 예술가로서 모든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게 예술가인데, 예술가 자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8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러한 생각까지 계속하게 되면서. 어떤 때는 왜 춤을 추고 있지, 왜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또 없지 않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나 사소한 것이라도 이제는 용기 내서 이것이 꼭 어떤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일상의 어떠한 지점에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사

[B-5]

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거 같아요.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영민

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동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야 구름같이 사라졌어 너희들, 앞으로 국립[극단]에서 5년 동안은 절대 무대 못 설 거야’ 이런 얘기를 너무 장난식으로 하는 게 제일 큰 상처였거든요. 그 뒤로 엄청난 긴 기간 동안 부침을 겪었고, 5년까지는 아니지만 4년 정도 겪었는데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구름> 팀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 국립[극단]과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여튼 저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국립[극단]과 연이 없다는 생각에 매체 쪽으로도 갔다가, 거기다 마찬가지로 배나라 감나라 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많이 허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정신차리기 시작했고요. 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척할 수 있는 일까지 하게 됐는데, 제가 스몰아홉에 너무 영광이죠, <구름>이라는 [작품으로] 백성희장민호극장에 서게 되면서 기본도 상당히 좋았어요. 책임감으로 했는데, 다들 힘들어 하셨어요. 선배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힘이 될 수 없고 제가 ‘뭐예요?’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없고, 해결해줄 것도 아니면서, 제가 정말 막내 축에 속했으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동료들이 국립[극단] 오디션 내지도 마라, 너희는 참여 작품 <구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거기 분들이 전부 다 정년퇴임하지 않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농담들을 막 했죠.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진짜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됐고, 조금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했는데, 다음주에 외국으로 가요. 요즘 들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과거 연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들을 계속 돌이켜봤는데, 이제 스몰아홉의 <구름>이 또 한몫하셨고요. 그런 선택과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 좋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도 늦었지만 어렴풋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는 막내급에 속하는 제가 봐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오늘 이렇게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간 고생해주신 연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그리고 자리 마련해주신 분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영민 배우의 말, 그러니까 구름처럼 사라진 게 아니라 구름처럼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오디션으로 처음 국립[극단] 공연 <구름>에 출연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 연출님도 청소년극 <소년이 그랬다>(B-5.12) 빼고 그때가 첫 작품이었고, 그래서 아마 아까 이제 잘해야 된다, 잘 보

(B-5.12) <소년이 그랬다>, 2011-11-24 ~ 2011-12-04, 백성희장민호극장,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선보인 연극이다.

[B-5]

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른 배우들도 모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또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서로 또 되게 잘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또 작품 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진행되고 계속 불려가고 배우들은 또 그것까지 연출한테 불만이 쌓이고 과정이 순탄치 않으면서 국립[극단]에서 공연한다는 게 어떤 명예 같이 여겨지는데 그런 거 말고 좋은 게 별로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립[극단]에서 공연한다는 게 별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여기서는 구름처럼 사라져 줘야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날 안 불러 주네 이런 생각은 잘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남 연출님과 개인적으로 같은 극단에서 계속 작업을 해오면서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남 연출님의 고민 속에 공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오늘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고, 같은 공연에 참여했으면서도 저는 그게 되게 남 연출 개인의 어떤 이야기라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새끼 나쁜 새끼야’ 이런 식으로 같이 동조하고 같이 욕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네’ 이렇게는 했지만 이런 자리나 외부적으로 어떤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남 연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나 사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되고 공식적으로 외부에게 알려져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 선생님이 무기력[하다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이거는 전 대통령이 자꾸 떠올라서, 잘 살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과는 커녕 잘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제가 이곳에 같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 제 목소리를 냈어야만 했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인우

예를 들면 나도 ‘이거 좀 조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얘기가 들어와. 그럼 일단 내가 다 눈치를 채야 해. 근데 말하기가 이상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도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밖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예술감독이 따로 불려서 밖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좀 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범석

저만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아침에 교수님께서 카톡을 주셨는데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고, 죄송합니다. 늦게 서야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연출로 있으면서 남인우 연출님께 배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같이 으쌰으쌰 잘 만들어보자 했던 어떠한 초반 연습 단계의 분위기가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뭐라 그럴까요, 패가 갈리는

[B-5]

느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불만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터지고 나니까 수습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연 중간에도 배우들 대사가 막 바뀌었어요. 대사가 바뀌고, 어제 했던 캐릭터랑 다르게 의상도 없고, 대사가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연이 진행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건 국립극단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작품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방향들이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건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힘든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오늘 오는 것도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당시에 있던 실무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해명을 하겠다는 자리고, 아 뻔하겠다, 그냥 가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잊지를 못했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미안하다는 사과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리고. 그때 어떻게 했었다 그런 얘기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했고요. 그 얘기를 듣기도 힘들 것 같고, 1년 전쯤인가 얼마 전에 <구름> 공연 이후에 한 5, 6년쯤 지나고 같이 참여했던 배우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 배우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졸업 이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대학로에서 공연도 못하고 오디션을 봐 봤자 떨어지고, 개인의 문제인가 많이 고민을 했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름>이] 블랙리스트 작품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왜 오디션이 잘 안 됐는지 이유를 그쪽에서 한참 찾았다고, 아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구름> 이후에 배우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는지.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문체부에서도 그렇고, 국립극단에서 예술감독님과 시스템에 있는 행정적인 사람들이 공연을 만들어온 예술 창작자한테 반응하면서 지금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 후로 국립극단에서 시스템 변화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의 관여가 어느 정도의 역할로 작품에 제약과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예술감독이니까 작품을 잘 만들 수 있게 작품을 도와주고 하는 게 일이지만, 그것이 좀 잘못된 방향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이 자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는 좋은 시간이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었고 미안하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과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획한다, 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백서를 만들고 대비하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남는 자리인 거 같긴 하고요. 이런 자리가 안 만들어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만들 수도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성 감독님. 지금 조연출님 이야기에 대해 예술감독님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감독님 취임하신 이후의 국립극단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보 오늘 이 모임 자체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B-5]

취임하고 난 후에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임하고 처음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를 할 때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르는 사실도 다시 알게 되고, 마음이 되게 참담합니다. 여러 분들에게 치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도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이 되고, 사례집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식의 하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불러가서 제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K 블랙리스트, BH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진흥회 최종 12인 블랙리스트 등에 다 포함돼 있거든요. 전 블랙리스트 당사자인데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극단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양구 위원님을 만나고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립극단에 동행하면서 내가 받았던 그 충격, 그 지점들이 국립극단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고요. 제가 지금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렇게 진행한 방식으로라도 치유를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사례집 발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남인우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릴 사항은 공식적으로 <구름>에서 검열이 있었다는 것. 명백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백서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상에 국립극단 이름으로 [얘기해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이게 계속 언급되는 전 예술감독님 한 분의 일탈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끝까지 잘못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부인하시고, 모든 책임은 후배들에게 돌리고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하신 일인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국립극단의 구조적인 문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립극단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재발 방지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치료가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연극계를 위해서 사실 이 힘든 기억들을 끌고 오셨는데, 그 이유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나 문체부에게 우리의 의지가 표명돼야 되는지, 이 사태를 지금의 국립극단이 얼마나 엄중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구름>의 사례가 국립극단에, 앞으로 독립성의 방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써주세요.

김광보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례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공론화시키겠다고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립극단의 자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10개월 됐는데요. 좀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흘렀고 정보도 바뀌었고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앞

[B-5]

서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까지 국립극단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국립극단이 원하는 지원으로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그러나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집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말씀하신 부분들과 지나온 역사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양구 오늘 저는 들으려고 온 입장이라 말을 하는 건 좀 아끼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남인우 연출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공개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알려달라는 얘기를 하신 거라서, 사례집 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옥란 선생님 사례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날짜가 언젠지 나중에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당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5일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좌석향 예술가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지시했고, 국가정보원이 실태 조사를 보고한 게 8월 16일이거든요. **[A-3-1]** 그러니까 아마 가장 빠르면 8월 5일 이후에 스크린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확인된 거는 <개구리>, 그러니까 공연이 9월 3일부터니까 확인이 되는 거고, 청와대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 9월 5일, 6일, 이때니까요. 그런데 이 사안을 바라볼 때 저희가 지금 드러난 것들은 굉장히 공산이 크다. 블랙리스트 사건 전체에서 그런 관점이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진상 규명이 안 됐다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회에서나 예술계에서 이 문제가 이미 다 옛날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여러 기관에서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국립극단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름> 팀이 사건에 대해 많이 와주셔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국립극단이 블랙리스트 문제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름> 사건이 재발 방지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게 맞고, 문체부도 역설적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부당한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패로 쓰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국립극단이 문체부나 청와대 권력을 바라보는 극단이 아니라 현장의 연극인과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책임지는 극단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노력해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 전 국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극계에 신인 작가 데뷔했을 때부터 챙겨주신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손진책 감독님은 신춘문예에서 뽑아주신 심사위원이십니다. 말하기 그렇지만 조사에서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A-3-1] 주요 문건 목록 참조

[B-5]

개인적으로는 누구 못지않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조사 과정이나 지금 4년째 문체부 이행추진단이라고 조사 이후 후속조치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이행을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남인우 연출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공격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서 좀 느끼셨을 괴로움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이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꽤 놀랐고요. 어쨌든 당시에, 그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있던 입장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죄드리겠습니다.

정용성 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사실 각자가 갖고 계신 기억과 느낌들을 이렇게 또 나눠준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를 완성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서두에 예술감독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아마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블랙리스트 사례집, 그리고 앞으로 국립극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주시는 의견과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국립극단의 다짐을 만들려고 합니다.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사례집 원고라든가 국립극단의 다짐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첫 단추가 될 예정이고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새로운 기억들이 또 생각나시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보 요청하신 부분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는 게 좋을지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극단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5-5} 연출가 남인우의 목소리

2013년 국립극단 <구름> 검열 사태에 관한 사적 보고

1. 2013년 9월 10일부터 23일 국립극단

공연을 2주 앞두고 문자가 오기 시작한다. 미학적 조건들이 쏟아진다. 당연하다. 좋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저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 쏟아지는 시기이다. 그런데 다른 때랑 다르다. 좀 집요하고 구체적이고 많다. 전 공연 <개구리>가 좀 시끄러웠던 탓인가? 은근슬쩍 피디들의 한숨이 들린다. 나는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이 장면이 정말 싸구려인가? 이거 정말 이상한가? 예술적 가치가 없나? 배우들은 웅성거린다. 또 호출이다. 난 내 의도와 장면을 설명하러 극단 사무실로 향한다. 난 잘하고 싶다. 난 어떻게든 잘하고 싶다. 난 '잘 보이고' 싶다. '맞어, 사실 이 문장 나도 좀 별로였다.' 자꾸 생각해보니 이걸 좀 너무 오버다 싶다. 아... 근데 좀 나 좀 내버려두지... 내가 알아서 잘 균형을 잡아볼텐데. 스태프들이 마당에 모여 있다. 누구는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누구는 화가 나 있다. 수정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이거 내용이 뒤편더라, 내가 이걸 하기로 했나? 안 하기로 했나?' 나도 헛갈린다. 배우들에게 연기할 때 정치인 패러디하지 말라고 해야지. 누가 자꾸 연상되게 하면 연극이 너무 B급이 되니까. 배우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원래 B급 유머로 해 보자고 한 거 아닌가?' '에이, 그렇다고 진짜 B급이면 어떻게

[B-5]

해. 격식이 있어야지, 세금 가지고 그러면 되나' 나와 배우 사이의 묘한 실랑이가 진행된다. 내가 지금 뭘 소리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극장 셋업이 시작되었다. 대본이 하도 바뀌서 큐가 어떻게 되는지 헛갈린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매우 슬프고 난처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말을 건넨다. '남 연출... 이거 이 대사 말이지... 좀 안 되겠지?' 서로 눈을 맞추기 싫어서 멀뚱거린다. 그는 손에 들려있는 대본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쉰다. 진한 담배 냄새. 연달아 3대 이상은 피신 것 같군. 고개를 살짝 돌려 나도 그 난처함의 원인 제공인 대본을 본다. 며칠 전에 드린 수정본이다.

보인다! 아주 정갈하게 그어져있는 밑줄.

빨간 줄

2. 2017년 11월 20일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문체부에서 공문이 발견되었는데 내가 국립극단에서 2013년에 각색하고 연출했던 <구름>에서 윤창중(B-5.13)을 패러디하는 대사를 삭제 지시할 것이라는 요구가 청와대에서 내려왔고 그걸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이 한 차례씩 오갔다는 것이다. 묻는다, 대본을 수정했느냐고. 기억이 나질 않는다. 다만 선명하게 남은 기억은 내가 '잘 보이고 싶었다'는 것과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사실이다.

3. 2018년 7월 6일

손진책 전 국립극단 예술감독님으로부터 '네가 말했었는데, 이양구에게 빨간 밑줄친 대본이 있다고...' 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당장 당시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에서 일하던 이양구 작가를 만나서 따졌다.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내가 말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연극관이 얼마나 좁은데, 그분들도 그때 너무 힘겨워하셨고 상황이 복잡했다고 말했는데... 나만 여기서 고자질쟁이로 만드는 거냐? 내가 그분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사냐? 혹시 오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 통인동의 한 카페에서 나는 이양구 작가에게 이런 두려움을 말하면서 점차 깨달았다. 아 뭔가 내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더 두려워하는 것은 검열 그 자체가 아니구나. '검열'했던 국가 기관이 아니라 '검열'의 행위에 함께 있던 인간관계, 엮여 있는 인간관계들로 인해 앞으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구나. 이런 나의 못남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이양구 작가는 얼마나 치밀하게 '검열'과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2013년 9월 3일 ○○○ 연출의 <개구리>가 올라가고 청와대 행정관이 9월 6일과 7일에 전화를 하고 9월 9일에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개구리>가 용서가 안 된다는 발언을 하였고 9월 12일에 <구름>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B-5.13, 필자 주)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 시절 미국 순방에서 성추행 범죄로 해임되었다.

[B-5]

기껏해야 공연 기간 2주, 한 공연당 300명도 안되는 극장 공연, 최다 예상 관객 5,000명이 안되는 공연에 왜 이렇게 '겁'을 먹어 '겁'을 주려고 한 것일까? 우습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통제 안에 있었다면 다른 것들은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니 무섭기도 했다.

4. 2018년 8월

5년 동안 입 밖에 내보지 못했던 일들이다. 궁금했다. 5년 전 내 기억이 진짜인지 아닌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여의치 못하면 통화를 했다. 서로 다 기억이 달랐다. 붉은 밑줄 친 대본을 봤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을 봤다는 사람,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다는 사람, 봉투에 BH(청와대를 일컫는 이니셜로, 본인이 확인한 문체부 공문에도 사용됨)라고 적혀 있었다는 걸 봤다는 사람,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뭔가는 있었다는 사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람. 다행히 파란색 줄은 아니었다.

5. 2018년 9월 <연출의 판: 가계 317>(B-5.14)

누가 트라우마는 예술 행위로 치유될 수 있다고 했던가? 예술가니까 예술 활동으로 풀어보라고 했던가?

웃기네.

그런 줄 알고 해 봤다가 더 선명해졌다. 아 내가 사실은 '검열'인 줄 알았으면서도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건 나의 '욕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6. 2018년 10월 6일 오후 8시 40분경 혜화로터리

손진책 선생님을 선생님 사무실에서 만났다.

2013년 <구름> 이후 거의 처음 뵈었다. 만나러 가는 그 순간이 이상하게 무서웠다. 무서워할 분도 아니고 나에게 무서운 분도 아니셨는데 참 이상하게 내가 쫓았다. 한참을 쫓면서 이야기를 했다. 혹시 몰라서 녹음기도 가지고 갔지만 켜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야기도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의 선생님과 편안하게 가졌던 그런 대화의 모습이었다. 당연히 빨간 밑줄 친 대본에 대해서 물으셨다.

7. 2018년 11월 어느날 대학로 카페 장(B-5.15)

기억에는 꽤 추웠던 느낌이다. 카페로 들어가기 전에 골목에서 만난 ○○○ 연출님은 이미 취기가 조금 도는 모습으로 따듯하게 나를 반겨주셨다. 이렇게 많은 연출계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한구석에 손진책 선생님을 비롯해 이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와 계셨다. 무

(B-5.14, 필자 주) 2018년 '연출의 판'은 국립극단 선언문을 바탕으로 3명의 연출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연을 만드는 프로젝트였다. 본인은 <가계317>을 발표했고, 당시 베트남전에 파병 나갔던 본인 아버지의 일기와 <구름>의 사태에서 본인 개인적인 욕망이 어떻게 발동됐는지, 국가 혹은 국가 차원의 선언이 개인의 욕망을 자극해 개인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B-5.15, 필자 주) 참석자: 손진책, 박상현, 이양구, 김재엽, 남인우의 5명

[B-5]

섭도록 무거운 침묵.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고성도 오가고, 눈물도 흘렸던 것 같다. 기억에 남는 건 ‘문체부 과장이 방문했지만 통상적인 대화만 했다. 절대로 억압을 받은 적이 없다. 빨간 밑줄 친 대본은 전혀 모른다. 봉투를 전달한 적도 없다.’

8. 2020년 12월 4일

‘(빨간 대본의) 범인을 잡아내시겠다. 내가 그렇게 아팠다면 정말 압력이 있었다는 건데 당신은 모르셨으니까. 추적하시겠다, 최○○이 입을 다루는데 별 수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시겠다고.’(B-5.16)

9. 2020년 12월 이메일 발송(B-5.17)

선생님.

제가 급하게 덴마크 오면서 그 당시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들고 왔는데 여기엔 <구름>이 따로 자료가 모아 있지 않네요.

제가 메일함을 뒤져서

두 개의 <구름> 대본을 보내드립니다.

대본 앞에 버전이 수정된 날짜입니다.

마지막 9월 4일 날 대본이 아마 막 취합해서 정리한 대본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은 삽입하거나, 수정한 부분입니다.

아마 날짜로 보서는 문제가 있을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극단에서 대본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 대본으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일이 대본을 보시면서 수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빨간줄이 그어진 대본’이 존재했으며,

최○○ 선생님을 통해서 당시 연출가였던 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즉, 명백하게 국립극단이 관료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체부 관료들은 모른다 하고, 최○○ 선생님은 말씀을 안하시니.

이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언젠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사실 당시 일을 생각하기도 싫고

상황이 점점 뭐가 곤란해져도

이 생각을 하면 사실을 정리하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도 정진하고 있겠습니다.

남인우 드림

(B-5.16, 필자 주) 12월 4일 손진책 선생님과 통화를 마치고 그 내용을 평소 친분이 있었던 ○○○ 연출가에게 보낸 문자 내용

(B-5.17, 필자 주) 2020년 12월 해외 출장시 손진책 선생님으로부터 당시 <구름>의 대본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때 선생님께서 자료를 보내면서 보냈던 메일의 내용

[B-5]

10. 2018년 12월 문체부에서 날치기 사과를 했다.

11.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교수로 임용되고 있다.

12. 2019년 1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 당대표가 명동예술극장에서 왜 K팝 공연을 하지 않느냐며 당장 K팝에 극장 오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문체부 1차관에게 지시했다.(B-5.18)

13. 2019년 4월 도중환 장관이 교체되었다.

블랙리스트를 청문회에서 알린 정치인이었으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14. 2020년 4월 28일 오후 6시경 서울역 부근 한 카페

초췌한 모습의 최○○ 전 사무국장님을 만났다. 23일 먼저 카톡으로 연락이 오셨고 이제는 진실이 기억났으며 나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염없이 울었다. 내 말이 맞았다. 진짜 붉은 색 밑줄 친 게 맞았다. 파란색도 검은색도 아니었다. 왜 이제야 기억이 나셨냐고 묻지 못했다. 나만큼 비통했고 겁났을 것이고, 여러 상황이 더 복잡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3년 당시보다 정말 많이 여위셨다. 그게 서러웠다. 이상하다 왜 우리끼리 피해자들끼리 이렇게 아프고 상처받아야 하지? 그걸 지시한, 암묵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람들은 여전히 관료로 살면서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잘 사는데? 억울했다. 화가 났다. 연극인들끼리 네가 했네 내가 했네가 뭐가 중요한가. 그러는 사이 진짜 한 놈들은 쪽쪽 다 빠져나갔는데, 다시 연습실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맞았다. 빨간 줄이었다. 파란 줄이 아니었다.’

(B-5.18) ‘연극 메카냐, K팝 공연장이나... 명동예술극장 운명은’, 조선일보(2019-01-15)
“명동예술극장의 용도 변경은 지난 3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안민석·우상호 의원 등이 명동을 찾은 자리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이 대표 등은 명동관광특구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명동 거리를 둘러보며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황동하 연합회 회장은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이 좋은 공간이 달려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며 “K팝 콘서트가 가능한 복합 공연장으로 만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곧바로 이해찬 대표는 옆에 있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노 차관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나흘 뒤인 지난 7일 문체부가 국립극단 측에 ‘명동 상인과 상생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용도 변경 가능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B-5]

15. 2021년 5월 26일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모임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이행한다며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서 나는 ‘국립극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후속 모임을 하시는거냐? 당시 <구름>의 멤버들과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달라, 그리고 빨간 밑줄 친 대본이 있었다는 것을 정식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16. 2021년 8월 19일 백성희장민호극장

<구름> 프로덕션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구름> 이후에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이곳에서 <구름>이 올라갔고, ‘빨간 밑줄이 그어진 대본’을 들고 저 객석에서 최○○ 전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어쩔 줄 몰라했다. 최종 무대 연습을 진행하는 며칠간 내 스스로 <구름> 작업에 만족하는 날도 있었지만 솔직히 손에 칼이 있다면 내 목을 찌르고 싶은 날도 있었다. 아마 어떤 무력감, 도저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작업의 결과 때문이었다. 뛰쳐나가고 싶던 극장에 마냥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 보인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그때의 모든 순간, 냄새, 눈빛, 소리들이 떠오른다.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연출이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모른척 했겠지... 그 공연 기간에도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벌여졌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9년이 지나서야 듣는다.

그제야 진짜로 화가 난다.

‘기억이 안 난 것을 사과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억과 상관없이 후배들, 피해자들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세요.’

마치며

‘블랙리스트’와 ‘검열’의 행위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2019년 청주의 한 미술관의 예술감독이 사퇴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미술관을 관리하던 중앙조직 관료와의 충돌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검열과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청와대와 비서실장이, 정무수석 같은 웬 독재적 발상을 가진 한두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한두 사람의 발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검열’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명동예술극장을 한류 K팝 스타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톡 던지고 간 여당 대표의 발언 때문에 문체부 관료들과 더불어 그 관료들의 관리를 받는 국립극단 예술감독이 입장을 표명했던 일이 있습니다. 검열과 블랙리스트로부터 정치권과 예술계가 각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던 그때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연극계가 동의하지 않는 서계동의 문화 멀티플렉스관을 짓겠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에서도 ‘검열’로 인해 전시회가 엉망이 된 적도 있습니다. 주변에 여전히 관료들에 의해서 예산의 압박을 핑계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1970~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

[B-5]

해 재판부가 국가가 개인과 조정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 2020년 5월 항소했습니다.

국립극단이 이제야 이 일들을 정리하고 알리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빨간 밑줄 친 대본’의 존재를 입증해주시고 사과해주시길 최○○ 전 사무국장님.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이걸 들고 실제로 ‘검열’과 ‘블랙리스트’가 작동되는 시스템을 밝혀내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국립극단이 되어야 합니다. ‘관료’들이 조직을 흔들 수 없는 그런 국립극단, 정치인들이 쉽게 부는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국립극단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에 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려다 작성하고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글도 몇 번을 뒤집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일들을 기억하려고 하면 몸이 너무 아프고 멍해집니다. 그래서 고작 이런 너무나도 사적인 일기처럼 서술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검열’인 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내 자신의 ‘욕망’을, 그리고 그런 개인의 ‘욕망’을 이용한 시스템에 농락당한 나 자신을. 지극히 시스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일처럼, 사적인 관계를 동원하여 이뤄진 일이었기에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품고 사는 동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구름>의 모든 동료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래서 더 아프셨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B-6]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에서 <빛의 제국> 등에 대한 양해 조치가 있었던 경위

{B-6-1} 문건 등 자료 조사

①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B-3.15)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 따르면,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2015년 3월 5일경 김○○ 예술정책관으로부터 국립극장·명동예술극장 공연 작품에 손진책·○○○·김광보 등 좌(左) 성향 연출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는 보고(B-6.1)를 받고 2015년 3월 6일경 "취소 시 파장을 고려, 이번 건은 그대로 진행하되 내년도 공연작 선정(2015년 상반기 결정) 시 배제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B-6.2) 이러한 내용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 현재'(B-2-3) 15쪽에서도 확인된다.

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

국립극단이 위원회에 2018년 3월 30일 제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① 2015년 6월 국립극단 제작공연 ○○○ 작·연출의 <문체적 인간 연산>(2015-07-01~2015-07-26, 명동예술극장) 공연 연습 시 서계동 연습실에서 해당 연출이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된 사실이 담당 프로듀서 및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됐고, ②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예술감독이 해당 연출가로부터 대신 사과를 받아 전달하고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키 큰 세 여자> 및 <혜경궁 홍씨> 재공연의 연출을 해지 통보했고, ③ 피해자가 피해 사실 공론화를 원치 않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사회 및 문체부 보고 시 연출가의 개인 사정(건강상 이유)으로 공연에 하차하게 됨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B-6-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한-불 상호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 <빛의 제국>(B-6.3)에 대해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이 통합(2015년 4월)된 이후 국립극단 간부회의(김윤철 예술감독, 윤○○ 사무국장, 정○○ 홍보팀장, 정○○ 경영관리팀장, 박○○ 공연기획팀장, 신○○ 무대기술팀장 등 참석) 자리에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 작가가 블랙리스

{B-3.15} 참조

{B-6.1} 문건에는 "국립공연단체 7명"이라고 기록돼 있으며, "① 개구리-○○○(연출가) ② 3월의 눈-손진책(연출가) ③ 키 큰 세 여자-○○○(연출가) ④ 혜경궁 홍씨-○○○(연출가) ⑤ 어머니-○○○(연출가) ⑥ 문체적 인간 연산-○○○(연출가) ⑦ 세인트 조앤-잔 다르크-김광보(연출가)"로 세부 기술돼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2-3권, 259쪽 참조

{B-6.2} 국정원, 문체부 조치 사항 관련 출력물(2017-10-30)

{B-2-3} 참조

{B-6.3} <빛의 제국>, 2016-03-04~2016-03-27, 명동예술극장, 프랑스 오페라 국립연극센터 공동 제작

[B-6]

트인데 괜찮겠냐"(B-6.4)라고 하자 정○○ 공연기획팀장이 <빛의 제국>은 한-불 상호 수교 공식 공연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어떻게 취소하느냐고 반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6.5}

② 참고인 윤○○의 진술

참고인 윤○○(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 사무관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 경영관리팀장을 통해 <3월의 눈>을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빼라는 취지의 문체부 지시는 있었으나, 김윤철 예술감독은 문체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3월의 눈>을 2014년에 이어 격년제로 레파토리화하고자 했으며, 손 연출에게 여러 번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다른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7.3)

③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월 30일경 문체부에 업무 보고를 하고 1주일가량 지난 후 문체부 박○○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빛의 제국>을 포함해 총 5개 작품(<빛의 제국>, <문체적 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세인트 조앤>, <아버지와 아들>)을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아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박○○ 사무관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별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이러한 내용을 구자홍 당시 극장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뒤로 구자홍 극장장이 최○○ 예술감독과 함께 문체부 예술국장을 만난 후 양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5년 4월 이후 국립극단 간부회의(B-6.6) 자리에서 김윤철 감독이 "○○○ 작가가 블랙리스트인데 괜찮겠냐?"라고 말하자, 자신이 "<빛의 제국>은 한-불 상호 수교 공식 공연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어떻게 취소하느냐"라고 하는 등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서 김윤철 감독은 국립극단 간부들에게 필요하면 순교를 해서라도 지키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빛의 제국>이 문제가 됐던 것은 ○○○ 작가 이외에도 ○○○ 배우(B-6.7)가 출연하기로 했던 것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하○○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이 윤○○ 사무국장에게 ○○○ 배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상의 결과 양해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 배우가 문제가 된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B-6.8)

④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이 통합된 2015년 4월 이후 간부회의 자리에서 김윤철 예술감독 혹은 윤○○ 사무국장 중 한 사람이 <빛의 제국>과 관련해 ○○○ 작가와 ○○○ 배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B-6.4} 문학분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설가 ○○○에게 2014 런던도서전 배제 지시, 2016 파리도서전 배제 지시가 확인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2-4권 참조

{B-6.5} 박○○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12)

{B-7.3} 윤○○ 1회 진술조서, 5~6쪽 (2017-12-19)

{B-6.6} 앞서 참고인 박○○의 진술에 등장하는 간부회의와 동일

{B-6.7} ○○○는 2017년 9월 11일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시기 영화인 52명' 명단과 '문예계 주요 좌성향 인물현황' 영화분야 등에 포함돼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2-5권, 219, 221쪽 참조

{B-6.8} 정○○ 1회 진술조서, 4~6쪽 (2018-01-07)

이러한 진술과 관련해 윤○○ 사무국장은 ○○○ 배우에 대해 하○○ 사무관에게 물어봤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했다. (2018-12-12)

[B-6]

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6.9)

⑤ 참고인 구자홍의 진술

참고인 구자홍(명동예술극장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2월경 정○○ 공연기획팀장으로부터 <빛의 제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최○○ 예술감독과 함께 김○○ 예술국장(B-6.10)을 찾아가 최○○ 예술감독이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김○○ 예술국장은 접수만 했다고 하면서, 그 뒤로 따로 양해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지만 명동예술극장 직원들에게 양해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뒤로 <빛의 제국>과 관련해서 문체부로부터 추가적인 요구는 없었다고 하면서 ○○○ 작가가 문제가 된 것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때문이었다(B-6.11)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6.12)

⑥ 참고인 최○○의 진술

참고인 최○○(한-불 상호 교류의 해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4년 봄 <빛의 제국> 공연을 하지 말라는 청와대 지시를 김소영 문체비서관으로부터 받아 청와대를 찾아가 설득했고, 이를 후 문체부 차관 또는 예술국장으로부터 다시 <빛의 제국> 공연을 하지 않는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프랑스 공연에서 원작자를 초청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진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6.13)

⑦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로부터 <빛의 제국> 공연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국립극단 박○○ 팀장 혹은 정○○ 팀장에게 듣고, 프랑스 측과 얘기가 돼 진행 중인 국제 간 공연인데 계속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6.14)

⑧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은 위원회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2015년 1월경 5개 작품(<빛의 제국>, <문체적 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세인트 조앤>,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해 ○○○ 연출의 <혜경궁 홍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해 “당시 공연전통예술과장이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2015년 공연 사업 중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본인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검토·보고 과정에서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2015년 공연 작품들은 이미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미 홍보돼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특정 작품을 제외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전통

(B-6.9) 정○○ 1회 진술조서, 3~5쪽 (2018-01-05)

(B-6.10) 구자홍 국장장은 김○○ 국장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2015년 2월경 문체부 예술국장은 김○○이다. 전임 예술국장과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B-6.11) 2014년 초, ○○○ 소설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뉴욕타임스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표현을 쓴 칼럼을 써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시점 이후에 ○○○ 작가를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 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는 진술이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2-4권, 119쪽 참조

(B-6.12) 구자홍 1회 진술조서, 3~4쪽 (2018-01-10)

(B-6.13) 최○○ 1회 진술조서, 26~27쪽 (2018-01-25), 최○○ 예술감독은 2016년 5월경 ○○○ 작가는 프랑스 측 초청으로 가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6.14) 김윤철 1회 진술조서, 3쪽 (2018-04-10)

[B-6]

예술과장은 홍보가 이미 됐다는 정도가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없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시 검토·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작품 내용에 문제가 없고, 이미 2015년 작품에 대한 공연 계약이 완료됐다는 근거 등을 보강한 후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없다고 다시 보고했으며, 이후 공연전통예술과장은 2015년 공연 작품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본인에게 알려줬습니다. 상기 과정에서 본인은 특정 작품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검토·보고의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작품 개요, 작품 설명, 계약서, 공연 홍보 실적 등)를 요청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일부 특정 작품은 가계약 상태로 확인됐으나 본인은 동 작품을 포함한 모든 작품이 이미 최종 계약을 끝낸 상태라고 공연전통예술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6.15)

⑨ 참고인 임○○의 진술

참고인 임○○(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월경 5개 작품(<빛의 제국>, <문체적 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세인트 조앤>,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해 <3월의 눈>(연출 손진책), <혜경궁 홍씨>(이하 연출 ○○○),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해 배제 지시를 하달받고 이를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등과 공연 취소 가능성을 협의하고 나중에 양해를 받기까지 과정과 관련해 “그러한 배제 지시가 있었는데 연출 등이 섭외가 끝나서 공연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취소할 경우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제가 담당 사무관에게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고 했고, 그 보고서를 받아서 제가 김○○ 국장, 박민권 차관, 김종덕 장관 등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은 2015년에는 그대로 공연하되, 차기년도부터는 제외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6.16)

⑩ 참고인 김광보의 진술

참고인 김광보(연출가)는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이 통합되기 전에 정○○ 공연기획팀장에게 문체부로부터 자신을 배제시키라는 압력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는 사유로 양해를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2015년 6월 1일경 서울시극단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세인트 조앤-잔 다르크> 공연 연출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정○○ 공연기획팀장에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6.17)

{B-6-3} 소결

2015년 1월경 5개 작품 <빛의 제국>, <문체적 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세인트 조앤>,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해 ○○○ 연출의 <혜경궁 홍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가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측에 공연의 취소 가능성을 물었지만 공연 취소 시 파장을 고려해 그대로 진행하라는 양해 조치가 있었고, 2016년부터는 해당 작품의 연출가들(○○○·김광보·○○○·손진책 등)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B-6.15) 박○○ 사실확인서, 2~3쪽 (2018-01-21)

(B-6.16) 임○○ 1회 진술조서, 10쪽 (2018-01-23)

(B-6.17) 김광보 1회 진술조서, 3~4쪽 (2018-01-16)

[B-6]

다만 ○○○의 경우 양해 조치가 있었지만 2015년 6월 <문체적 인간 연산> 공연 연습 당시 서계동 연습실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있는 가운데 국립극단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고,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예술감독이 해당 연출가로부터 대신 사과를 받아 전달하고 2015년 하반기에 예정된 <키 큰 세 여자>와 <해경궁 흥씨> 재공연의 연출을 해지 통보한 것이다. 김광보의 경우 2015년 6월 1일자로 서울시극단 단장에 임명되면서 <세인트 조앤>의 연출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B-7]

<3월의 눈>이 배제된 경위

{B-7-1} 문건 등 자료 조사

①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 따르면, 2015년 1월경 청와대에서 연극 <개구리>로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하적으로 묘사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손진책 감독의 작품 <3월의 눈>({B-7.1})에 대해 김종덕 장관은 2015년 3월 6일경 취소 시 파장을 고려해 공연을 그대로 진행 하되 차기년도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B-7-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을 결정하는 2015년 하반기(9월경으로 기억) 사무국 회의(김윤철 예술감독, 윤○○ 사무국장, 정○○ 팀장, 박○○ 팀장, 정○○ 팀장, 신○○ 팀장 등 참석)에서 김윤철 예술감독이 “<3월의 눈>은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보자 정○○ 경영관리팀장이 “블랙리스트라서 안 된다”고 했고, 결국 <3월의 눈>은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7.2})

② 참고인 윤○○의 진술

참고인 윤○○(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 사무관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 경영관리팀장을 통해 <3월의 눈>을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빠라는 취지의 문체부 지시는 있었으나, 김윤철 예술감독은 문체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3월의 눈>을 2014년에 이어 격년제로 레퍼토리화하고자 했으며, 손 연출에게 여러 번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다른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7.3})

③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라인업을 결정하는 2015년 하반기(9월경) 간부회의에서 손진책 감독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7.4})

{B-7.1} <3월의 눈>, 2015-03-13~2015-03-29,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이 작품은 2011년 3월 백성희장민호극장 개관 기념 헌정 공연으로 초연한 뒤 그해 5월, 2012년, 2013년, 2015년, 2018년 재공연했다. 일부 참고인은 2014년 공연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2013년 12월 발표한 ‘2014 국립극단 봄마당’ 라인업에 따르면 3월 7일부터 30일까지 <3월의 봄>이 백성희장민호극장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실제 이 기간에는 <맥베스>와 <피의 결혼>이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됐다.

{B-7.2} 박○○ 1회 진술조서, 9쪽 (2017-12-12)

{B-7.3} 윤○○ 1회 진술조서, 5~6쪽 (2017-12-19)

{B-7.4} 정○○ 1회 진술조서, 6쪽 (2018-01-05)

[B-7]

④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2016년 라인업을 결정하는 2015년 하반기(9월경) 사무국 회의에서 <3월의 눈>을 2016년 국립극단 라인업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B-7.5)

⑤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손진책 감독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몰랐고, <3월의 눈>의 경우 그 당시 자신과 손진책 감독의 개인적인 갈등이 좀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7.6)

⑥ 참고인 임○○의 진술

참고인 임○○(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3월의 눈>에 대해서는 국립극단 자체 사정으로 공연이 제외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아는 한 문체부에서 배제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7.7)

{B-7-3} 소결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서 <3월의 눈>이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김종덕 장관이 2015년 3월 6일경 취소 시 파장을 고려해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되 차기년도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점을 통해 <3월의 눈>이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3월의 눈>이 김윤철 예술감독과 손진책 예술감독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B-7.8)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게 된 측면도 있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B-7.5) 정○○ 1회 진술조서, 8~9쪽
(2018-01-07)

(B-7.6) 김윤철 1회 진술조서, 3쪽
(2018-04-10)

(B-7.7) 임○○ 1회 진술조서, 11~12쪽
(2018-01-23)

(B-7.8) 손진책 예술감독 시기에 임명된 직원 한 명에 대해 김윤철 예술감독이 손진책 예술감독과 사전 상의 없이 인사 조치한 일을 말한다.

[B-8]

국립극단 공동 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홍보물에 대한 수정 경위

{B-8-1} 문건 등 자료 조사

① 2015 기획 대관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공연 소개

국립극단 기획 대관 공연 <조치원 해문이>는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작 ○○○, 연출 박상현, 그린피그 제작으로 공연됐다. <조치원 해문이>는 제4회 벽산희곡상 수상작으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세종시 건설 즈음의 조치원으로 배경을 옮겨 각색했으며, 원작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대적인 정서를 입혔다. <망루의 햄릿>은 각색·연출 ○○○, 극단 성북동비둘기 제작 작품으로,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됐다.

{B-8-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과 그린피그가 공동 제작했던 <조치원 해문이> 공연의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이름을 빼달라고 윤○○ 사무국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문체부 ○○○ 주무관이 유선상으로 윤○○ 사무국장에게 항의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망루의 햄릿>의 경우 포스터가 광화문 광장과 용산 참사를 연상시킨다면서 포스터를 전면 수정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 연출가를 만나 ‘문체부 지시’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포스터 수정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8.1)

② 참고인 윤○○의 진술

참고인 윤○○(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치원 해문이>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를 빼라는 ○○○ 주무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윤한솔’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망루의 햄릿>의 경우, ○○○ 주무관이 이순신 장군상에 물을 뿌리는 포스터에 대해 ‘이것이 무슨 의미냐?’ 등을 물어보고 포스터 수정을 지시해서 박○○ 팀장이 ○○○ 연출가를 만나 문체부 지시라는 것은 숨기고 포스터 수정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8.2)

③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치원 해문이>에서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솔’ 등의 이름을 빼라는 문체부 ○○○ 주무관의 지시를 자신이 받았

(B-8.1) 박○○ 1회 진술조서, 10~11쪽
(2017-12-12). 이와 관련해 윤○○
사무국장은 당시 문체부 ○○○
주무관이 <망루의 햄릿> 포스터와
관련해 공연기획팀장과 1차 유선 통화
후 사무국장, 경영지원팀장 등 관련
간부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했다.(2018-12-12)

[B-8]

을 것이라고 하면서, 포스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망루의 햄릿>의 경우 이순신 장군에게 물을 뿌리는 포스터 이미지에 대해 문체부 ○○○ 주무관이 자신에게 항의해서 이를 윤○○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8.3)

④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치원 해문이>에서 홍보물 검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망루의 햄릿>의 경우 문체부 ○○○ 주무관이 포스터를 전면 수정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말을 윤○○ 사무국장에게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8.4)

⑤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그린피그가 국립극단과 공동 제작했던 공연 <조치원 해문이>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술’ 등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개입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망루의 햄릿>의 경우 문체부에서 ‘포스터를 전면 수정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순신을 그러한 방식으로 패러디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극단과 수정이 가능한지 상의를 해보라는 말을 했지만, 문체부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8.5)

⑥ 참고인 박상현의 진술

참고인 박상현(연출가)는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에서 <조치원 해문이> 공연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술’을 빼달라고 해서 기획 대관을 도와준 직원의 입장을 고려해 포스터와 프로그램에서 ‘그린피그’, ‘윤한술’의 명칭을 뺀 파일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서 국립

(B-8.2) 윤○○1회 진술조서, 7~8쪽 (2017-12-19). 또한 이와 관련해 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추가 소명했다. (2018-12-12) ① <망루의 햄릿>은 관련 포스터가 온라인상에 국립극단 측과 사진 협의 없이 게재됐 있었고, 문체부는 게재된 포스터 이미지와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임. 포스터 확인 결과 게재된 포스터는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기에 국립극단 CI를 사용하지 않았고, 국립극단 주체 공연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음.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스터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지 수정에 대한 문체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순응한 것이 아님. 내부 회의를 거쳐 작품과의 관계, 관객 이해를 고려해 이미지 수정을 단체와 협의하도록 한 것임. 이와 관련해 12월 19일에 진술한 바 있음. ② <조치원 해문이> 포스터에서 그린피그, 윤한술 등의 홍보물 <포스터>상 명칭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 공연의 첫 공식 문서인 국립극단 내부결재(2015-03-23)에 의하면 이 작품은 작품명 미정, 제작 단체 벽산희곡상, 연출 박상현으로만 결재를 두한 상황이었고 단체와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문체부에 전체 사업을 보고하면서 <조치원 해문이>로 작품이 결정되고 제작 단체가 변경됨을 파악함. 보고 과정에서 극단 그린피그가 블랙리스트 대상임을 확인함. 당시 ○○○ 연출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동했을 시기이나, 문서로서 기승인쇄 계약한 공연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문체부를 설득, 협의한 바 있었기 때문에 자칫 서류 미비가 많은 <조치원 해문이>가 블랙리스트를 이유로 공연 취소 등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둘러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을 강행토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조치원 해문이> 홍보물 내 단체명 노출에 대해 문체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지만, 최초 문서와 일치시키라는 것으로 지시한 것이며, 담당 실무팀장이 단체와 협의한 것으로 보고받음. 추후에 단체가 자체적으로 극단을 포기한 포스터를 발행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음. 당시로서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비하는 것과 공연을 계획대로 성사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음.

(B-8.3) 정○○1회 진술조서, 7~8쪽 (2018-01-05)

(B-8.4) 정○○1회 진술조서, 10쪽 (2018-01-07)

(B-8.5) 김윤철1회 진술조서, 4쪽 (2018-04-10)

[B-8]

극단 측으로 보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8.6)

{B-8-3}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해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기획 대관 공연 <조치원 해문이> 공연에 대해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술’ 등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린 피그는 ‘그린피그’, ‘윤한술’의 명칭을 뺀 별도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립극단에 보내주고 국립극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B-8.7)

<망루의 햄릿>의 경우,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문체부 지시라는 사실은 숨긴 채 극단 측에 포스터 수정을 요청해 포스터가 수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B-8.8)

{B-8-4} 제작자 윤한술의 목소리

일시 2022-01-26(수) 오후 3시

장소 국립극단 회의실 2

참석자 총 5명

공연 참여자: 윤한술(제작, 그린피그)

외부 인사: 이양구(자문위원)

국립극단: 오현실(사무국장), 정용성(홍보마케팅팀장), 변정원(홍보마케팅팀 사원)

정용성

저희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극단 차원에서 사과문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만, 사안 별로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자리를 그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이런 자리를 순차적으로 계속 마련해오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뻔해야 되는데 저희도 일정을 좀 못 맞춰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 형식같은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례에 대한 말씀도 좋고요,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반, 그리고 국립극단 또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주

(B-8.6) 박상현1회 진술조서, 3~4쪽 (2017-11-21)

(B-8.7) 그린피그, 윤한술의 경우 ‘리스트-16, 2, 1, 현재’ 9쪽 등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극단 성북동비둘기의 경우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05-11) 15쪽에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B-8.8)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윤○○은 ‘나의 입장’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추가 진술했다. (2018-12-12) “잘 알려져 있듯 2015년 당시 국립극단을 둘러싼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블랙리스트와 관련 논란이 있는 작품들을 무리없이 제작,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위의 “기획대관사업”으로 기획된 공연들이 잘 마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저 한 사람뿐 아니라 국립극단의 동료, 관련 종사자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노력하여 이룬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에만 머문 결과이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한 국립극단의 행정 실무책임자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연이라면 지원을 받게 하고 이 공연이 어떤 외압과 외풍 속에서도 트집 잡히지 않게 하며 관객들과 만나 공연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까지지만 본인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외압이나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저항까지는 본인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예술행정가입니다. 역사의 발전을 거스르는 문화정책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저항할 행정가로서의 역할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당시 본인은 정부의 정책 실행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고 부당한 정책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일에만 노력했습니다. ○○○ 연출의 공연과 ○○○ 연출 <조씨고야, 복수의 씨앗>의 중국 공연이 가능하도록 했고, ‘작가의 방’ 사업 실행을 위해 문체부를 설득하여 예비비 승인을 받아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운동가가 아닌 행정가라 여기며 가능한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라 여겼고 예술행정가의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B-8]

시면 어떤 것이라도 기록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윤한솔 네. 근데 박상현 연출님은 왔다 가셨어요?

정용성 전화로 요청을 드렸고, 처음에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더니 그러면 오늘 통화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본인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내용을 보내드렸고 박상현 연출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조치원 해문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 블랙리스트 전반 관련해서 국립극단이 앞으로 독립성·자율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짚막하게 주셨습니다.

윤한솔 제가 여쭙본 건 어쨌든 그 당시에 국립극단 측과 소통의 창구가 된 것은 박상현, 통상적으로 연출이었기 때문[인데요.] 윤한솔 제작이라고 했지만 저는 초반 프리 프로덕션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일본 출장 가 있을 때였어요.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전화 받던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신칸센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내용 중 하나는 ‘이름을, 윤한솔과 그린피그를 빼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다’였어요. 빼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쇄물 포함해서 모든 홍보물에서 [이름을] 빼라 그러다가... 그 당시 실무자가 윤○○, 박○○이었죠. 아마 윤○○ 팀장이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용성 당시 윤○○ 사무국장이었고, 박○○ 공연기획팀장, 정○○ 홍보마케팅팀장, 아마 이렇게 근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한솔 최초로 연락받았을 때 제가 했던 얘기는 “빠셔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조짐들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박상현 연출이랑 이미 이런 조짐을 뭔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국립[극단]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부터, 연관장 돌리던 극단들이 있어요. 시국 선언 하고 뭐 이럴 때. 아시겠지만 몇몇 극단이 제일 앞에서 연관장을 돌렸죠. 개인들도 있지만 단체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했던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공공연하게 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던 때였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빼라고 하는 건 처음인거죠. ‘윤한솔’ 이름을 빼라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화로 ‘빠셔라, 공연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공연이 뭐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 겨냐’. 배우들도 있고,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홍보물이 나오는 시점이 거의 공연 열흘에서 2주 전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안 한다는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야비하다고 느꼈죠. 안 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빼겠지, 이런 수준으로 가겠지, 머릿속에 이런 계산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셔라’ 했고, ‘다시 얘기를 해 보겠다’ 하더니 한 이틀 후에 전화가 와서는 인쇄물에서만 빼기로 했다. 웹상으로는 게재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락이 됐던 것 같아요. 중간에 전화를 여러 통 다시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제 기억에는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자체가 며칠 걸렸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이 일을]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 박상현 연출이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안 했으면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 일을] 바로 SNS에 쓰려고 했죠. 근데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갔죠. 공연하는 걸로. 또 [이 작품이] 박산희극상을 받

[B-8]

았고, 이제 박산이 주최일 거예요.(B-8.9) 정확히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산 돈으로 제작한 공연이다 보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 연출이 전화 왔어요. 서울 와서 전화를 받았나 일본에서 받았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 연출이 전화가 와서 화가 막 노발대발, 이게 뭐냐,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나요. 내용은 전부 기억나진 않는데. 어디서 들었었죠. 그런피그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 왔다갔다 하다가 들었던가.

정용성 <망루의 햄릿> 관련한 내용 아닌가요?

윤한솔 그렇죠. 그 즈음인 것 같은데, ○○○ 연출이 전화해서 화를 내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넘어갔죠. 제가 공연이 끝나기 전, 아니 공연 시작한 날인가, 출장 끝나고 아마 그쯤 왔을 거예요. 첫공을 제가 봤으니까. 아무튼 유선상으로 계속 벌어졌던 일이에요. 당시에 공론화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 당시에 제가 이런 걸 써제끼고 아무 데나 막 떠들던 시절이어서, 아마 박상현 연출이 그러지 않았으면 [이]양구 형이랑 통화했겠죠. 이거 쓰려다, 어찌저 저찌자...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으니까. 그런데 일단 팀 내에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에는 배우들이랑 전부. 제가 소상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체감했던 온도들은 내부에서 [이 사건을 밝히는 것을] 약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상현 연출 생각만이 아니라 배우들이랑 뭐 다. 국립극단 소속 배우들도 있었고. 그런 게 좀 깔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던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연 보고 뒤풀이 갔더니 다 비분강개는 하는데, 공론화는 좀 약간...

오현실 그러셨군요.

윤한솔 나대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양구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웹상으로 두 개 버전을 만들어서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에는 ‘윤한솔’, ‘그린피그’를 빼고,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다른 데로 나가는 거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나중에 문체부에서도 국립극단 홈페이지만 확인했는지,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 상황이 관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문제가 컸겠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대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작품이] 대관을 들어간 상황이지 않았어요? 아닌가?

윤한솔 제 기억이 맞다면 그해에 있고 없어졌죠. 대관 프로그램이 그해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대관 프로그램 공고가 뒀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자마자 박상현 연출이 박○○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인지 정보를 얻었고, 그 과정에 저도 있었으니까. 이거를 내보자고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에 화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굴욕적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공연을 못한다 못해’ 이런 얘기가.

이양구 그런데 이 시점은 사실 2015년 7~8월 이때니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막 터지기 전이에요. 이 상황이 단편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었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된

(B-8.9) <조치원 해문이>는 국립극단·박산문화재단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국제나눔회·박산엔지니어링 후원으로 진행됐다.

[B-8]

다는 것까지는 서로가 잘 모르던 상황이죠.

윤한솔 근데 공공연하게 그 얘기가 있었지.

이양구 그러니까 이제 소문으로 도는 것이지 전모를 확인한 건 나중 일이고, 검열이 있다는 게 확인된 건 그해 가을이나 돼야 확인되죠. 그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확인된 거고, 국립극단은 실제 진상조사되기 전에는 확인된 적이 없죠. 실제로 2017년에 ○○기자님이 <개구리> 관련 기사를 쓰긴 했는데, 그때도 뭐 그런 건[블랙리스트] 아니었고(B-8.10) 국립극단은 진상조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전에는 저도 몰랐고, 서로 다 몰랐죠.

오현실 여기도 다 몰랐는데요. 정말 몇 분만 알고 있었던...

윤한솔 박상현하고 저하고는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를 구체적으로 알았던 사건이에요. 사실 지원금이 왜 안 되는지, 뭐가 왜 안 되고 있는지, 한동안 술자리에서 박상현하고 저하고는 많이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못 하는 거 아니냐.

이양구 이 사안이 이런 사안이에요.

오현실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들려주십시오, 했던 이유는 무엇이나면. 물론 백서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만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 중에는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이 거의 없잖아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는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우리 스스로도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을] 다 만나 뵙고 그때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말씀 듣고, 더불어서 국립극단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조언들도 듣는 자리입니다.

윤한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박상현 연출이 박○○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거. [오현실]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그 관계는 오래된 관계거든요. 산방[미추산방] 때부터 박상현은 거기서 연출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배우들 수업도 하는 그런 관계였고. 그 또래 중에서도 친한 또래 그룹들이었으니까. 화가 많이 났죠. 지금 전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절대 안 된다는 식[이었어요]. 처음엔 안 빼면 못한다고. 근데 그 대화를 들으면 서도, 저랑 박상현의 대화에서는 그게 누가 시켰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아주 뒷선에서 내려왔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양구 실행 프로세스를 알게 된 건 나중 일이니까. 누가 이쪽에 문체부나 청와대 이런 구조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윤한솔 김윤철 급에서 벌이는 일은 아니라는 거는 생각했던 거죠.

이양구 국립극단에 대한 고민도 들려주세요. '연출의 판'(B-8.11) 예술감독도 하셨잖아요. 독립성이랄까...

윤한솔 돈이 있어야 독립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독립은 돈으로 하는 거죠.

(B-8.10) '〈단독〉국립극단도 검열했다...“개구리” 같은 작품 쓰지 말라' 강요, 한겨레신문(2017-03-16)

(B-8.11) 2018년 신설된 '연출의 판'은 창작극 및 작품의 개발과 발굴에 힘쓰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출가를 초청해 작품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첫해 판예술감독 윤한솔을 필두로 연출가들이 모였으며,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지속했다.

[B-8]

오현실 맞아요.

윤한솔 그런 얘기는 여기저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독립적인 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버틸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 기관이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계속 고민이시겠죠, 고민이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일 텐데 그거 말고는 뭐. 모르겠어요. 그 3년 일할 때 [오현실] 국장님도 같이 3년 계셨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개방적이었어요. 내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겠는데, 전 충분히 재밌게 했어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서포트해준다는 느낌도 들었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다면, 저는 이성열 예술감독 할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명동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제가 그런 공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국립극단이라는 단체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포지셔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그렇게 보수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런 공연들을 거기서[명동예술극장에서] 올리는.

오현실 레퍼토리 전용 극장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게.

윤한솔 사실은 레퍼토리 전용 극장이 쉽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 연극에 레퍼토리가 몇 개나 있어서...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콘셉트로 극장을 규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명동예술극장의 정체성은 보수적으로 가지만 그 선택은 굉장히 과감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중이 좋아할 만한 공연하는 거. 근데 감독을 옆에서 보고 저도 그냥 조금 일을 해 보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예술감독의 색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조금 성격도 달라지고 하겠지만, 오랫동안 좋은 단체가 되려면 제 생각에는 예술감독이 누가 되든 휘둘리지 않는 단체가 되어야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어떤 미학적인 이해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는 오히려 예술감독이 그 안에서 적응해야 하는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어떤, 공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하면 행정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 강력한 보드(board, 이사회)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 보드의 제일 큰 권한은 예술감독을 자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전횡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예술감독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은 내가 져야하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건 책임을 분할해줄 수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한 고민인 것 같고요. 할 얘기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일할 때는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안 줄 것 같았는데 뭐 돈이 막 넘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산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좀 많이 줄었지만.

오현실 해마다 줄었죠.

윤한솔 아 그렇죠. 그래도 참여하는 연출들이 충분히 흥미로워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댔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B-8]

이양구 예산 문제가 결정적인 건 맞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어서, 저는 오히려 예산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한솔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라니?

오현실 정부에서 내려줄 때.

이양구 증액을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건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저는 결국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국립극단의 예산 상황, 이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는 여기에서 공연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고, 올해 그걸 누가 얼마 쓰고, 이런 문제가 별로 공유가 안 된다고 해야 하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삭감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예산이] 백 퍼센트 오는 거는 국고 지원 받는 데가 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국립극단의 예산이 얼마가 삭감되고 얼마가 증액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그게 뭐 아까 얘기했던 보드 멤버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나 기재부에서 이 공급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선들을 좀 만들어주면 예산을 이렇게 못 깎는다고 생각해요.

오현실 깎는 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대신에 그럴 수는 있죠.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해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남들 다 줄 때 안 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죠.

이양구 그러니까 이룰테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잖아요.

오현실 저 집은 얼마가 증액됐는데...

이양구 이룰테면 이제 올해 10억 증액된 것도 저는 여기서 들으니까 알지, 모르는 거예요. 이 논의 과정도 전혀 모르고, 그런 식으로 뭐 어디에 뭐 예경[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이번에 160억이 가고, 이런 문제들이 전혀 우리는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그걸 우리가 돈 문제를 누가 이렇게 신경 쓸까마는, 어쨌든 좀 뭔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좀 부담스러운 일인 거니까.

오현실 근데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자면 사실 깎냐 더 주냐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어쨌든 저희 재정 자립도가 많아야 30퍼센트거든요. 70퍼센트가 국가에서 전부 내려오니깐, 서계동에서는 수익을 올린다고 전혀 기대도 안 하는 거고, 명동 하나 운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퍼센테이지[비중]가 거꾸로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겠죠.

윤한솔 네, 아마 <조치원 해문>도 제가 연출이었으면 대관 심사에서 떨어졌겠죠.

오현실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리스트가 내려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양구 국립극단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는 공무 사업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2015년 1월에 특정한 몇 명을 빼라는 얘기가 내려왔고, 거기에는 그린피그가 있지 않았던 거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B-8]

{B-8-5} 연출가 박상현의 목소리

정 선생님, 선생님께서 따옴표(“ ”)안에 요약하신 내용은 저의 직간접적 주장과 일치하는 것은 맞습니다.(B-8.12)

“국립극단이 블랙리스트 이후 공개 사과도 하고, 이전 예술감독이 개별적으로 사과도 했지만 예술감독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음. 결국 단발적인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국립극단이 재단법인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그렇지 않으면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음.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사실은 이외에도 국립극단이 법인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법인 자본의 현실적 확보, 정관 개정, 이사진의 구성의 합리화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당시 신임 예술감독은 사업설명회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임 예술감독은 당년을 ‘국립극단의 1987년’으로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1987년’이었던지 그 의미를 지금 와서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의문이 듭니다.

또한 정 선생님께서 일부 사례로 얘기하셨지만, 국립극단의 어느 예술감독도 저에게는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전·현 예술감독의 인격과 능력에 의문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 몸을 바쳐, 또는 직을 걸고 큰 명분과 당위성이 걸린 일을 해결하시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비롯한 이 수고들에 대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한계에 대해 이해하시거나 인정하시고, 문제는 절대 다른 방향에서 해결이 모색되기 시작해야 함을 믿는 분들이 매우 많음을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으나 혹시 채언과 허언이 끼어들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의와 경청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B-8.12) 정용성 홍보마케팅팀장은 이번 기록을 위해 박상현 연출가와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통화 종료 후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였으며, 박상현 연출가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B-9]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된 경우

{B-9-1}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B-9.1}**에서 전인철 연출가를 섭외했던 2015년 상반기에는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정○○ 경영관리팀장이 전인철 연출가도 블랙리스트여서 안 된다고 해서 전인철 연출가를 제외하게 됐으며, 김윤철 예술감독이 자신에게 전인철 연출가를 만나서 잘 이해시키라고 해서 “내년(2016년)에는 못할 것 같고 후년(2017년)에 하자”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2016년 라인업에서 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9.2}**

② 참고인 윤○○의 진술

참고인 윤○○(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상반기,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 섭외했던 전인철 연출가를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정○○ 팀장이 블랙리스트라서 안 된다고 하자 김윤철 예술감독이 박○○ 팀장에게 전인철 연출가를 잘 이해시키라고 해서 박○○ 팀장이 전인철 연출가를 만나 “내년(2016년)에는 못할 것 같고 후년(2017년)에 하자”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2016년 라인업에서 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9.3}**

③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 섭외했던 전인철 연출가에 대한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자신이 국립극단 간부회의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9.4}**

④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 섭외했던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 대상으로 거론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9.5}**

⑤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전인철 연출가의 경우 배제 대상이라는 것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 팀장에게 전인철을 만나서 얘기해보라고 했는데, 박○○ 팀장은 그것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이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B-9.6}**

{B-9.1} ‘젊은연출가전’은 2011년부터 신예 예술가를 지원하고 동시대 젊은 연출가의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지속 기획해온 국립극단의 오랜 프로젝트다. 2016년에는 (가까스로 우리)(연출 ○○○), 2017년에는 (나는 살인자입니다)(연출 전인철)가 공연됐다.

{B-9.2} 박○○ 1회 진술조서, 9~10쪽 (2017-12-12)

{B-9.3} 윤○○ 1회 진술조서, 6쪽 (2017-12-19)

{B-9.4} 정○○ 1회 진술조서, 7쪽 (2018-01-05)

{B-9.5} 정○○ 1회 진술조서, 9쪽 (2018-01-07)

{B-9.6} 김윤철 1회 진술조서, 3~4쪽 (2018-04-10)

[B-9]

{B-9-2}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해 전인철 연출가가 2015년 상반기에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 섭외됐다가 2015년 하반기 문체부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B-9.7}**

{B-9.7} 전인철 연출가의 경우, 문체부 예술정책과가 작성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현안’(2015-05-21) 6쪽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된 것이 확인된다.

[B-10]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날아가 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

{B-10-1} 2015년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낭독 쇼케이스 <날아가 버린 새> 공연 개요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B-10.1) '창작희곡 낭독 쇼케이스'는 2015년 12월 4일과 5일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진행됐다. 7월 희곡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 1~3차 수정을 거쳐 낭독공연으로 제작됐고, 이후 본격 발표된 것이다. 선정된 작품은 <아가미>(작 ○○○, 연출 윤한술), <날아가 버린 새>(작 장지혜, 연출 전인철), <고등어>(작 ○○○, 연출 ○○○) 등 세 편이다. 이 중 <날아가 버린 새>는 출구 없는 가난과 연민의 굴레 속에서 몸과 마음이 중독된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다.(B-10.2)

{B-10-2} 참고인 등 진술 조사

①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전인철 연출가의 경우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개최했던 낭독공연(제목 기억 안 남)을 2016년 공연하기로 했다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0.3)

② 참고인 윤○○ 진술

참고인 윤○○(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전인철 연출가가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개최했던 낭독공연을 2016년에 공연하기로 했지만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0.4)

③ 참고인 정○○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개최했던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낭독공연 <날아가 버린 새>를 2016년 공연하기로 했지만 배제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0.5)

④ 참고인 정○○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2015년 하반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서 개최했던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낭독공연 <날아가 버린 새>를 2016년 공연하기로 했지만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문제가 돼서 공연이 무산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0.6)

(B-10.1)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2012년부터 청소년극 창작 희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작가와 연출가·배우·청소년이 협력하는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희곡 공모와 워크숍, 청소년 피드백, 낭독 쇼케이스를 거쳐 매년 세 편의 새로운 청소년극 희곡을 개발한다.

(B-10.2) 장지혜 작가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되면서 함께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B-10.3) 박○○ 1회 진술조서, 10쪽 (2017-12-12)

(B-10.4) 윤○○ 1회 진술조서, 7쪽 (2017-12-19)

(B-10.5) 정○○ 1회 진술조서, 7쪽 (2018-01-05)

(B-10.6) 정○○ 1회 진술조서, 9~10쪽 (2018-01-07)

[B-10]

⑤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전인철 연출가의 <날아가 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서는 “이 사안의 경우 아마 팀장 회의에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젊은연출가전에서 빠졌던 것처럼 전인철이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인철은 청소년극보다는 다른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기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배제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작업을 함께하는 시기를 좀 연기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10.7)

{B-10-3}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해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의 <날아가 버린 새>가 배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B-10-4} 국립극단 자체 추가 조사 경위

2015년 날짜 미상(상반기)

문체부는 경영관리팀장을 통해 전인철 연출가를 비롯한 특정(블랙리스트) 연출가 및 단체를 배제하라고 지시함.

2015년 날짜 미상

2016년 공연사업계획 중 ‘젊은연출가전’에 전인철 연출가를 섭외했으나, 김윤철 예술감독은 사무국 회의 시 경영관리팀장으로부터 ‘전인철 연출가는 배제 대상’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음. 이에 박○○ 공연기획팀장에게 전인철 연출가를 만나서 잘 이해시킬 것을 지시했고, 박○○ 공연기획팀장은 해당 연출가를 직접 만나서 ‘16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17년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함. 이후 2016년 공연 사업에서 배제함.

2015년 12월 4~5일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주최로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낭독 쇼케이스를 진행함.

2015년 날짜 미상(12월 22일 전후)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내부 논의에서 2016년 공연 사업 후보로 <날아가 버린 새>를 결정함. 송년회 행사를 앞두고 진행된 사무국 회의에서 2016년 공연사업계획을 검토함. 유○○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부소장이 <날아가 버린 새>를 최종 후보작으로 보고하자 김윤철 예술감독은 ‘젊은연출가전’ 사례와 유사하게 전인철 연출가와 작업할 것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을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날아가 버린 새>는 공연 사업 후보에서 배제됨.

(B-10.7) 김윤철 1회 진술조서, 4쪽 (2018-04-10)

[B-10]

2019년 4월 말

국립극단은 서울문화재단 2019년 예술작품지원사업으로 <날아가 버린 새>(극단 돌파구, 작 장지혜, 연출 전인철)가 선정됐다는 사실을 인지함.

2019년 5월 19일

<나는 살인자입니다>(B-10.8) 서울 공연 중연 간담회에서 전인철 연출가를 만난 이성열 예술 감독(B-10.9)은 <날아가 버린 새>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그 자리에서 전인철 연출가는 '2016년에 <날아가 버린 새> 공연을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연출이었던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장지혜 작가가 피해를 입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 (본인이) 직접 연출하지 않아도 좋으니 국립극단에서 <날아가 버린 새>를 공연하면 좋겠다'는 뜻을 예술 감독에게 전달함.

2019년 5월 24일

이성열 예술감독은 장지혜 작가와 직접 만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백서』에서 확인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배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작가의 의견을 청취함. 이 자리에서 장지혜 작가는 국립극단에서 <날아가 버린 새>를 공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예술감독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대답함.

2019년 날짜 미상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백서』에 의해 국립극단에서 예술가들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에 해당하는 모든 예술가의 작품을 다시 공연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고, <날아가 버린 새> 공연 추진 역시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내림.

2019년 6월 26일

다시 장지혜 작가를 만난 자리에서 이성열 예술감독은 <날아가 버린 새> 공연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2019년 6월 27일

장지혜 작가는 이성열 예술감독과 만난 뒤에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연구원에게 전화해 국립극단의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함과 동시에 국립극단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함.

2019년 6월 28일

이후 이성열 예술감독과 장지혜 작가의 통화에서 “내가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맞느냐”는 장지

(B-10.8) <나는 살인자입니다>, 2019-04-24~2019-05-19, 백성희장민호극장, 2017년 초연, 각색·연출 전인철

(B-10.9) 이성열은 2017년 11월 10일 예술감독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0년 11월 9일까지다.

[B-10]

혜 작가의 질문에 이성열 예술감독은 “장지혜 작가의 <날아가 버린 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차원에서 2016년 공연 사업 후보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김윤철 전 예술감독의 반대로 공연이 무산됐다. 김윤철 전 예술감독의 반대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현재 예술감독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답함. 이에 장지혜 작가는 백서에 <날아가 버린 새>가 블랙리스트 피해 작품으로 명시됨을 들며 “백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되물음. 이에 이성열 예술감독은 “백서가 백 퍼센트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함.

2019년 10월 21일

<날아가 버린 새> 블랙리스트 사건 국립극단 사과문 발표

{B-10-5} <날아가 버린 새> 관련 국립극단 사과문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성열)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장지혜 작가님께 뒤늦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작가님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과문을 국립극단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합니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아가 버린 새>의 장지혜 작가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립극단은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 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도화선이 된 <개구리>(원작 아리스토파네스, 극본·연출 ○○○)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걸쳐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따른 예술가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립극단은 이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극단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당시의 발표문에서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며 피해자께도 직접 사과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립극단은 사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되어 작품과 공연에서 배제된 예술가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작업함으로써 자동으로 작품과 공연에서 배제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누락된 것입니다. 아래에 기술하는 <날아가 버린 새>의 장지혜 작가님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국립극단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배제 및 그 후의 부족한 조치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느끼셨을 장지혜 작가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을 함께 준비하셨던 배우 및 스태프, 그리고 관람 기회를 박탈당하신 관객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연출가 및 단체(블랙리스트)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국립극단은 다음 해 공연 사업 중 하나인 ‘젊은연출가전’에 전인철 연출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출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시한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B-10]

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전(前) 예술감독은 사무국 회의에서 당시 재직 중이던 공연기획팀장에게 전인철 연출가를 직접 만나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공연기획팀장은 전인철 연출가를 만난 자리에서 '2016년에는 작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 2017년에 다시 잘 진행해보자'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2016년 공연사업에서 전인철 연출가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폭력이었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명백한 외압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에 의해 예술가 배제를 직접 실행하는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후 2015년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국립극단 사무국 산하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작품개발사업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를 개최하여 <날아가 버린 새>(작 장지혜, 연출 전인철)를 비롯한 세 작품의 낭독 쇼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쇼케이스 직후 연구소는 연구소 차원의 내부 논의를 진행하여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의 <날아가 버린 새>를 2016년 공연사업 후보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사무국 회의에서는 2016년 공연사업 계획을 검토하였고 당시 연구소 부소장이 회의 석상에서 '연구소 내부 논의를 거쳐 <날아가 버린 새>를 2016년 공연 후보작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하자 전 예술감독은 앞서 기술된 '젊은연출가전' 사례와 유사하게 전인철 연출가와 작업할 것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을 지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날아가 버린 새>는 공연 사업 후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극단은 전인철 연출가 블랙리스트 배제 조치를 실행하여 <날아가 버린 새>의 장지혜 작가님께도 동일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2019년 4월 국립극단은 서울문화재단 2019 예술작품지원사업에 <날아가 버린 새>(극단 돌파구, 작 장지혜, 연출 전인철)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5월 19일 <나는 살인자입니다>(원작 호시 신이치, 각색·연출 전인철) 서울 공연 중연 간담회에서 전인철 연출가를 만난 이성열 현(現) 예술감독은 <날아가 버린 새>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인철 연출가는 '2016년에 <날아가 버린 새> 공연을 못 하게 된 것은 당시 연출이었던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장지혜 작가가 피해를 입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 (본인이) 직접 연출하지 않아도 좋으니 국립극단에서 <날아가 버린 새>를 공연하면 좋겠다'는 뜻을 현 예술감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후, 5월 말경 현 예술감독은 장지혜 작가님과 직접 만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확인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배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작가님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지혜 작가님은 국립극단에서 <날아가 버린 새>를 공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현 예술감독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답했습니다.

이후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의해 국립극단에서 예술가들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모든 예술가의 작품을 다시 공연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추진 역시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월에 다시 장지혜 작가님을 만난 자리에서 현 예술감독은 이러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작가님과의 통화에서 "내가(장지혜 작가)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현 예술감독은

[B-10]

"장지혜 작가의 <날아가 버린 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차원에서 2016년 공연사업 후보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전 예술감독의 반대로 공연이 무산되었다. 전 예술감독의 반대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 예술감독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장지혜 작가님은 백서에 <날아가 버린 새>가 블랙리스트 피해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들며 "백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현 예술감독은 "백서가 백 퍼센트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지혜 작가님께 본인이 블랙리스트 피해자임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후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극단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장지혜 작가님이 논의 선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를 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장지혜 작가님께 사과드립니다.

국립극단은 장지혜 작가님께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2015년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날아가 버린 새>가 공연 배제됨으로써 전인철 연출가와 동일한 피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후 발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통해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의 <날아가 버린 새>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장지혜 작가님께 아무런 합당한 사죄의 뜻을 직접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지혜 작가님은 이렇듯 두 번에 걸친 국립극단의 잘못 때문에 두 배로 큰 상처와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이 모두가 국립극단의 과오이고 불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지만 너른 마음으로 저희 국립극단의 사과를 받아주시길 장지혜 작가님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국립극단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소신 있게 일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지혜 작가님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립극단

[B-10-6] 연출가 전인철의 목소리

국립극단으로부터 '2016년 젊은연출가전'을 제안받았다. 그리고 몇 달 뒤 내부의 문제로 공연을 미루자는 내용의 연락이 왔다. 문체부에서 작성한 명단이 있었다. '2016년 젊은연출가전'은 박근혜 씨 탄핵과 함께 2017년 공연되었다. 장지혜 작가의 <날아가 버린 새>는 2015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창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희곡으로, 국립극단에서 공연되지 못했다. 2014년, 2015년, 2016년 국립극단은 문체부가 작성한 명단으로부터 창작자들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문체부에 '양해'를 얻어 계획되어 있던 대부분의 공연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 젊은 작가를 희생시켰다. 희생자는 우리 안의 약자였다.

[B-10]

[B-10-7] 작가 장지혜의 목소리

내게 빨간 지붕은 정거장이 되어버렸지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립극단’이라는 네 글자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깊은 무기력함에 짓눌렸다. 결국 미루고 미루다 기한이 다 돼서야 글을 쓰게 되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도통 생각나지 않는다. 무수히 많은 감정이 머릿속을 뒤집어 놓는다. 감정을 배제하고 써보려 했지만 아무래도 무리겠다. 내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는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웃음만 입가에 흘러나올 뿐이다.

〈날아가 버린 새〉는 2015년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청소년창작벨트에서 낭독공연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총 세 편의 청소년 낭독공연이 올라갔는데 그중 한 편이 뽑혀 본공연으로 제작되는 시스템이었다. 공연을 마치고 얼마 후에 당시 담당이었던 ○○○ 연구원님에게 전화가 왔다. 낭독공연 세 작품 중 본공연 제작공연으로 〈날아가 버린 새〉가 뽑혔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재차 확인 후 통화를 마쳤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다. 이전 통화와는 상반된 목소리였다.

아쉽게도 다른 작품이 올라갈 것 같다는 말이었다. 아쉬웠지만 다른 작품들 또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작품이었기에 그저 후보라도 오른 것에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쓰다보면 언젠가 나도 이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으리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2019년, 대학 동문들과 극단을 만들어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던 때였다. 공연 준비를 하며 바빠 시간을 보내던 중 연락이 왔다. 당시 작품의 연출을 맡은 전인철 연출님이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15년도 당시 〈날아가 버린 새〉가 공연을 못한 이유는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공연을 올리지 못한 것이었고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백서에 기재되어 있는 글을 보는 순간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

이후 국립극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9년 5월 24일 당시 예술감독님이었던 이성열 감독님과 ○○○ 연구원님을 만났다. 자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확인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배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관련하여 내게 의견을 묻기에 “당시 공연을 못한 이유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문제였다면 이제라도 국립에서 공연을 하면 되지 않나”라는 뜻을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감독님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논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대화를 마쳤다. 이후 6월 26일,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2차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백서에 의해 국립극단에서 예술가들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모든 예술가의 작품을 다시 공연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날아가 버린 새〉 또한 공연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해진 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화를 마치고 혼자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데 뒤죽박죽 엉켜버린 상황과 몰려오는 생각에 자리에 주저앉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만남 이후 이 감독님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제가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맞나요?”라는 말에 감독

[B-10]

님은 “2016년 공연 사업 후보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전 예술감독의 반대로 공연이 무산되었고, 그 반대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백서에 〈날아가 버린 새〉가 피해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라는 나의 물음에 “백서가 백 퍼센트 맞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통화를 마치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연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날은 정말 이상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더듬으며 나갈 문을 찾는 기분이었을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인가? 아닌가? 국립극단에서 말하는 사과가 더 이상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 당시에 공연을 배제해서? 지금 공연이 안 돼서? 아님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리고 마음을 더 높렸던 것은 이상한 죄책감이었다. 당시 예술감독님이었던 이성열 감독님께 전화를 하는 것도, 어떤 말을 재차 묻는 것도, 속상한 마음을 갖는 것도 한편으로는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싶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감옥에 들어간 대통령을 찾아가야 하나. 불만 지피고 떠난 말없는 전 예술감독을 찾아가야 하나.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도 입 안이 텅텅해진다.

이후 이행협치추진단 이양구 위원님과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고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눈 후에서야 〈날아가 버린 새〉가 논의의 선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를 당한 피해자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1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인정도 받고 사과도 ‘또’ 받았으나 과정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에 이르렀지만 내 안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국립극단 이름과 서울역의 빨간 지붕을 보며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꿈의 무대라고 한다. 스물두 살, 내게 있어서도 국립은 꿈이었다.

가족들에게도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으로 그치고 말았다. 지독한 감기를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면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때의 그 일들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내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작품을 쓰는 데에 있어 그 순간의 감정들이 불현듯 찾아올 때면 한 글자도 쓰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런 스스로가 답답하여 하루에 몇십 번씩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한다.

19년도에 발표된 사과문 말미엔 이렇게 쓰여 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 그날이 언제쯤 올까. 나에게 상실되었지만 국립극단이 다른 누군가에게 여전히 꿈의 무대, 기쁨과 설렘을 안기는 극장이 되길 바라고 바라본다.

[B-11]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양해 조치 경위

{B-11-1} 문건 등 자료 조사

①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공연 소개

국립극단 제작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연출 ○○○)(B-11.1)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됐다. 공연 내용은 장군 도안고가 권력에 눈이 멀어 적수인 문인 조순의 가문을 멸족하는 정치적 처단을 자행하는데, 조씨 집안의 문객 정영이 자기 자식과 아내를 희생하면서 조씨 고아를 살려야 하는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20년간 복수의 씨앗인 정발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한 도안고는 정영을 자신의 편으로 믿고 정발을 양아들로 삼아 무인으로 훈련시킨다. 정발이 장성하자 정영은 참혹했던 지난날을 고백하며 양아버지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부탁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정발은 20년 전 죽음을 당한 친아버지 조삭, 20년간 키워준 아버지 정영, 그리고 두 얼굴의 양아버지 도안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 리스트-16. 2. 1. 현재

문체부 오○○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 2. 1. 현재’(B-2-3) 26쪽에서 ○○○ 연출가가 국정원(K)과 청와대(B)의 동의를 얻어 양해 조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B-11.2)

{B-11-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참고인 박○○의 진술

참고인 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이 기획·제작했던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 양해 조치됐다는 결과만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 연출이 각서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1.3)

② 참고인 윤○○의 진술

참고인 윤○○(국립극단 사무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 연출의 양해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1.4)

③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경영관리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문체부가 ○○○ 연출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에 대한 공연 취소를 문의한 바 있고, 재공연 당시에는 박민권 1차관의 노력으로 ‘양해 조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1.5)

(B-11.1)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2015년 명동예술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2016년(베이징),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재공연됐다.
{B-2-3} 참조

(B-11.2) 해당 문건에는 “연출가 ○○○(15. 12. 8.)”, “양해팀(K, B 동의/1차관)”이라고 기재돼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2-3권, 276쪽 참조

(B-11.3) 박○○ 1회 진술조서, 11~12쪽 (2017-12-12)

(B-11.4) 윤○○ 1회 진술조서, 8쪽 (2017-12-19)

(B-11.5) 정○○ 1회 진술조서, 8~9쪽 (2018-01-05)

[B-11]

④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박민권 1차관이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공연을 보러 와서 공연이 너무 좋다면서 지방 공연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윤○○ 사무국장이 ○○○ 연출이 “리스트에 있다는데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박민권 1차관이 알아 보겠다고 한 후 양해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1.6)

⑤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공연이 끝난 후 박민권 차관이 공연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립극단 제작으로 〈한국인의 초상〉 연출로 ○○○이 섭외되자, ○○○이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국립극단 직원들에게 들었습니다. 저는 문체부 차관, 공연과장, 예술국장, 사무관 등에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박민권 차관이 나 ○○○ 신시컴퍼니 대표가 청와대 쪽으로 노력을 해서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압니다. 결국 특정 작품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 연출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2015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예술 검열이 논란이 되었을 때 서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하는데, 소문이어서 확실하지는 않고 다만 리스트에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11.7)

⑥ 참고인 ○○○의 진술

참고인 ○○○(문체부 예술국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 연출이 문제가 돼 박민권 차관이 양해를 받았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고, 자신이 문체부 예술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립극단에서 실행됐던 블랙리스트에 관해 전반적인 배제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고, 담당 과 사무관·과장 등이 진행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B-11.8)

{B-11-3} 소결

이상의 사실을 통해 ○○○ 연출가가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 대상이었으나 박민권 차관 등이 국정원(K)과 청와대(B)의 동의를 얻어 양해 조치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B-11.6) 정○○ 1회 진술조서, 11쪽 (2018-01-07)

이와 관련해 윤○○은 당시 “○○○ 연출이 리스트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공연이 가능하게 해결해주시면 합니다”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했다.(2018-12-12)

(B-11.7) 김윤철 1회 진술조서, 5쪽 (2018-04-10)

(B-11.8) ○○○ 1회 진술조서, 10쪽 (2018-03-23)

국립극단 공동 주최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이 취소된 경위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5년 10월 초순 김광보 연출에게 제 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B-12.1) 국립극단 공동 주최의 건을 취소하자고 했던 것에 대해, “김광보가 블랙리스트여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일연극교류협의회 낭독공연 직전에 문체부에서 일체의 외부 단체에 극장을 빌려주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같은 국립기관인 서울예술단이 극장 사용 요청을 했을 때도 극장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더 큰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낭독공연 정도를 하지 않는 정도의 문체부 요청은 받아들였던 것인데, 김광보 연출이 서울시극단 단장이어서 그쪽 극장에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B-12.2)

한편, 한일연극교류협의회(회장 김광보)에 대해서는 2015년 예술위 공모 사업에서 양해 조치됐던 기록이 확인된다.(B-12.3)

(B-12.1)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및 심포지엄, 2016-02-19~2016-02-21,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B-12.2) 김○○1회 진술조사, 7쪽 (2018-04-10)

(B-12.3) '리스트-16.2.1. 현재', 7쪽

2016 '작가의 방'의 경우

{B-13-1} 문건 등 자료 조사

❶ '국립극단 '작가의 방'(B-13.1)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

신청인 고연옥은 『연극평론』에 기고한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B-13.2)에서 '작가의 방' 공식적인 첫모임에서 '첫째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 '둘째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 달라는 것' 등의 말이 나왔다고 하면서, 국립극단이 젊은 극작가들에게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연극 <개구리> 사태 이후 국립극단이 겪었던 풍파를 겪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❷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2017년 5월 2일 마로니에공원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토론회에 참석해 ○○○○○○○○○○○ 등과 작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도 정부를 설득해서 문제 없이 공연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작가의 방'과 관련해서는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달라는 정○○ 공연기획팀장의 발언은 국립극단의 입장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개방성을 간섭의 문제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B-13.3)

한편 정○○ 공연기획팀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에게 "무조건 마음대로 써라, 그러면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작품을 한다고 다 약속을 못하니 일단 마음대로 다 쓰십시오, 그리고 국립에서 못한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하면 되니까 다 쓰십시오'라고 말을 한 것이 뒤집어 말하면 '국립에서 못하는 작품은 쓰지 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자기 검열의 실수를 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B-13.3)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자혜 작가는 <개구리>라는 단어가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가 검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국립극단 측이 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사 '작가의 방' 첫 모임 자리에서 있었던 자신이 그날 검열을 강요하는 발언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국립극단은 그날 국립극단 측의 발언이 검열로 작동될 수도 있는 말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성찰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B-13.3)

(B-13.1) '작가의 방' 프로젝트는 가능성 있는 창작아이디어 및 초고를 발굴해 극작가그룹 내의 지속적인 토론과 전문가 멘토링, 대본 낭독회 등을 통해 창작극을 개발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국립극단의 극작 네트워크다. 국립극단이 초대한 신진 작가 10명과 월 2회 정기 모임을 통해 신작을 집필하고, '작가의 방' 낭독극장에서 6편을 선보였다

(B-13.2) 고연옥,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 『연극평론』 통권 84호(2017 봄호)

(B-13.3) ○○○,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연극평론』 통권 85호(2017 여름호), 131, 135쪽
(B-13.3) 132쪽 참조
(B-13.3) 133쪽 참조

[B-13]

[B-13-2] 참고인 등 대인 조사

① 신청인 고연옥의 진술

신청인 고연옥은 위원회 조사에서 2016년 5월 국립극단 ‘작가의 방’ 첫모임(김윤철 예술감독, 윤○○ 사무국장, 정○○ 공연기획팀장 등 참여)에서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국립극단 측의 발언에 대해 참여 작가들이 정치적인 내용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인가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길 바라느냐’ 하고 물었는데, 정○○ 공연기획팀장이 ‘관객들이 보았을 때’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세월호는 괜찮아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은 예를 들어 <개구리> 같은”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B-13.4)

신청인은 또 정○○ 공연기획팀장의 위와 같은 발언이 “젊은 극작가들에게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의 작품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자기 검열의 기제를 작동시켰다”고 보면서, “당시 2015년 하반기 논란이 되었던 예술위의 검열 사태에 저항하는 <권리장전2016_검열각하>(B-13.5)에 20개 공연단체가 6월부터 공연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의 방’에 모인 젊은 작가들 역시 검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발언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극을 발표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젊은 작가들이 ‘작가의 방’에 모은 것 자체가 작가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창작극을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 기획팀장의 위 발언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작품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B-13.4)

② 참고인 정○○의 진술

참고인 정○○(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은 위원회 조사에서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말은 자신이 평소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고, 만약 자신이 그런 말을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오티(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말은 아니고, 당시 국립극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유와 형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부연 설명으로 “그런데 제가 국립극단에서 일을 해 보니, 국립극단은 <개구리> 사태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특정 정치인을 소재로 쓴 작품들의 경우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작품들이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립극단에서 못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극단에서 해도 되고 공모전에 내도 되니 국립극단을 염두에 두지 말고 본인이 쓰고 싶은 작품을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발언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작가들에게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면 특정 언론이나 특정 정치인을 소재로 삼아서 <개구리> 같은 논란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

(B-13.4) 고연옥 1회 진술조서, 4~5쪽
(2017-10-26)

(B-13.5)
<권리장전(權利長戰)2016_검열각하>, 2016-06-09~2016-10-30, 대학로 연우소극장, 젊은 연극인들을 주축으로 ‘검열’을 소재나 주제로 삼아 20개 극단(팀) 21개 작품이 5개월간 공연됐다.

(B-13.4) 5~6쪽 참조

[B-13]

는데, 이는 ‘작가의 방’ 기획 의도 자체가 검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B-13.5)

③ 참고인 ○○○의 진술

참고인 ○○○(국립극단 피디)은 위원회 조사에서 ‘작가의 방’ 예산은 전년도(2015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작가의 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체부의 허락을 얻어 예산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자신은 문체부와 소통한 사실은 없고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지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3.6)

④ 참고인 김윤철의 진술

참고인 김윤철(국립극단 예술감독)은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정○○ 공연기획팀장이 ‘작가의 방’을 문체부로부터 허락받기 위해서 힘드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고, ‘작가의 방’ 기획은 고연옥 작가, 구자혜 작가가 함께했던 데서 볼 수 있듯 블랙리스트 작가들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으며, ‘작가의 방’ 예산은 공연사업비 쪽에서 가져온 것이고, 정○○ 공연기획팀장이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은 실수일 것이고 소재의 제한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작가의 방’ 기획은 국립극단 공연을 전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극작가들이 창작품을 집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B-13.7)

[B-13-3] 소결

다음의 사실을 통해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 중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016년 5월경 ‘작가의 방’ 공식적인 첫모임에서 정○○ 공연기획팀장이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라는 말을 했는지 여부, 작품 소재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 공연기획팀장이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작품을 국립극단이 공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B-13.3)

‘작가의 방’ 기획 의도 자체가 검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 공연기획팀장의 진술(B-13.5)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지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 피디의 진술(B-13.6) ‘작가의 방’ 프로그램은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김윤철 예술감독의 진술(B-13.7)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국립극단에서 창작극을 발표하고 싶은 젊은 작가들에게 정○○ 기획팀장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작품은 안 해야겠

(B-13.5) 정○○ 1회 진술조서, 14~16쪽
(2018-01-07)

(B-13.7) 김윤철 1회 진술조서, 6~7쪽
(2018-04-10)

(B-13.5) 참조

(B-13.6) 참조

(B-13.6) ○○○ 1회 진술조서, 3쪽
(2018-03-09)

(B-13.3) 132쪽 참조

(B-13.7) 6쪽 참조

[B-13]

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신청인의 진술(B-13.4) 그날 국립극단 측의 발언이 검열로 작동될 수도 있었다는 구자혜 작가의 발언(B-13.3) 모든 작품이 국립극단에서 공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작가들에게 오해를 주었을 수도 있었다는 정○○ 참고인 자신의 진술(B-13.5)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적어도 ‘작가의 방’에서 집필한 작품을 국립극단에서 공연하기를 희망했던 작가들에게는 소재의 제한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작가의 방’ 프로그램 기획 및 극작가 선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 혹은 양해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체부 오○○ 사무관이 작성했던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확정’, 24쪽 하단에서 2015년 4월 13일 현재 고연옥 책임작가가 ‘정무리스트’에 등재돼 있어서 배제 대상이라는 사실, 문체부 오○○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 2. 1. 현재’ 문서(12쪽 하단)에서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중 구자혜 작가가 ‘해화동 1번지 6기 동인’으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연옥 작가나 구자혜 작가에 대한 양해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문서 혹은 진술은 전혀 없는 반면, ‘작가의 방’에서 검열의 문제는 없었다는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의 진술(B-13.3)과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사실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검열의 대상이 될까봐 문체부에 작가 리스트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이는 제작 공연이 아니라 작품 개발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정○○ 공연기획팀장의 진술(B-13.5) ‘작가의 방’을 공모제로 한 것은 좋은 작가를 섭외하지는 취지였으며 작가 섭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적용되거나 양해되는 일은 없었다는 ○○○ 피디의 진술(B-13.6)만이 있어서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나 양해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초 ‘작가의 방’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서 작가를 선발하려고 했으나, 윤○○ 사무국장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공모제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초청 형식으로 작가 선정 방식을 바꾸고 문체부에 작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검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국립극단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다는 정○○ 공연기획팀장의 진술(B-13.5) 기획 자체가 블랙리스트 작가들도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김윤철 예술감독의 진술(B-13.7)을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공모제를 회피했던 방식 자체가 블랙리스트 작가가 응모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검열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6년 1월 8일경 문체부 작성 「2016년 문예기금 지원체계 개편(안) 보고」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2016년에 문체부가 전반적으로 공모 사업을 줄이고 기획 사업을 강화해갔던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B-13.8)

(B-13.4) 5~6쪽 참조

(B-13.3) 133쪽 참조

(B-13.5) 15쪽 참조

(B-13.3) 131, 135쪽 참조

(B-13.5) 13쪽 참조

(B-13.6) 참조

(B-13.5) 13쪽 참조

(B-13.7) 6쪽 참조

(B-13.8) ○○○ 문체부 예술국장은 위 문서와 관련해 2018년 3월 23일 위원회 조사에서, 청와대 김소영 문체비서관이 문예기금 지원 시스템을 바꾸라는 지시를 해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① 정기 공모 사업 축소 ② 공모 사업의 기획 사업으로 전환 등의 개편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관해서는 (B-11.8) 5쪽 참조. 이 진술은 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편에 관한 내용이지만 문체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다른 산하기관에도 동일한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B-13]

(B-13-4) 작가 고연옥의 목소리

국립극단이 잃어버린 것들

0.

이 글을 쓰기 위해 2016년 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 관련 17개 문서를 출력하거나 복사해놓고 한동안 그대로 두었다. 4년 전 그 시간을 펼쳐보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8월의 어느 토요일 정오부터 자료를 순서대로 읽어 내려갔다. 처음으로 문제 제기했던 연극평론지와 SNS에 공유되었던 여러 사람들의 글, 간담회의 기록,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백서 등이다. 중간에 여러 번 멈추고 드러누웠다.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사태 이후 꽤 오랜 시간 내상이 지속되었다.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예민했으며,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 마음은 온통 미움으로 가득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희곡을 쓸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절망은 더욱 컸다. 대학에서의 희곡 수업과 각 기관에서 극작 워크숍을 진행할 때, 제도 연극 속에서 희곡과 극작가의 위치에 대해 얘기해야 할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제어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그때 난 부서진 사람이었다.

자료를 다 읽고서 올해 초,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들의 기고문을 모은 사례집이 처음 제안되던 당시의 풍경이 떠올랐다. 기록과 기억이라는 취지에 모두가 공감했고 진정성 있는 첫걸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난 어떤 말도 하기 힘들었다. 그저 리모콘을 누르면 사라져 버릴 TV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다시 그 시간을 대면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피해자여야 하는가, 라는 쓴물같은 질문이 든다. 이 글을 읽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현재 국립극단 직원들, 언젠가 새로 입사하게 될 직원들, 관심 있는 연극계 동료들, 혹은 문체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읽게 될까? 의무감일까, 호기심일까. 과연 이 책이 국립극단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들이 밀려온다. 당시의 자료를 읽은 직후이기에 다시 그때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모양이다. 난 이미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정해 버렸다. 처음으로 그 사태 속에서 느꼈던 나의 감정들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써보려 한다. 당시에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말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국립극단만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것도 먼저 밝힌다.

1.

국립극단 ‘작가의 방’에서 ‘책임작가’라는 직함을 갖고 있던 나는 정확히 말해 이 사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일까. 처음 ‘작가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10명의 작가들일까? 아니면 2016년 11월 낭독공연에 참여한 6명의 작가들일까? 지금은 그 경계도 희미해진다.

작가의 방이 시작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다. 첫 모임에서 시작된 위기는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었고, 난 두 번 정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내가 ‘작가의 방’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남은 작가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막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궁색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나 역시 엄청난 피해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11월 말, 낭독공연된 6편 중 1편은 젊은 극작가전, 3편은 쇼케이스, 2편은 탈락이라는 결정이

[B-13]

내려진 바로 그날, 나는 예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의 심한 통증 때문에 선생이 된 이래 최초로 수업을 중단하고 귀가 중이었다. 국립극단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받은 작가들에게 잇달아 전화가 걸려왔다. 탈락한 두 편의 작품은 페미니즘 이슈를 전면에 다루고 있었다. 집에 와서 급한 대로 진통제를 먹고 정○○ 공연기획팀장 면담을 요청한 후 명동예술극장으로 향했다.

면담 자리에서 나는 6편의 공연 모두가 장단점이 있는데, 그중 2편을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작가의 방’ 처음 의도와는 다르다. 탈락한 작가와 작품은 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내 돈 4억 5천으로 젊은 작가들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소리 들을 줄 알았으면 ○○○(에게) 1억, ○○○(에게) 1억, ○○○(에게) 1억 주고 작품 쓰라고 할 걸 그랬네?”

‘내 돈’이라는 말은 실수가 분명하다. 그런데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평소에도 말실수가 잦은 사람이니 이번에도 넘어가야 하는 걸까? 진심으로 참을 수 없었던 건 그중에 내 이름이 있었다. 그 말은 명백히 ‘나는 너에게 작가료 1억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어느 국공립 극장도 작가에게 그만큼의 작가료를 줄 수 없다. 더구나 공연기획팀장은 작가와 작가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 팀장은 그 전에도 관계가 악화될 때 자신과 나의 관계를 예들러 말해왔다. “김윤철 감독님 연임 안 하신대요. 우리 이제 그 작가님 작품 할 수 있어!” 활짝 웃는 얼굴로 얘기할 때, 난 안 그래도 피곤한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넘겨 버렸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만 시도했던 방식이었을까? 일부 참여 작가들에게도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하곤 했다. 첫 모임에서 나온 말,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 ‘〈개구리〉 같은 작품은…’에 대해 한마디도 항의할 수 없었던 나와 참여 작가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의 경우를 돌이켜 보자. ‘작가의 방’ 사전모임이 있었다. 정○○ 팀장과 담당인 ○○○ 피디 그리고 나, 셋이 모인 자리에서 정○○ 팀장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개구리〉 같은 작품…’을 얘기했고, 난 국립극단이 한차례 큰 폭풍을 겪었기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일견 이해는 되었지만 설마 작가들 앞에서 까지 얘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공식 자리에서 다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다. 왜 그런 얘길 해선 안되는지 설명해야 했나,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항의했어야 했나, 후회가 되었다. 동시에 참여 작가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설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겨우 첫 모임인데 여기서 관계를 망치면 안된다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저들이 언젠가 내 작품을 높은 퀄리티로 제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

사전모임에서 나왔던 얘기 추가.

‘참여 작가들은 국립극단과 일해본 경험이 없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 작가님이 경험이 많으니 중간에서 잘 가르쳐 주길 바란다.’

이 말은 (국립극단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참여자들 스스로 국립극단과 일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는 의미다. 나는 이 발언에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과연 어떻게 했었나 생각했다. 나름 좋은 시절, 좋은 관계였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생존을 위한 나의 노력이었던가. 대체 참여 작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는 말이었을까.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말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국립극단의 확고한 방향성이 있으며, 국립극단 경험이 많은 창작자들은 ‘알아서’ 맞춰 가지만, 경험이 없는 신진 창작자들의 경우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닐까? 국립극단이 참여 작가들, 아니 창작자들 전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게

[B-13]

하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증견 작가라고 받았던 대접과 존중이 얼마나 모래알같은 것이었는지 느꼈던 순간이었다.

이쯤에서 궁금해진다. 이 글을 읽게 될 국립극단 직원들은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은 국립을 떠난 개인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절대 목했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 팀장이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공립 단체 중에서도 국립극단은 그와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지금도 그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국립에서 작업 한 번 하셔야죠.’라는 가벼운 인사치레 같은 말에도 국립[극단] 직원과 작업자의 관계는 정해진다. 그런 관계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느끼게 되면 그는 국립극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과 취향에 못미치거나 결이 다른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작자들을 길들이려고 시도한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조직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한 인정투쟁의 일종이다. 리더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힘없는 직원들과 조직 그 자체이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선 상식 이하의 간섭을 하게 되고 조직에서 자유로운 소통은 사라진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찾아온 젊은 창작자들 역시 작품의 대중적 성공 여부를 떠나 가장 지우고 싶은 작품을 남기게 된다. 과장도 비약도 아니다. 왜 국립극단과 젊은 창작자들은 파트너십을 나눌 수 없는지, 지금까지도 왜 국립극단을 젊은 창작자들의 무덤이라고 부르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처음 ‘작가의 방’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2017년 봄호 『연극평론』 ‘국립극단 작가의 방, 왜 극작가를 교육, 교정하려 하는가?’(원제목 ‘왜 한국의 극작가들은 교육과 교정의 대상인가?’)에서도 나는 국립극단의 젊은 작가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가장 크게 지적했다. 그리고 참여 작가들 역시 SNS와 토론회 자리에서 검열보다는 ‘태도’의 문제에 가장 큰 상처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 팀장으로 대표되는 국립극단의 태도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창작자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검열은 단지 위에서 내려온 문서 때문에, ‘까라면 깔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현실 때문에, ‘아닌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 힘이 없기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에겐 그래도 된다는 의식, 내가 바로 조직 그 자체라는 확신 속에 차마 ‘검열’이라는 확정적인 말로 부르기에 애매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2.

문제제기한 연극평론지가 나온 이후 3월 16일자 한겨레신문에 ‘[단독] 국립극단도 검열했다…“개구리” 같은 작품 쓰지 말라’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때부터 ‘작가의 방’ 사태는 ‘국립극단 검열 사건’으로 확정되었다. 사실 연극평론지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이 일을 크게 공론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다. 당시 『연극평론』 봄호에는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 체제의 반성과 과제’라는 특집이 준비되고 있었고, 내가 국립극단 ‘작가의 방’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던 어느 평론가의 제안이 있었다. 오랜 고민 끝에 기록 차원에서라도 글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책이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던 국립극단은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나자마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검열’ 논란은 기름을 부은 듯 퍼져 나갔다. 순식간에 ‘작가의 방’은 사라지고 다시 〈개구리〉가 주인공이 되었다.

[B-13]

나와 참여 작가들은 지속적으로 검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뒷전으로 밀렸다. 동료들은 ‘그래서 검열이나 아니냐’ 물었고, “태도’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타격을 줄 수 없다’고도 했다. 나와 작가들이 계속 ‘태도’에 대해 말한 것은 검열이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태도’란 말도 정확하지 않을지 모른다. 겉으로는 존중과 친근감을 표현하지만 끊임없이 약자의 위치를 강요받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노골적인 검열은 일어날 필요조차 없다.

나는 이왕 공론화가 되었으니 국립극단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징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적어도 공연기획팀장이라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검열’이든 ‘태도’의 문제이든 공식적인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토론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참여 작가들의 기대는 무참히 꺾였다. ‘작가의 방’을 공론화한 후 가장 비참했던 날이었다. 김윤철 예술감독이 사표까지 써놓고 문체부와 싸워 블랙리스트였던 ○○○·○○○·○○○의 공연을 성사시켰다고 얘기하는 순간 국립극단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강요받았다는 최초의 증언이 되었고, 동료들은 어떤 식으로 양해 조치가 있었는지 물으며 블랙리스트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날의 고백으로 김윤철 감독은 토론회의 주인공이 되었고, 참여 작가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인정도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에 정○○ 팀장이 다가와 활짝 웃으며 포옹을 시도했다. 아무리 블랙리스트와 검열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도 마음을 다잡아 발언을 정리하고 토론회를 준비했던 작가들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을까. 아직도 울분이 남아 있다. ‘작가의 방’에 초대되어 반년간 작품을 준비하여 올렸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한 작가들보다도 ○○○과 ○○○·○○○이 어떻게 공연을 올리게 되었는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었는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예술감독 발언의 요점은 이렇다.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받았지만, 라인업에 있는 연출과 작가를 배제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작가의 방’은 블랙리스트의 영향력 아래 있지도 않았으며, 검열이라고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음의 입장에 민감한 작가들의 피해의식일 수도 있다는 것. (정말 피해의식이라고 말했다!) 충격으로 말문이 막혀버린 작가들을 대신해 바로 그렇게 작가들을 약자로 만드는 태도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거라고 대신 싸워주는 동료는 없었다. 난 후배 작가들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후회했다.

3.

지독한 환멸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고 ‘작가의 방’ 사태도 신고를 하는 게 어떠한 권유를 받았다. ‘작가의 방’이 창작극 개발 사업인 만큼 <개구리> 이후 소재의 제한 등 조직적인 검열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것이 밝혀지면 책임자에 대한 징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이미 참여 작가들과의 소통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나 자신을 잡아먹는 일인지 알면서도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였다. 조사에 응했다가 이번에도 어느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한 채 들러리 역할을 하다 끝나 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돌이켜 보면 2016년은 글을 쓰고 연극을 시작한 이래 가장 힘든 시기였다. ‘작가의 방’ 사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내 작품이 연출가의 각색본으로 공연되는 일도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B-13]

‘우리’를, ‘나’를 믿어달라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관행이라고, 손해 보는 거 아니냐고, 역할이 가진 운명이라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처음부터 다른 세상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의 방’의 쟁점은 국립극단에서 참여를 의뢰한 우리 연극계 차세대 젊은 작가들에게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경쟁 체제를 요구한 것이다. 국립극단은 연락을 했던 모든 작가들이 흔쾌히 응했다면서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평가했지만, 그것은 공연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젊은 작가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경쟁을 통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모에 당선되는 경우가 그렇듯이 심사위원들 간의 합의가 잘 이뤄지는 무난한 작품이 될 확률이 높다. 작품마다 가진 장점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선결과 탈락으로 구분된다. 공연의 경우 지원제도 등을 통해서 재공연되어 수준을 끌어올릴 기회가 있지만, 희곡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 또한 ‘작가의 방’은 작가들의 워크숍으로 기획되었다. 소통이 부족했던 극작가들 사이에 심도 깊은 토론과 피드백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참여에 응한 작가들도 많다. 그런데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순간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처음 의도했던 소통과 우정은 어려워진다. 연극과 희곡을 사랑해서 극작가를 꿈꾸는 재능 많은 작가들이 다른 분야로 떠나는 이유에 대해 제도 연극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존재 증명을 해야 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작가들이 많다. 나는 ‘작가의 방’에 모인 작가들은 이런 존재 증명 과정을 충실히 밟아온 차세대 작가들이기에 경쟁이 아니라 18개월의 과정 동안 2번의 낭독공연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킬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을 ‘작가의 방’ 목표로 설정하고, 만약 작품 중에 국립극단에서 제작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따로 접촉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국립극단도 동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 ‘개구리’, ‘로얄코트 씨어터 드라마터그의 피드백’ 등이 개입되었던 것이다. 유독 창작극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윤철 예술감독 체제 국립극단이 서둘러 창작극을 공연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기획한 사업에서 서둘러 성과를 내고 싶었던 공연기획팀장의 무리한 추진력 때문이었을까. 낭독공연된 6개 작품이 모두 의미가 있고 완성도가 있지만, 예술감독이 페미니즘 이슈가 있는 ‘두 작품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도 공연기획팀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작가들은 물었다. 탈락한 작품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답변, ‘동료 작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다’. 과연 이것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말해야 했을까.

조사위원회는 ‘정○○ 공연기획팀장에 의해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적용 및 양해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통보했다. 그리고 ‘단체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자행된 일이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검열의 강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 후 꽤 오랫동안 국립극단에서 일했다.

4.

작가의 방에 모인 작가들은 당대 가장 기대되는 젊은 작가들이었지만, 국립극단과의 인연은 거의 이어지지 않았다. 이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참여 작가들만이 아니다. 국립극단 역시 중요한 기회를 잃었다. 젊은 작가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극장, 언젠가는 꼭 이 무대에 작품을 올리

[B-13]

고 싶다는 열망을 주는 극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그 후에 시도된 여러 사업들에서도 반전은 일어나지 못한 채 작가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작가의 방’ 사태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후 여러 기관에서는 신진 작가의 지원에 경쟁 체제를 지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페미니즘 쿼터 서사 장에 소수자성을 다루는 작품들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작가의 방’ 사태는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진통이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단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작가의 방’ 사태는 당연히 정○○ 공연기획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국립극단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문제다. 국립극단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불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 즉 작업자들 위에 군림한다고 믿는 한 이러한 권한 남용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이며, 정권의 블랙리스트, 검열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더 깊숙하게 파고들 것이다. 그것은 예술감독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2017년 말, 국립극단의 한 공연에 윤색으로 참여했다. 내가 국립극단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자 당시 ○○○ 연출님의 말씀, “국립극단이 재들 꺼니? 우리 꺼야!” 그 말 한마디에 홀린 듯 작업에 참여했다. 그런데 작업하는 내내 그런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과연 국립극단 구성원 중 국립극단의 주인은 연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우리 중 국립극단이 우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감정적으로 쓰기 시작한 글이니 감정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올렸던 시절 내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보기도 했고, 서울역에 갈 때면 저 것 봐! 하며 빨간 건물을 보여주었다. 진심으로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나에게 좋았던 시절 속에 내가 모르는 진실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작가의 방’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난 이미 나이와 경력에 있어 마음껏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성 작가였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다.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후론 그 빨간 건물을 보는 게 두렵다. 명동예술극장도 마찬가지다. 내 감정을 건물에 이입하다니 분명 정상이 아니다. 그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 감정이다. 그리고 나와 작가들은 그때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국립극단이 잃어버린 것들은 바로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사과해야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다. 한번 부서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데 만약 그때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직도 모른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있어도 없는 극장, 우리 마음에서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극장이 될 것이다.

[B-13-5] 작가 구자혜의 목소리

2016년 ‘작가의 방’ 사태 이후 국립극단은 ‘작가의 방’ 검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묻는다.

2016년 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 요약

2016년 상반기 국립극단으로부터 ‘작가의 방’ 참여 제안이 왔다. ‘젊은’ 작가들이 모여 ‘창작’ 희곡을 쓰는 ‘과정’을 거쳐 낭독공연까지 올린다는 취지의, 창작 희곡 발굴이 목표인 사업이었다. 2016년 11월 여섯 개의 낭독공연이 올라갔다. 낭독공연까지만 올린다는 애초의 계획에서 갑자기 벗어나, 여섯 개의 공연 중 네 개의 공연이 2017년에 국립극단에서 본공연으로 올라갈 ‘기

[B-13]

회’를 얻었다. 나는 본공연 제안을 받았지만 진행 과정에 문제를 느껴 공연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작가의 방’에서 벌어진 문제들이 ‘검열’의 맥락에서 읽히기 시작했고, 당시 참여 작가들과 책임작가 그리고 국립극단 직원이 각자의 SNS에 ‘작가의 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올리면서 연극계의 논쟁적 이슈로 확장되었으며, 한겨레신문 ○○○ 기자님의 기사를 거쳐 2017년 5월 초 공개 토론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공개 토론회의 제목은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 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였다. 그 당시 참여 작가들과 책임작가가 제기한 창작자들을 대하는 국립극단의 불합리한 태도의 문제와 더불어 ‘작가의 방’ 과정 중 나왔던 작품 <개구리>에 대한 언급과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말을 중심으로 검열 작동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공개 토론회는 정부가 국립극단에 행한 블랙리스트 관련 외압에 대한 이야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채로 마무리되었다.

2016년 ‘작가의 방’ 사태를 블랙리스트의 맥락에서 읽으려 하는 2021년의 국립극단

그리고 2021년 지금 나는 2016년 국립극단 ‘작가의 방’ 참여 작가로서, 『블랙리스트 사태 국립극단 사례집』(가제)에 실릴 원고를 쓰고 있다. 원고 청탁서의 제목은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_원고요청서’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국립극단은 이미 혹은 이제야 ‘작가의 방’을 블랙리스트 사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작가의 방’ 참여 작가인 당사자로서 나는 이 사태가 검열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검열 해야만 했으며, 2021년 지금까지 ‘작가의 방’을 당사자로서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고민해왔다. 2018년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극단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이성열·김광보 예술감독을 거쳐며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공연들의 참여진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 본인의 임기 기간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경우임에도,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과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작가의 방’은 해당되지 않았다.

2016년 이후 사과도 대화 요청도 없는 국립극단

2016년 ‘작가의 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에도 그전에도, 국립극단과 이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참여 작가들과 책임작가 그리고 ‘작가의 방’ 담당 국립극단 직원이 각자의 SNS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앞서 언급한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 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공개 토론회에서는 ‘작가의 방’ 사태를 통해 우리 연극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검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더 집중했다. ○○○ 기자님의 기사(‘국립극단도 검열했다...“개구리” 같은 작품 쓰지 말라’ 강요)에 대해 당시 김윤철 예술감독은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짧은 사과문을 올렸다. 즉, 국립극단은 ‘작가의 방’을 단 한 번도 검열의 맥락에서 읽어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립극단은 이제야 ‘작가의 방’을 특정 맥락에서 읽어내고자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작가의 방’ 참여 작가로서 그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작가의 방’의 검열 문제를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국립극단이 문제 발생 이후 참여 작가들과의 대화나 공식 사과와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블랙리스트 사태 국립극단 사례집』(가제)에 ‘작가의 방’을 사례로 넣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이 사례집은 국립극단의 성찰과 사유의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B-13]

국립극단의 '작가의 방' 사태에 대한 사유는 존재하는가

국립극단은 2018년 이후 창작자들에게 사과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작가의 방' 당사자인 나는 늘 수신자 없는 곳에 원고를 보내고, 글을 쓰는 사람처럼 느꼈다. 솔직히, 국립극단이 '작가의 방'을 국립극단과 창작자들이 충돌한, 그러나 검열이라고 보기에는 경미하고도 애매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21년 국립극단의 전략 방향에 가장 앞서 나와 있는 말은 '동시대 연극'이었으며, 2016년 '작가의 방' 홍보물에는 '시의성'이라는 키워드가 전면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립극단은 2016년 '작가의 방' 사태를 '블랙리스트'의 맥락에서 읽는 것에 대해 단순히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국립극단은 무엇을 성찰했는지에 대해 이제는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작가의 방' 사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 후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과 대화를 해 봐야겠다는 이야기가 국립극단 내부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블랙리스트, 검열 이후 2016년 '작가의 방'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2016년 국립극단이 '작가의 방'을 만든 이유는 창작극 발굴을 위해서이다. 한동안 국립극단은 해외 작품을 주로 초청하며, 한국 연극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많이 들은 터라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작가의 방' 낭독공연 당시 홍보 문구에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현대 미학을 구현하는 창작극을 개발'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묻고 싶다. 이전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완전히 끝난 것이고, 그래서 그와 분리시켜 그저 창작극을 발굴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블랙리스트 이후 국립극단 직원들은 어떤 논의를 했고, 서로가 느끼는 감각에 대해 무엇을 공유했는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며, 국립극단은 창작극을 어떤 태도로 개발해야 하며 창작자와 어떻게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이전의 검열은 검열이고, 이제는 창작극 발굴을 위한 현대 미학을 구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검열 이후, 국립극단은 무엇을 생각했어야 했다. 이것이 '시의성'의 전제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최소한 그 당시, 시의성에 대한 고찰의 출발은 이전에 겪었던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제로부터 출발했어야 하지 않나? 창작극 발굴을 서두르기에 앞서,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겪으며 무엇을 성찰했나? '작가의 방'은 그간 창작극 발굴에 미흡했던 국립극단의 미봉책이었나. 로열코트의 피드백을 받을 동시대 창작 희곡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국립극단에서 나오면 그만이었나? 블랙리스트, 검열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팀장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창작자에게 어떤 맥락에서건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말을 할 정도라면 국립극단은 그 후 어떤 성찰을 하고 있었나. 그리고 그러한 발언에 대해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발표하기까지 국립극단은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일까.

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는 '검열' 문제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검열인가?

나는 당시, 한겨레신문 ○○○ 기자님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개구리>가 언급이 되었는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윤철 예술감독의 '발언은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문화예술계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따른 별도의 지

[B-13]

시나 압력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입니다'에 대해서도 한 직원을 검열의 주체로 몰고 가는 듯한 책임 회피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윤철 예술감독의 발언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이번 일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느끼신 작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작가들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느꼈다면 사과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계 검열과 블랙리스트에 따른 별도의 지시나 압력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면 검열은 아니라는 맥락으로 읽힌다.

그 당시 '검열'이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은 너무 컸음을 밝힌다. 폭력적인 억압을 겪어온 동료들이 있었기에, 단순하게 도식화시켜 발언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작가의 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싶기도 했다. 5년의 시간을 지나, 이제 블랙리스트의 맥락에서 '작가의 방'을 읽고 있는 국립극단은 무엇을 보았고 성찰했으며 어떤 맥락에서 '작가의 방'을 바라보고 있는지 역으로 질문하고 싶다.

2016년 당시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참여 작가로서의 열매감

그 당시 '작가의 방' 참여 작가로서 내가 하는 문제 제기가 희석되고 있다고 느끼기도 했고,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이슈인 검열의 맥락을 크게 읽어내지 못한 채 개인이 경험한 감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다. 공개 토론회 이후에도 모멸감과 자괴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토론회가 이뤄지기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국립극단의 대화 요청은 없었고,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도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 2017년 5월 열린 공개 토론회 제목에 들어가 있는 문구 '사태를 넘어서'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작가의 방' 사태는 연극계의 발전적인 논의를 위한 중간 사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공개 토론회의 풍경이 기억난다. 연극계에서 행해지는 다른 포럼들보다 훨씬 그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가 끝나자 웃으며 포옹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았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포옹을 청했다. 나는 포옹할 수 없었다.

'작가의 방'이 검열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답은 쉽사리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작가의 방'은 창작극을 발굴하고자 하는 국립극단의 서두름, 검열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직원의 발언, 창작자들을 경쟁구도에 놓이게 하는 과정상의 문제, 여섯 개의 낭독공연 중 본공연으로 선정되지 못한 작품이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등 여러 사안들이 다층적으로 얽혀 있던,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실패 그 자체의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에 속해 있던 나는, 그 당시 당사자로서 겪은 특정한 경험이나 감각에 집중하면서도, 이 사태를 통해 문화예술계 내 검열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를 성찰해야만 한다는 '부여된 거리두기' 속에서, 공개 토론회만을 통해서 국립극단과 만날 수 있었다.

2016년 '작가의 방'은 검열의 문제이다

나는 이제야 '작가의 방' 사태를 검열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다. 2016년 '작가의 방'에서는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집필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랬고, 집필이 완료된 시점에서도 그랬다. 국립극단 '작가의 방' 참여 작가인 나는, 5년 만에 '작가의 방'에는 검열의 기제가 분명히 작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국립극단 '작가의 방' 초기 모임에서였다. '작가의 방'의 취지나 속성이 잘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참여 작가들은 '작가의 방'에

[B-13]

대해 물었다. 이는 작가들이 국립극단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참여하기로 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션을 이해하기 위한 대화의 과정이다. 그 당시 나 역시 질문을 했다. 특정 사회적 참사를 언급했고, 그것에 대한 작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였다. 국립극단의 의중을 묻기 위해 반복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며, 눈치를 본 것도 아니다. 국립극단은 정부나 국가를 비판하는 작품을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은 누구나에게 있었다. 국립극단이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않기 위해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완성된 작품에 대한 검열만이 검열이라고 할 수 있나? 작가들이 집필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는 것은 무엇인가. 별도의 지시가 없었고 억압하지 않았고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검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것이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이 할 수 있는 말일까. 여섯 개의 공연 중 두 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이슈를 다룬 공연을 배제시키려 했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나? 검열의 기제는 ‘작가의 방’ 내내 작동했다. 국립극단은 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며 2016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리는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2021년 국립극단의 윤리적 성찰과 실천적 수행은 무엇인가

그 이후 국립극단은 어떤 성찰을 통해 창작자들을 만나고 있는지 질문한다. 국립극단의 2016년의 시의성, 2021년의 동시대성은 무엇인가? 큐레이터십이란 단순히 동시대 이슈를 다루고 창작자를 존중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계 내 블랙리스트와 검열 사태를 겪으며 국립극단은 무엇을 성찰했나? 그리고 개별 사례의 특정성에 대해 밀접하게 조사하고 사유했나? 당시의 창작자들 중에서 소외된 창작자가 없는지 검토해보려 했다?

2016년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과 책임작가는 국립극단의 사과를 대면으로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국립극단은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나 자신조차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공개 토론회가 있지 않았냐고 한다면, 앞서 밝혔듯 그 토론회는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립극단이 2016년도의 ‘작가의 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간과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B-13-6] 작가 이오진의 목소리

‘작가의 방’을 돌아보며

0.

‘작가의 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4년이 지났고, 잊어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준비하며 당시의 SNS 글과 기고문, 기사들을 다시 읽었다. 조각을 떼어 맥락을 만드는 대신 기억의 편린을 나열하는 편이 나올 것 같다. 왜곡된 기억이 있을까 쓰기가 두렵다. 하지만 사례집은 앞으로 국립극단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일 테니, 당시 내 기억과 감각을 최대한 적어보겠다. 몇몇 기억들은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1.

2016년 초에 연락을 받았다. ‘작가의 방’이라는 창작극 개발 프로그램을 한다. ○○○○○ 등의 작가들에게 제안 해놓은 상태이다, 오진 작가는 참여 의사가 있으시나. 나는 연락 주셔서 감사

[B-13]

하다고 인사했다. 전화를 거신 분이 통화를 하다 담배를 피우셨다. 나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나보다고 생각했다.

2.

‘작가의 방’ 제안을 받은 다른 작가와 대학로 혜화동 1번지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연락 받으셨나, 참여하실거나, 예전에 국립극단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에서 젊은 창작자들이 다들 국립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작가의 방’은 괜찮을까. 어쨌든 동료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일이 잘 없으니, 이 기회에 모여 서로의 글을 함평하는 건 좋을 거 같다,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3.

첫 모임. <개구리> 발언이 있었다. ‘정부(혹은 ‘사회’—둘 중 하나이다) 비판은 극단에 가서 하시고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써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

4.

영국 로얄코트 드라마터그 피드백을 받아야 하기에 배경지식이 필요한 역사극은 쓰지 말아달라고 하셨다.

5.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셨다.

6.

당시 모임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째짤했다. 몇몇 작가들과 극장 근처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하다 답 없이 집에 돌아가던 기억이 난다. 향후 계획이 불투명했고, ‘국립을 위한 작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7.

낭독공연 발표를 앞두고 1대1로 만나는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 계약서 내용도 그 자리에 처음 읽었다. 작가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사전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싸인을 했다.

8.

당시 <남자는 다 애야>(B-13.9) 공연을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하야하라 박근혜’를 배우님들과 연출님과 함께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B-13.9) (2016 작가의 방 낭독극장:
남자는 다애야), 2016-11-09, 2016-
11-12, 백성희장민호극장, 작이오진,
작곡 ○○○, 연출 ○○○

[B-13]

9.

‘작가의 방’ 낭독극장 합평회에서, 낭독공연의 성과가 좋아 몇 편의 공연을 선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결국은 경쟁 시스템이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10.

낭독극장이 끝나고 2주 정도 지나 전화를 받았다. 나와 ○○○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제 작품이 뮤지컬이라 (연극 위주의) ‘작가의 방’에 적합하지 않아서 떨어진 것인지’ 되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무엇보다 선정과 탈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이미 선정된 작가들이 곤란해질까봐 최대한 나이스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11.

나와 ○○○ 작가의 작품은 페미니즘 희곡이라는 이유로 떨어졌다. 당시 예술감독님께서 페미니즘 이슈가 있는 ‘두 작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는 대화의 맥락에서 오도된 것일 거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다. 페미니즘 작품을 꼭 집어서 탈락시키실 리는 없다고, 그 이유는 아닐 거라고 믿었다. 나는 ‘〈개구리〉 같은 작품’이 아니라 ‘페미니즘’ 희곡을 썼기에 심사에서 탈락했다.

12.

‘작가의 방’에서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7 국립극단 디아스포라전의 번역을 제안 받고 작업에 들어갔다. ‘작가의 방’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국립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작업을 수락한다는 것이, ‘작가의 방’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두려웠다. ‘작가의 방’에서는 떨어졌지만, 너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다, 그러니 탈락에 대해서 패넘치 말라, 라는 맥락이 작용했을까 두려워하며 나는 이후 오래 시달렸다.

13.

2017년 3월, 고연옥 드라마터그님의 『연극평론』 기고문 게재 이후 한겨레 ○○○ 기자님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다. 고민하다 전화를 다시 드렸고 전화 인터뷰를 했다.

14.

한겨레 기사가 났다. [단독] 국립극단도 검열했다...“개구리” 같은 작품 쓰지 말라” 강요’

15.

다음 날 국립극단 홈페이지에 당시 예술감독님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개구리〉 발언은 직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라는 것이 내용의 골자였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다.(B-13.10)

16.

○○○ 작가, 구자혜 작가, 고연옥 드라마터그님과 ‘작가의 방’ 토론회 준비를 시작했다.

[B-13]

17.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선정된 작가도, 선정되지 않은 작가도, 선정을 포기한 작가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18.

나는 대본을 열심히 쓰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올리고 싶었다. 그런데 ‘작가의 방’을 거치며, 이 바람 자체가 나의 죄책감의 원흉이 되었다. 국립에서 공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눈앞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자꾸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 ‘국립을 위한 대본’을 써야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립에서 공연을 올리고 싶어하는 젊은 작가가, 뭐가 싫고 왜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작가의 방’이 끝난 이후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되기 시작할 때, 나는 ‘내가 국립에서 공연하고 싶어서 당시에는 넘어가놓고 이제 와서 얘기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시달렸다. 검열은 〈개구리〉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검열은 이 지점에서부터 내면적으로 발생했고 자존감을 끌어내렸다. ‘국립을 위한 작품을 써주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분이 작가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한다. 공연하고 싶은 마음. 가난하지 않은 환경에서, 나의 대본이 잘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알고도 ‘국립을 위한 작품’을 써달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기획자와, 젊은 창작자 사이에는 분명한 갭을 관계가 존재한다.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위계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성하며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창작자의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19.

〈개구리〉 같은 작품을 쓰지 말아 달라는 표현은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당시 국립극단 측이 작가를 대하는 태도였으며 ‘작가의 방’ 과정 전반에서 벌어진 총체적 난국이었다. 게다가 이 〈개구리〉 때문에 ‘작가의 방’ 논의는 놀랍도록 축소되었다. 결국 2017년 5월에 있던 ‘젊은 극작가들의 창작 환경과 공공극장의 역할-국립극단 ‘작가의 방’ 사태를 넘어서’ 토론회는 국립극단 또한 검열의 피해자였음을 고백하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고, 젊은 극작가들과 공공극장의 관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물 건너갔다. 애통했다. 처음부터 〈개구리〉와 ‘검열’ 프레임으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였다.

20.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에 대해 생각한다. 작가는 공공기관을 위해 작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믿는 가치를 작품으로 구현해내고자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젊은 작가들을 모아 향후 계획은 알려주지/정해놓지 않은 채 ‘국립극단을 위한 작품’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국립극단 측이 ‘작가의 방’과 젊은 창작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B-13.10)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국립극단 웹사이트(ntck.or.kr,
2017-03-17)

[B-13]

21.

결국 로얄코트 드라마터그 피드백은 생략되었으나, 이제와 생각해보면 이 발상 또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왜 대한민국의 극작가들 대본이 영국 로얄코트 드라마터그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 평가를 받아 대본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로얄코트의 피드백을 받으면 국립극단에 더 적합한 대본이 되는가?

22.

지금 돌이켜보면, [1] 젊은 작가들을 모아 [2] 로얄코트의 피드백을 받고 [3] 드라마터그, 다른 작가들과 합평을 하여 [4] 국립을 위한 작품을 쓰고 [5] 내부 심사를 통해 작품을 평가한 후 [6] 선정하거나 탈락시키는 시스템이었다.

23.

이제 와서야 2016년의 내가 안쓰럽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해 대본을 썼고, 팀원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했으며, 낭독공연을 올렸고, 페미니즘 희곡이라 탈락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라 떨어졌다는 사실도 아주 나중어야 알았다.

24.

돌이켜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잠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나를 짓누르던 열패감이 떠오른다. 나는 누군가에게 패했다? 패했다는 것은 누군가와 싸웠다는 것인가? 나는 싸움의 상대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신인 작가였고, 공연을 올리고 싶었다.

25.

‘작가의 방’ 낭독극장 탈락 이후, <김치녀 레볼루션>(B-13.11)의 작가 ○○○는 국립극단 잔디마당에서 <페미리볼버>라는 이름의 야외극을 공연했다. 서계동 국립극단 건물을 향해 비비탄총을 쏘았다. 공연을 제지하려는 국립극단 직원분들과 공연을 지지하려는 동료들이 잔디마당에 모였다.

26.

○○○ 작가는 오래지 않아 연극 작업을 접었다.

27.

나와 작가들은 그때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

원고 요청서에서 앞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짐

(B-13.11) (2016 작가의 방 낭독극장:
김치녀 레볼루션), 2016-11-10, 2016-
11-13, 백성희장민호극장

[B-13]

또는 약속을 요청해주셨는데, 아마 위의 내용이 요청의 다른 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16년 ‘작가의 방’ 당시 국립극단과 지금의 국립극단은 다르다고 믿는다. 지금 이렇게 사례집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의 원고를 받아 책을 만들고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국립극단 또한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달라야 한다. 국립극단과 일하는 과정에서 상처 받거나 자책하는 젊은 작가가 없기를, 이제 일을 갖 시작하는 창작자일지라도 국립극단과 작업을 할 때 평등한 동료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어느 작가도 ‘국립극단을 위한 대본’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 다만 국립극단이 작가가 가장 그다운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을 있는 그대로 귀히 대하며 무대를 여는 극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아래 내용은 2017년 5월에 있었던 ‘젊은 창작자와 공공극장의 역할-‘작가의 방’을 넘어서’ 토론회 플로어에서 발표했던 나의 발표문이다.

“안녕하세요. 국립극단 ‘작가의 방’ 1기로 참여했던 이오진입니다.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시작한 ‘작가의 방’에 대해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저는 ‘작가의 방’ 낭독극장에서 <남자는 다 애야>를 무대에 올렸고, 떨어졌습니다.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의 시간은 끊임없는 자기 증명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작산실, CJ크리에이티브마인즈,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의인재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원 서류와 면접을 거치며, 매순간 나의 대본이 다른 대본보다 낫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작가인지 어필해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과정이 그다지 곤욕스럽지 않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일이 괴로워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안테나를 꺼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국립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작가의 방’이 경쟁 시스템이었다고 말씀해주셨다면, 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늘상 해오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연옥 작가님의 『연극평론』 글 이후, 한겨레 기사가 나고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사태가 공론화된 후 주변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 왜 말 안 했냐, 너는 왜 페이스북에 니 의견 개진 안 하나, 오진이 네가 싸운다면 힘이 되어주겠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지 못했고, 회피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데뷔 이래 지금까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면서, 언론에서, 선배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신다고, 힘을 받아 이제 와 이야기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경쟁 시스템과 젊은 극작가를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것. 오늘 나오신 국립분들이, 작가들과 함께 비전을 갖고 함께 거주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반성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나에 대한 반성합니다. 내 작업은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선택받지 않더라도 여전히 귀하고 의미 있다는 것. 또한 극작가는 누군가에게 교육 받아 성장해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팀과 함께 고민하며, 공고한 나의 세계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는 후배들이 작업할 때에 조금 더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안테나를 끄지 않고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국립극단 사례집 발간에 부쳐

아직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론하고 있으나, 도대체 언제까지 블랙리스트 사태를 말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곤 한다. 헌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답한다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의한 피해자의 배·보상과 명예 회복 그리고 사회적 기억 등의 조치, 가해자에 대한 형사·징계·민사 책임 추궁,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를 초래한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개혁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가해자 또는 국가를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의 '사과'는 사과의 의사 표현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행 기 정의를 실현하는 조치가 뒤따름을 포함한다. 헌법 연구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범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는 나의 기본적인 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한국 사회는 민주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직권남용죄'로 초라하게 이뤄졌다. 범죄는 조직적이었는데 각종 책임은 개별화했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범죄로서의 성격은 희석됐다. 국가의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대통령실(청와대)·국가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 공공기관 그리고 문화예술인의 위계적 관계를 청산하고 재정립하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시민들은 물론 문화예술계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만큼 엄두가 나지 않는 구조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구조적 폭력은 가시적으로 현상하지 않으므로 그 실체를 인식하기도 어렵지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시작해서 국가 또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길고 먼 지난한 과정을 지나야만 재발 방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2017년 7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8년 6월에 활동을 종료했다. 그 이후 이행협치추진단이 꾸려져 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의 이행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제도개선 권고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던 국립극단이 추가돼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의 일환으로 이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국립극단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일단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성찰과 대응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국립극단의 사례집 발간은 그 의미가 크다.

어떤 일이든 이상적인 형태가 그대로 현실화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작은 씨앗은 큰 성체의 이상을 이미 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극단의 사례집 발간은 어떻게 블랙리스트 사태의 이후 문제를 지속해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나온다.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원초적 힘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있다. 국립극단은 연극예술인들의 창작·표현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권리 향유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 국립극단은 시민과 연극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기관 또는 그 어떤 위헌·위법 또는 부당한 간섭에 당당히 맞서야 하는 위치에 있다. 국립극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립극단의 존재 이유와 그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연습 중인 작품에 대해 정치적 내용이나 직설적인 욕설 배제 또는 결말 수정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전달하는 등 대본 검열이 있었고, 재공연을 방해하는

[E-1]

일도 있었으며, 홍보물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 관련 사항의 삭제 또는 홍보물 이미지 등 수정 요구, 제작·공연의 배제, 명동예술극장 대관 취소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딛고 국립극단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길은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이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외부에 공론화함으로써 모든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번 국립극단의 사례집은 그 시작인 동시에, 사례집 작성에서의 다양한 관계의 형성은 향후 미래 지향적인 국립극단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데 자양분이 된다. 다른 문화예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분발을 촉구하는 선례이기도 하다.

나는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을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사례집 발간 관련 피해자 면담은 약 13개월간 총 9개 사례 관련 피해자 26명과 이뤄졌다고 한다. 피해자에 따라 면담의 양태가 다양하게 전개됐다. 적극적으로 면담에 참여하고 책임자의 사과를 받은 피해자도 있지만, 면담 시작 시점에 사례집 참여를 원치 않은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수차례에 걸쳐 장시간의 면담을 진행했으나 고민 끝에 비공개 처리를 요청한 피해자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불편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한다.

반인도적 범죄는 시효가 없다. 예술인의 인격권과 직결된 창작·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행위는 법·정치·사회·윤리·도덕적 시효가 있을 수 없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종료 선언은 모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안심하고 말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설령 국가가 블랙리스트 사태를 획책하더라도 동료 예술가와 예술지원 공공기관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가질 때다. 그래야 처음엔 피해자들이 개인으로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공익적 고발자인 동시에 피해자 일반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나서리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함께 모든 연극예술인이 국가가 부당하게 간섭한다면 이제는 국립극단이 그리고 연극계 동료들이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감을 가지도록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더 지속해서 쌓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사례집 발간 이후에는 언제까지 블랙리스트 사태를 공론화해야 하나고 묻는다면, 나는 국립극단이 존속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고 답하고자 한다. 국가폭력의 시대를 청산하고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로의 이행하는 정의(正義)의 과제는 과거·현재·미래의 부정의(不正義)에 대항해 교정하고 과거·현재·미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미래로 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직접 관련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극단 조직의 문제다. 국립극단에서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속 공론화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방관하거나 침묵했던 구성원들은 물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구성원들까지 그리고 그 이후 국립극단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까지도 국립극단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한 국립극단의 과거·현재·미래의 책임을 이어간다. 피해자인 연극예술인의 범주를 넘어 그 논의를 확장하면, 연극예술인들과 함께 또 연극예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해야 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함께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과정을 거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국립극단의 가해자 성격이 열어지고 연극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극예술인들과 나란히 또는 앞장서서 창작·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본연의 위상을 회복한다. 여기에서는 연극이라는 장

[E-1]

르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의 자유 일반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해 모범이 되는 동시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그것은 외부적으로는 문화예술인·시민과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조직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이다. 만약 국가기관이 국립극단의 위상이나 역할 또는 그 운영에 위헌·위법·부당하게 간섭하려 한다면, 조직 내부에서의 민주적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호소해 연대함으로써 가해자가 아닌 권리 옹호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립극단이 범인의 범적 형태를 취한 것은 국가라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외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립극단의 내적 또는 실질적 독립성은 외적 독립성과 결부한 국립극단의 과제이자 의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은 결국 국민의 것이다. 국가는 단순히 재정 면에서 그리고 지원 면에서 매개 역할을 할 뿐 결국 국립극단은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연극예술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국립극단이 시민과 연극예술인이 연극 공연을 통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연극예술인의 창작·표현 자유를 옹호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

[E-2]

기초 자료 목록

- 이 책의 내용 중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관해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2019)를 기초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 백서 원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mcst.go.kr)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blacklist-fre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정의	백서 본책 1권 20~21쪽
[A-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유형	백서 본책 1권 22~23쪽
[A-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요 문건 현황	백서 본책 1권 27~30쪽
[A-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 분석 결과	백서 본책 1권 30~41쪽
[A-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제도적 원인	백서 본책 3권 52~54쪽
[A-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점	백서 본책 3권 45~52쪽
[B-1]	공연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실행 양상	백서 본책 2권 153~163쪽
[B-2]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백서 부록 2-3권 238~241쪽
[B-3]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대본 수정 조치가 있었던 경위	백서 부록 2-3권 242~250쪽
[B-4]	국립극단 공동 제작공연 <알리바이 연대기>의 경우	백서 부록 2-3권 251~255쪽
[B-4-4]	연출가 김재엽의 목소리	녹취록(2021-10-14)
[B-5]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에서 대본 수정 조치 경위	백서 부록 2-3권 255~259쪽
[B-5-4]	<구름> 프로덕션의 목소리	녹취록(2021-08-19)
[B-5-5]	연출가 남인우의 목소리	기고문
[B-6]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에서 <빛의 제국> 등에 대한 양해 조치가 있었던 경위	백서 부록 2-3권 259~265쪽
[B-7]	<3월의 눈>이 배제된 경위	백서 부록 2-3권 265~267쪽
[B-8]	국립극단 공동 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홍보물에 대한 수정 경위	백서 부록 2-3권 268~271쪽
[B-8-4]	제작자 윤한솔의 목소리	녹취록(2022-01-26)
[B-8-5]	연출가 박상현의 목소리	기고문
[B-9]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된 경위	백서 부록 2-3권 272~273쪽
[B-10]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날아가 버린 새>가 배제된 경위	백서 부록 2-3권 274~275쪽
[B-10-5]	<날아가 버린 새> 관련 국립극단 사과문	웹사이트 공개문(2019-10-21)
[B-10-6]	연출가 전인철의 목소리	기고문
[B-10-7]	작가 장지혜의 목소리	기고문
[B-11]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양해 조치 경위	백서 부록 2-3권 275~278쪽
[B-12]	국립극단 공동 주최 제7회 현대일본회극 낭독공연이 취소된 경위	백서 부록 2-3권 278쪽
[B-13]	2016 '작가의 방'의 경우	백서 부록 2-3권 279~284쪽
[B-13-4]	작가 고연옥의 목소리	기고문
[B-13-5]	작가 구자혜의 목소리	기고문
[B-13-6]	작가 이오진의 목소리	기고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국립극단 사례집

발행일 2023년 10월 23일
 발행인 김광보(단장 겸 예술감독)
 발행처 재단법인 국립극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2층
 www.ntck.or.kr
 1644-2003

편집·디자인 designikki

ISBN 979-11-85389-59-2 93060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 책의 내용은 국립극단 공식 웹사이트(ntck.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